

한림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제15회 학술 심포지엄

오래된 미래로서의 18세기 문학 -지배와 종속의 정신적풍경-

한림대학교 일송기념도서관 4층 교육실 17416호

2018. 12. 12(수) 14:00~17:50

한림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주최



한림대학교 인문학연구소

INSTITUTE OF HUMANITIES, HALLYM UNIVERSITY

진행순서

오래된 미래로서의 18세기 문학
-지배와 종속의 정신적 풍경-

제1부	
사회: 신서인(한림대 국어국문학전공)	
14:00~14:10	개회
14:10~15:00	18세기 한국 고소설의 독자과 독서문화 발표: 이승은(한림대 국어국문학전공/디지털인문예술전공) 토론: 엄태웅(강원대 국어국문학과)
15:00~15:50	18세기 중국의 보고서 《紅樓夢》 - 미래를 향한 간절한 외침 발표: 고민희(한림대 중국학과) 토론: 김민호(한림대 중국학과)
15:50~16:00	휴식
16:00~16:50	18세기 영국의 바다 - 무역 열풍에 비친 마음의 풍경들 발표: 김 번(한림대 영어영문학과) 토론: 이용희(강원대 영어영문학과)
제2부	
사회: 한경민(한림대 영어영문학과)	
16:50~17:40	종합토론
17:40~17:50	폐회

목 차

>>> 제1발표

18세기 한국 고소설의 독자와 독서문화 1

이승은(한림대 국어국문학전공/디지털인문예술전공)

>>> 제2발표

18세기 중국의 보고서 《紅樓夢》 - 미래를 향한 간절한 외침 17

고민희(한림대 중국학과)

>>> 제3발표

18세기 영국의 바다 - 무역 열풍에 비친 마음의 풍경들 61

김 번(한림대 영어영문학과)

18세기 한국 고소설의 독자와 독서문화

이승은(한림대 국어국문학/디지털인문예술학전공)

1. 서론

이 글의 목적은 18세기 한국 고소설 독서의 양상을 살피고, 지배/종속의 질서와 그에 대한 균열이라는 관점에서 그 의미를 도출하려는 것이다.

특히 18세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시기에 소설사에 있어서 다양하면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문체반정과 관련한 소설파동, 중국소설의 유입과 번역, 국문장편소설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유통방식을 통해 상업적, 대중적 차원에서 소설이 향유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소설에 대한 인식 또한 변화를 보이게 된 것이 바로 18세기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 소설 독자와 독서문화에 대한 탐색은 비단 문학의 문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문화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지배와 종속, 균열이라는 용어에 물리적 충돌이나 이념적 투쟁의 의미가 담겨있는 것은 아니다. 18세기 이후 한국 고소설이 점차 통속적, 대중적 속성을 지니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설 읽기는 오히려 유희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유희적 행위를 경험하는 독자의 내면에서는 어떤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변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개인의 집합이 만들어내는 동력은 기존의 질서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마련이고, 이를 균열이라는 관점에서 보려는 것이다.

사실 조선후기 고소설 독자와 독서문화에 대한 연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상당한 경지에 올라 있다.¹⁾ 그 흐름을 거칠게나마 정리해보면 첫째, 고소설 작품과 독자층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개별 작품의 목록을 시기별로 정리하고, 누가 어떤 작품을 읽었는지 파악하는 작업은 고소설의 존재 양상을 해명하는 동시에 독자를 유형화하고 그 계층성을 구명하는 연구로 이어졌다. 둘째, 고소설의

1) 지면상 고소설 독자와 비평에 대한 방대한 연구 성과를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다. 여기서는 그 흐름만 개괄적으로 언급하고, 필요한 경우 본문의 서술과정에서 관련 연구를 인용하도록 하겠다.

표기체계와 제작방식, 향유공간을 독자와 연결시킨 논의가 있다. 이를 통해 국문소설과 한문소설의 독자층의 차이, 필사본, 판각본, 활자본의 유통방식과 판각본의 지역적, 시대적 차이가 서사에 미치는 변화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질 수 있었다. 셋째, 고소설 독자의 심미적 체험 및 독서 효용에 대한 연구이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작품을 읽었는가, 실제 독서를 통해 무엇을 얻었는가 등의 질문은 고소설 독자의 미의식을 이해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정답만이 반복해서 제출되고 있는 듯하다. 교양과 오락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전근대 시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에서 유럽에 이르기까지 소설이 공동체 내부에서 교양과 오락의 도구로 기능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²⁾ 그러나 “소설 읽기”를 통해 18세기 조선이라는 특정한 시공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지금, 저 답안이 어딘가 미진하게 느껴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문체반정 등으로 대표되는 강렬한 금지의 명령 속에서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소설과 그에 대한 열광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필자는 그것이 기존 질서의 균열과 새로운 모색의 징후라고 본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당대인들의 소설에 대한 독서기를 비롯해 독서문화를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을 검토하려고 한다.³⁾ 먼저 전시대의 독서문화와 지향을 알 수 있는 자료를 간략하게 살피고, 18세기에 산출된 독서기가 그와 달라지는 지점을 읽기의 주체, 공간, 지향의 차원에서 고찰할 것이다. ‘소설의 역사’가 아닌 ‘소설 읽기의 역사’를 통해 18세기의 소설 독자의 내면 풍경과 문화적 풍토에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⁴⁾

2. 전 시대 소설 읽기의 지향

2) 조동일, 『소설의 사회사 비교론』, 지식산업사, 2001; I.Watt 저, 전철민 역, 『소설의 발생』, 열린책들, 1988 등에서 이러한 견해를 찾아볼 수 있다.

3) 소설 독서기는 개인의 문집과 소설 필사기, 서발문 등에 산재해 있다. 『한국고소설 관련 자료집』 I·II는 자료를 일일이 찾는 수고를 덜어주었다. 그밖에도 고소설 비평을 주제로 한 다음 연구서에 수록된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오춘택, 「한국고소설비평사 연구」, 유탁일, 『한국고소설비평자료집』, 아세아문화사, 1994;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0; 이문규, 『고전소설 비평사론』, 새문사, 2002; 김경미, 『소설의 매혹』, 월인, 2003.

4) 로제 샤프티에는 『읽는다는 것의 역사』에서 독서를 텍스트의 세계와 독자 세계의 만남,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의미의 전유 과정으로 정의했다. 어떤 독자들 독서를 통해 나름의 전유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를 통해 스스로를 이해하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파악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책이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과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독서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로제 샤프티에·굴리엘모 카발로 엮음, 이종삼 옮김, 『읽는다는 것의 역사』,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6.

선초 필기잡록에서부터, 잡다한 이야기를 모아 기록하고 그것을 향유하는 행위는 주로 다음의 세 방향을 표방하고 있었다. 그것은 소일거리, 교양의 학습, 교화의 수단이라는 측면이다.

경(經)이라 하고 사(史)라 하는 것은 진실로 성스러운 임금과 어진 재상이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평정하는 도요, 심지어 패관소설이라는 것도 또한 유자가 문장으로 희담하거나 혹은 박문(博聞)의 자료로 삼거나 혹은 파한(破閑)을 위함이니 모두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중략> 무릇 조야 사대부의 일언 일사라도 귀에 들리면 바로 적고 붓으로 글을 지어내 명교(名敎)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담소에 도움을 주기도 하니 강호에 묻혀사는 자가 새롭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국노(國老)가 동헌에서 나눈 필담이다.⁵⁾

인용문은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이 지은 『태평한화골계전』에 대해 양성지(梁誠之, 1414~1482)가 쓴 서문이다. 『태평한화골계전』은 서거정이 주변 인물들의 일화를 보거나 듣고 기록한 것으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해학을 위주로 한 이야기 모음집이다. 그런데 양성지의 서문은 작품의 의의를 한껏 높여 드러내고 있으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구구하다. 그에 따르면 박문(博聞)은 시시콜콜한 세간의 이야기를 기록한 행위의 근거가 되고, 파한(破閑)은 “한번 당기고 한번 풀어준다[一張一弛]”는 『예기』의 구절을 근거로 하여 정당화된다. 또 이것들은 명교(名敎)에도 도움이 된다. 즉 『태평한화골계전』은 한바탕 웃음을 통해 긴장을 풀어주는 도구이자 위정자가 지녀야 할 교양의 보고(寶庫)이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교훈을 제공한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교훈성에 대한 언급은 서거정의 자서(自序)와 강희맹(姜希孟, 1424~1483)의 서문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이는데, 이는 여항의 비루한 이야기, 혹은 우스갯소리를 모아 책으로 내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의식에서 비롯된 일종의 자기변호, 변명처럼 읽히기도 한다.

여하간에 박문, 소일, 교훈이라는 세 단어는 지속적으로 이야기 향유의 지향점으로 작용했다. 이후 사대부들이 편찬한 필기잡록 및 패설집의 서발문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의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허구 서사의 의의를 논하는 자리에서 이들이 적극 활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16세기 전반 사림파 문인들은 소설이 교화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⁶⁾ 다음은 이항(李沆, 1474~1533)의 번안작으로 추정되는 <오륜전전(五倫全傳)>의 서문이다.

5) 양성지, 『동국골계전』 서.

6) 정출헌은 중종반정 이후 이른바 기묘사림(己卯士林)들이 자신들의 개혁적 이상과 기존의 재도론적(載道論的) 문학론을 결합한 교화론적 문학관을 지니고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 정출헌, 「16세기 사림파 문인의 문학사회학적 인식 지평과 문학생성 공간의 연구」, 『동양한문학연구』24, 동양한학회, 2007.

내가 향간의 무지한 사람들을 살펴보니 언문을 익히고 전하며, 노인들이 서로 전하는 말을 베껴 밤낮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석단과 취취 이야기 같은 것은 음설망탄(淫褻妄誕)해서 실로 취해볼 것이 없었고, 오직 오률헌 형제의 이야기만이 아들이 되어서는 효를 행하고, 신하가 되어서는 충을 행하며, 부부에게 근분을 세우게 하고, 형제에게 서로 따르게 하고, 친구 간에 믿음을 주어 은혜가 있게 한다. 그것을 읽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반성하게 하니 어찌 본래의 성품이 느끼는 바가 있지 않겠는가? 이 책이 이제 다투어 서로 전하고 익혀져 집안에 보관되고 사람들이 외워서 그 밝은 바로 통하고 그 좋아하는 바로 나아간다면, 인도하고 권유하는 방법이 어찌 쉽지 않겠는가?)

<오률헌전>은 본래 중국의 백화체 희곡 <오률헌비기>를 한문으로 번안하고 이를 다시 국문으로 번역해 관아에서 발간, 보급한 이력을 지닌 작품이다.⁸⁾ 등장인물 형제의 이름을 오률헌을 온전히 갖추었다는 뜻에서 ‘오률헌(五倫全)’과 ‘오률헌비(五倫備)’라 붙였으니 그 창작의 의도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작품을 보급한 주체들은 사람들이 소설을 좋아하는 사회적 현상을 포착하고 이를 이용하고자 했다. 이석단과 취취 이야기는 『전등신화』의 <취취전>을 염두에 둔 것인데, 그 내용이 남녀 간의 애정을 다루고 있어 음설망탄하다 비난하였지만 소설이라는 형식 자체는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실제로 <오률헌전전>의 서사는 가족 구성원 사이의 갈등이 오률헌에 의거하여 해결되는 양상을 다양하게 변주하여 반복적으로 보여주며, 이를 통해 독자는 공동체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말썽에 대처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 이처럼 소설은 하층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긍정되었다.

여기서 잠시, 교훈의 전달이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설이 지니고 있는 서사적 재미가 꼭 필요했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위 서문의 저자는 굳이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그의 말대로 사람들이 <오률헌전전>을 다투어 전하고 외워서 읽었다면 그것은 그들이 이념적 교화에 젖어드는 열락을 경험했던 탓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상층의 독자들 또한 소설을 읽었다. 선초 필기잡록의 편찬자들이 박람(博覽)·박문(博聞)이라 명명했던 소설 읽기의 지향은 허구적 서사를 통해 교양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논리로 변화하였다. 특히 16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유입된 연의소설류는 역사를 기반으로 창작되었으며 독자들 역시 이를 역사서의 일종으로 받아

7) <오률헌전전> 서. 무악고소설자료연구회, 『한국고소설관련 자료집』 I, 태학사, 2001, 103~104쪽.

8) <오률헌전전>의 번안 및 번역의 과정은 윤주필, 「16세기 사림의 분화와 낙서거사 이항의 <오률헌전전> 번안의 의미」, 『국어국문학』 131, 국어국문학회, 2002 참조.

들었다.⁹⁾

일찍이 사가(史家)의 제서연의(諸書演義)를 보니 그 말을 세우고 사(辭)를 전하는 것이 모두 부항할진저, 허구를 사실로 만들며 꾸미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 확장하였다. 그 사건을 나누고 그 제목을 별도로 하여 앞에서 끝내지 않고 다음 편으로 이어지게 하니, 대개 눈길을 끄는 데 이롭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데 힘쓰고자 함이라. <천군연의> 한 책은 <중략> 그 법식은 사가의 연의를 모방한 것이나 그 말은 유가의 공부에 근본하고 있는 것이다. 근래에 소설잡기로서 세상에 유행하는 것이 참으로 많은데, 그 가운데 드러난 것으로 말하자면 중국에서 온 것으로 『전등신화』와 『염이편』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으로 『종리호로』와 『어면순』 등이 있다. 이것들은 귀신이 나오는 괴담한 말이 아니면 모두 남녀가 만남을 기약하는 일들이어서 제사(諸史)에는 멀리 미치지 못한다. 하물며 이 책과 한 가지로 말할 수 있겠는가. 보는 이는 마땅히 취사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¹⁰⁾

인용문은 정태제(鄭泰齊, 1612~1669)가 쓴 <천군연의> 서문의 일부이다. “사가(史家)의 제서연의(諸書演義)”라는 표현을 통해 그가 연의소설과 역사서를 유사한 종류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황중윤(黃中允, 1577~1648) 또한 <일사목록해(逸史目錄解)>에서 연의소설류를 ‘제사(諸史)’라 칭하고 있으니 이는 당대 지식인층이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던 생각이라 하겠다. 경사(經史)는 사대부가 힘써 익혀야 할 지식의 범주에 속한 것이니, 연의소설류의 독서는 독자들에게 교양을 습득하는 수단 하나로 여겨졌을 법도 하다. 정태제가 당시 유행하던 소설인 『전등신화』나 『염이편』과 비교해 연의소설류를 높게 평가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인식에 기반한 것이었다.

한편 정태제는 <천군연의>를 여타 연의소설류보다 한 급 더 위에 올려두고 있다. 그 이유는 <천군연의>가 형식에 있어서는 연의소설을 모방한 것이지만, 그 내용은 유가의 공부에 근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천군연의>는 인간의 마음을 ‘천군(天君)’으로 의인화하고 천군이 주재하는 몸을 국가로 형상화하여 주색(酒色)으로 평정심을 잃는 상황과 본성으로의 회복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이러한 서사의 틀은 김우옹(金宇顛, 1540~1603)의 『천군전』에서 확립된 이후 『천군기』, 『천군본기』, 『천군실록』 등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15, 16세기 심학(心學)의 심화라는 철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¹¹⁾ 그리고 이것이 여타의 연의소설류와 <천

9) 전성운, 「16~7세기 연의소설의 인식과 그 변화」, 『고소설연구』19, 한국고소설학회, 2005, 34~41쪽.

10) 「천군연의」序, 김광순 편, 『현토천군연의』, 형설출판사, 1982, 3~4쪽.

11) 신상필, 「천군류 출현의 철학적 기반과 서사문학적 지위」, 『한문학회』23, 우리한문학회, 2010.

군연의>가 차별화되는 지점이자 사대부 남성이 유가의 공부라는 명목 하에 작품을 향유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

그러나 이 작품이 연의소설의 형식을 차용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태제 스스로도 언급하고 있듯이, 연의소설은 “허구를 사실로 만들어 꾸미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 확장”했으며 장회를 나누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는 모두 작품을 읽는 사람들의 즐거움을 고려한 것으로, <천군연의>와 같은 소설의 독자가 교양과 지식, 그리고 서사 체험에 있어서의 재미를 모두 제공해주었음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17세기까지의 독서기는 다음과 같은 말로 압축 가능하다. 첫째, 교화의 수단. 둘째 교양 습득을 위한 수단. 셋째, 소일거리로써의 수단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지향은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결합되어 나타난다. 즉 독자가 한 편의 소설을 읽을 때 교화와 소일이 결합하거나, 교양의 습득과 소일이 함께 나타나기도 하며, 혹은 세 가지 지향이 모두 혼재되기도 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소일을 내세우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유한한 독자의 소일거리를 찾는 것이 곧 재미를 얻기 위함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이것이 모든 소설 독서 행위의 기반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교훈, 교양, 소일거리 일변도였던 독서기는 후대로 가면서 자못 다양해진다. 그 다양한 양상은 향유층의 내면에 어떤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암시한다. 이제 18세기 소설의 독서기를 통해 그 변화의 지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그러한 변화를 경험한 개인의 존재가 기존의 질서에 가할 균열을 예고하는 한 징후일 수 있겠다는 의심에서 시작한다.

3. 18세기, 소설 읽기의 변화

그런데 막상 18세기 소설을 둘러싼 상황을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전대와 달라진 지점을 찾기 어렵다. 소설 읽기는 여전히 교훈과 교양 습득의 수단이거나 소일 거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으며, 소설과 소설적 문체에 대한 비난과 비판은 한층 혹독해졌다. 정조의 문체반정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은 당대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¹²⁾ 정조는 성균관 시험 답안지에 패관잡기에 관련된 글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자는 과거를 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가 하면,¹³⁾ 이에 걸려든 성

12) ‘문체반정’이라는 용어를 비롯해서 문체반정이 일어난 시점, 문체반정의 내용과 성격, 문체반정의 동기과 목적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서는 윤재민, 「문체반정의 재해석」, 『고전문학연구』21, 한국고전문학회, 2002 참고.

13) 『정조실록』권36, 정조16년(1792) 10월 19일.

균관 유생 이옥(李錡, 1760~1815)에게 정말로 부과(赴科)를 금지했다. 또 이상황과 김조순이 예문관에서 숙직하며 『평산냉연』, 『당송백가소설』을 읽는 것을 발각하고는 책을 불태우고 그들을 질책했다.¹⁴⁾ 후에 이상황은 <힐패(詰稗)>라는 연작시를 써 명말청초의 문인들과 소품문, <서상기>, <수호지>와 같은 소설류 작품을 맹비난했는데, 이는 정조에게 바치는 일종의 반성문이었다.

그러나 소설에 가해지는 무수한 비판은 그만큼 소설이 많이 읽혔음을 반증한다. 실제로 18세기 소설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소설을 읽는 사람의 수가 늘어났으며 독자의 계층과 성별이 확대되었다. 소설이 향유되는 공간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분명 기존의 질서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줄 것이었다. 이 시기 독서기에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미세하게나마 남아있다.

1) 상층 남성의 소설 읽기

소설을 읽고 시를 통해 그 비평을 남기는 문학적 관습은 김시습의 <제전등신화후>에서부터 시작되어, 김인후, 황여일 등 여러 문인들의 소설평시가 존재해왔다.¹⁵⁾ 여기서 살펴볼 이양오(李養吾, 1737~1811)의 <제구운몽후(題九雲夢後)> 또한 이러한 문학적 전통 속에 있으면서 <구운몽>에 대한 본격적인 독서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작품이다. 다소 길지만 전문을 살펴보도록 하자.

전등신화 나온 후 견줄 것이 없더니
누가 다시 「구운몽」을 지었는가
붓이 종횡으로 휘달려 변화를 그려내고
풍류 갖든 이야기 마음껏 기롱하네
천리마 같은 양가(楊家)의 젊은 아이
연화봉의 스님 친히 감싸 보냄일세
채봉 우는 때 버들가지 푸르고
섬월 비추는 곳에 하얀 앵도꽃
선녀인가 귀신인가 춘운의 자태
남자였다 여자였다 경흥의 날개짓
경패는 궁중에서 옛 노래를 평하고
소화는 누각에서 까치소리 들으며
능파 선화하고 요연 내려앉네
부귀와 영화가 일시에 뒤바뀌었구나

14) 『정조실록』권36, 정조16년(1792) 10월 24일.

15) 이문규, 앞의 책, 173쪽.

처음에는 찬란한 뿌리없는 꽃 같더니
 다시금 황홀한 공중누각이었네
 시는 뜻을 나타냄이니 얼마나 기이한가
 진주 알알이 조개에서 나오는 듯하네
 열두 봉우리에 비구름 깊고
 꿈속으로 사람이 오가는데
 왔는지 갔는지 흔적이 없고
 조밥도 익기 전에 겁회를 지나네
 이를 대하자 마음 호탕해지고
 문장이 오묘하여 비점이 쌓이네
 아름다운 목소리 귓가에 나긋나긋
 어여쁜 자태 눈앞에 어른어른
 비로소 깨달노니 인정은 불경함 좋아하지만
 정위의 음악을 어찌 들을손가
 돌아가 성현의 책을 읽는 것만 못하니
 훌륭한 말씀이 해와 별처럼 분명하네.¹⁶⁾

이양오는 <구운몽>의 문장에 대한 찬탄으로 시를 시작하고 있다. 『전등신화』는 문장 학습을 위해 읽었던 작품이기도 한데, 그에 비견될 정도로 <구운몽>이 뛰어난 작품이라 말하는 것이다. “풍류 깃든 이야기 마음껏 기롱하네”라는 구절은 그 서사의 구성이나 묘사의 치밀함이 독자의 예상을 넘어선 것에 대한 찬탄이다. 이어 아홉 명의 등장인물의 특징을 읊는데, 이 또한 줄거리 및 인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소설에 대한 감식안이 뛰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양오는 소설의 본질 및 구운몽의 주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찬란한 뿌리없는 꽃”, “황홀한 공중누각”이라는 구절은 소설이 가허착공(駕虛鑿空)의 기법으로 엮어졌음을 간파한 것이다. 사실은 아니지만 찬란한 꽃을 피워내고 비록 공중누각에 불과하지만 사람의 눈길과 마음을 끄는 아름다운 것. 이는 허구적 서사로서 소설이 지닌 미학을 정확히 보여주는 언급이다. 동시에 이는 구운몽의 주제를 연계해서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양소유의 삶은 더없이 호한한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뿌리 없는 꽃이며 공중누각에 불과하다는 이중적 인식이 드러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욕망의 추구하고 달성에 대한 번민으로 이어진다. 여성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어여쁜 자태는 남성의 욕망이자 보편적인 인간의 욕망을 표상한다. 그런데 독자는 여기서 퍼뜩 깨닫게 된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불경(不經)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러나 한번 일탈을 경험한 독자는 그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정

16) <제구운몽후>.

위의 음악은 음란하여 족히 들을 것이 못된다”는 금기의 설정은 그 위반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돌아가 성현의 책을 읽는 것만 못하”다는 자기반성과 당위의 다짐은 곧 소설을 다시 찾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 여기서 우리는 소설 읽기가 독자에게 긴장된 삶 속에서 잠시의 여유를 제공하고, 일탈의 경험을 제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탈의 경험은 변화의 잠재적 동력이 된다. <구운몽>의 화려한 서사 세계를 마음껏 즐기다가 성현의 말씀으로 급선회하는 독자의 반성은 그 동력이 지닌 위험성에 대한 상층 남성의 본능적 자각에 다름 아니다. 소설은 이처럼 크게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서서히 사람들을 물들여가면서 전복의 에너지를 비축한다. 이양오의 <제구운몽후>는 바로 그 에너지에 매혹되면서 동시에 우려의 시선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이양오의 시가 <구운몽> 한 작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안동 김씨 집안 출신의 관료문인 김이양(金履陽, 1775~1845)의 「언패설(諺稗說)」은 언패, 즉 국문소설 전반을 논한 글이다. 상층의 사대부 남성이 국문소설을 읽은 소회를 남겼다는 사실도 흥미롭거니와 그 감상이 제법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독자가 소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된다. 김이양은 노년에 긴 밤을 지새우기 위해 국문소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지루한 밤에 시간을 보내기론 국문소설(諺讀稗說)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런 것들은 흥미진진하여 마치 갖가지 맛있는 음식을 상에 차려놓아 사람의 구미를 돋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였다.¹⁷⁾

김이양 역시 소설을 소일거리로 치부하고 있으니, 전대의 독서기와 별반 차이를 느낄 수 없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기록의 저자들이 자신의 소설 읽기가 한낱 소일에 불과함을 굳이 드러내지 않으려 했음을, 대신 자신의 공부와 하층의 교화를 앞세웠음을 상기해보자. 이와 달리 김이양이 재미 자체를 전면에서 논하고 있다는 점은 큰 변화다. 그리고 이를 갖가지 맛있는 음식에 비유한 것 또한 탁월한 감상이라 하겠다. 국문소설이 펼쳐보이는 다양한 인물군상과 사건이 지닌 흡입력을 여러가지 음식을 먹을 때의 다채로운 감각과 연결하여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김이양은 소설 읽는 사람을 불러 당시 유행하던 작품 몇 편을 듣는다.

대개 그 일은 낭군과 소녀의 일이고, 그 시대는 한, 당, 송, 명이며, 그 뜻은 선한 것을 좋아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는 것이다. 어진 남자와 착한 여자는 비록 구렁텅이에 빠지고 험악한 산과 위험한 물에 출몰해도 끝내는 깨끗이 벗어나 빛을 보고 갖은

17) 김이양, 「언패설」.

복을 누리게 되고, 간사한 남자와 투기하는 부인은 음모를 짜고 악행을 꾸미되 교묘하게 모습을 숨겨서 귀신이나 사람의 그림자를 쓴다는 불여우도 헤아리기 어렵지만, 끝내는 어긋나고 탄로되어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는 천리의 바름으로 선한 이는 복을 받고 나쁜 이는 화를 당하는 것이 단청의 색과 같이 분명하다.

그 내용은 대체로 남녀를 등장시켜 복선화음(福善禍淫)의 이치를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소설이 교훈을 전파하는 수단이 된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그런데 비록 교훈을 말하고 있지만, 김이양의 독서기가 전 시기와 달라지는 지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는 선과 악의 형상을 곡진하게 묘사한다. 즉 선악은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윤리개념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으로 다가온다.

효자와 숙녀가 고통을 당하고 정처 없이 떠돌기도 하며 위기를 당해 거의 죽게 될 지경이면, 목이 메어 발을 구르며 놀라 안타까워마지 않다. 마침내 악행을 저질러 온 자가 형벌을 받고 아름다운 마음을 품은 자가 허물을 벗게 된다. 음양이 그 자리에서 판별이 되고 화복이 분명히 갈라져 나도 모르게 박수를 치며 쾌재를 부르고 상쾌하게 답답하던 마음이 풀리고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은 것이다.

독자가 소설을 읽으면서 즐거움을 느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묘사된 악의 사례에 긴장했다가 효자와 숙녀로 대변되는 통속적이고 보편적인 선의 승리에 안도했음을 의미한다. 독자는 세계 질서가 무너질 뻔한 위기와 위기의 극복을 서사를 통해 경험한다. 이때 복선화음은 교조적으로 주어진 가르침이 아니라 독자가 스스로 발견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읽기 경험의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소설 속에서 주인공은 승리했지만, 악의 존재가 남긴 강렬한 자극은 독자의 뇌리에 지속적으로 박혀있게 된다. 소설이 악을 팝진하게 묘사할수록 그 자극은 더욱 강해질 것이며 독자는 서사 내에서 세계 질서의 균열을 경험하게 된다. 물론 소설 읽기가 끝나면 질서와 조화는 회복되지만, 반복되는 경험은 독자로 하여금 불안과 공포를 내면화하게 만든다. 악이 강렬한 만큼 선의 승리 또한 강한 안도감을 불러일으키며, 이것이 소설 읽기를 통해 교화가 이뤄지는 기제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수면 아래 도사리고 있는 불안의 징후 또한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2) 여성의 소설 읽기

17세기 말 김만중이 지은 <사씨남정기>는 일정 정도 여성 독자를 염두에 둔 작품이었다. 김춘택이 <사씨남정기>의 한글 창작을 두고 “여향의 부녀자들도 모두 암송하고 읽고 느끼게 하기 위한[蓋欲使閭巷婦女，皆得以諷誦觀感]”¹⁸⁾ 것이라 말

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사씨남정기>뿐만 아니라, 이 시기 여성 교양적 성격을 지닌 이른바 ‘규방소설’이 창작되기 시작하였다.¹⁹⁾

18세기 이후 여성은 국문장편소설의 주 독자층으로 부상한다. 국문장편소설은 주로 가문의 번영과 창달을 서사의 지향으로 삼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부인들의 역할이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 기존의 연구는 국문장편소설의 독자를 상층의 여성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왔음을 밝힌 바 있다.²⁰⁾

뿐만 아니라 17세기 말~18세기 들어 여성은 소설의 창작과 유통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문장편소설의 시작점에 놓여있는 <소현성록> 연작의 경우, 옥소 권섭(權燮)의 어머니 용인이시가 이를 필사해 자손들에게 물려주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며²¹⁾ 180권이라는 방대한 분량을 지닌 <완월회맹연> 또한 전주 이씨와 그 주변 여성들의 공동 창작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점²²⁾ 등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또한 72종 1500여책에 이르는 창경궁 낙선재본 소설의 존재는 궁중에서의 소설 향유 정황을 짐작하게 한다. 이처럼 국문장편소설은 단순한 읽을거리를 넘어 상층 여성들의 지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한 수단으로까지 자리잡았던 것이다. 다음 인용은 그 독서의 풍조를 잘 보여준다.

우리나라 풍속은 본디 부녀자들에게 학문을 배우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돌아가신 어머니께서도 문자를 배우지 않으셨다. 그러나 총명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시어 어릴 때부터 옛날 사적 보기를 좋아하셨으므로, 중국의 상고시대부터 명나라까지와 우리나라의 고려말부터 최근까지 국가의 치란과 사람의 현사에 대해서 모두 환히 아셨다. 그리고 한글소설에 대해서도 무려 수백 종을 한번 보시기만 하면 모두 기억하시어 돌아가실 때까지 잊지 않으셨다. 그러나 만년에 늘 말씀하시기를, “소설이라는 것은 대개 거짓으로 꾸며내어 이야기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진실한 것은 전혀 없고,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사악한 데 빠지게 할 수 있으니 보아서 안 된다.”라고 하셨다.²³⁾

18) 『북헌집』권16, 「산고(散藁)」.

19) 임형택, 「17세기 규방소설의 성립과 창선감의록」, 『동방학지』57, 연세대 국학연구원, 1988.

20) 국문장편소설과 여성독자를 연결하여 논의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장시광, 「성현공숙렬기에 나타난 부부갈등의 성격과 여성독자」, 『동양고전연구』27, 동양고전학회, 2007; 정선희, 「조선후기 여성들의 말과 글 그리고 자기표현 : 국문장편 고전소설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3; 「장편고전소설에서 여성 보조인물의 추이와 그 의미 -여성 독자층, 서사 전략과 관련하여」, 『고소설연구』40, 한국고소설학회, 2015; 탁원정, 「국문장편소설과 여성지식, 여성지식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3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7.

21)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4.

22) 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7.

안정복은 『순암집』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한글소설을 읽었던 것을 회상한다. 그 수가 무려 수백 권에 이를 뿐 아니라 내용까지 모두 기억했다는 언급은, 그것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행장에 쓸 법한 수사라 할지라도 실로 엄청난 양이라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자신은 수백 권의 소설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는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를 보지 말라 경계했다는 사실이다. 사대부 남성인 자식에게 소설은 여전히 드러내놓고 가까이하기엔 먼 존재였던 것일까? 여기에는 여성의 소설 열독을 바라보는 이중적 심리가 투영되어 있다.

가만히 살펴건대 근세에 규합에서 능사로 삼아 다투는 것이란 오직 패설을 숭상하는 일이다. 날마다 달마다 증가하여 그 종류가 천이나 백으로 헤아리게 되었다. 께가(儉家)에서는 이를 깨끗이 필사해서 무릇 빌려보는 자가 있으면 곧 그 값을 받아서 이익을 얻는다. 부녀들이 식견이 없어 혹은 비녀나 팔찌를 팔고 혹은 동전을 빗내어서로 빌려다가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자 한다. <중략> 부인은 홀로 능히 습속이 옮겨가는 바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²⁴⁾

채제공은 여성들이 소설 읽기에 침혹했던 당대의 분위기를 위와 같이 묘사한다. 이 시기 소설의 종류는 수백, 수천 권에 이르렀고 부인들은 패물을 팔고 빚을 내면서까지 소설을 빌려 보았다는 것인데, 이쯤 되면 가히 소설 중독이라 부를 만하다. 그런데 채제공은 이러한 세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자신의 부인은 그러한 시속의 풍조를 따르지 않았다는 언급까지 굳이 덧붙인다. 이밖에도 여성 생활사에 대한 기록에서 여공을 버려두고 언문고담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는 빈번하게 발견된다. 과연 이 시기 여성의 소설 읽기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걸까? 다음 기록을 보자.

몇 년 전에 어느 상놈이 10여세부터 눈썹을 그리고 분을 바르며, 여인들의 언서체를 익혀서 패설을 잘 읽었는데 목소리가 마치 여자 같았다. 홀연 간 곳을 몰랐는데 여장을 하고는 사대부의 집에 드나들며 진맥할 줄 안다고 하거나 방물장사를 한다고 하면서 패설을 읽어주기도 하고, 또는 여승들과 결탁하여 불공과 기도를 하기도 하였다. 양반집 부녀들이 그를 한번 보면 좋아하지 않을 수 없어서 간혹 같이 자면서 음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판서 장봉익이 이를 알고는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죽였다. 만약 입을 열면 난처한 일이 생길까 걱정했기 때문이다. 재상가에서 욕을 본 것은 오로지 호사를 누리며 할 일이 없었던 까닭이다.²⁵⁾

23) 『순암집』권25, 「선비공인이씨행장」.

24) 「女四書 序」, 『번암집』권33.

25) 구수훈, 『이순록』下, 「선독패설」.

인용문은 『이순록』의 한 구절이다. 앞서 김이양의 <언패설>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이 당시 시정에는 소설을 읽어주는 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다. 이른바 직업적 이야기꾼의 등장인데, 이들의 존재는 다른 한문단편 서사를 통해서도 증명되는 바다. 그런데 인용문의 이야기꾼은 이야기만 읽은 것이 아니다. 주로 양반집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맥을 한다, 불공을 드린다, 그러다 음행을 저지르기까지 했다. 재상가의 부녀자들이 이러한 욕을 당하게 된 것을 “호사를 누리며 할 일이 없었던 까닭”이라 분석한 기록자의 시선은 싸늘하다. 남아도는 에너지가 엉뚱한 방향으로 분출된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소설 읽기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모든 여성이 소설을 읽으며 일탈했던 것은 아니지만, 소설 독자가 일부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해방구의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는 바로 전시기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이 보여준 교훈적 성격이나 국문 장편소설에서 고난받는 현숙한 부인에게 자신을 투영했던 상층의 여성 독자들의 심미적 체험과는 다른 방향에서 소설이 향유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 여성들에게 소설은 한편으로는 지식과 교양을 습득할 수 있는 수단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소설 속 주인공의 모범적 삶의 자세를 본받고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쾌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일탈과 해방의 입문처로 작용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마지막의 경우이다. 비록 몇몇 부녀자들의 해프닝에 불과하지만, 작은 일탈의 경험이 기존 질서에 균열을 일으킬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3) 하층의 소설 읽기

소설이 18세기 이후 서울을 비롯한 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모여들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오락과 유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소설 또한 이러한 수요에 발맞추어 하나의 상업적 도시문화로 자리잡게 되었는데, 방각본의 출판, 세책의 활성화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²⁶⁾ 유통의 방식이 달라지면서 소설의 향유층은 하층으로 확산되었다. 이들 중 대다수는 낭독의 형태로 소설을 향유했을 것이라 짐작된다.

전기수는 동문 밖에 살았다. 입으로 패설을 외는데, <속향전>, <소대성전>, <심청전>, <설인귀전> 등과 같은 전기였다. 매월 초하룻날은 첫 번째 다리 아래, 둘째 날은 두 번째 다리 아래에, 셋째 날은 이현에, 넷째 날은 교동 입구에, 다섯째 날은 대사동 입구에, 여섯째 날은 종루 앞에 자리를 잡았으며, 일곱째 날부터는 거슬러 올라

26) 김준형, 「18세기 도시의 발달과 소설 향유의 면모」, 『고소설연구』26, 한국고소설학회, 2008.

가는데, 이를 따라 올라갔다가는 내려오고, 내려왔다가는 다시 올라가고 하여 그 달을 마치며, 달이 바뀌어도 역시 그와 같이 했다. 책을 잘 읽었던 까닭에 사람들이 그 곁에 죽 둘러서서 보는데 대저 가장 긴절해서 들어볼 만한 구절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입을 다물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하회를 듣고자 해서 다투어 돈을 던지는데, 이를 일컬어 요전법이라 한다.²⁷⁾

위의 인용문은 우리에게 달라진 소설 읽기의 풍경을 보여준다. 전기수라는 직업적 소설 낭독꾼이 존재했다는 것은 소설이 상업성과 결합했음을 의미하며, 이들이 주로 읽었던 소설 레퍼토리는 통속적 영웅소설, 판소리계 소설 등이었다. 하층의 인물인 영웅이 주어진 고난을 극복하고 영광을 성취하는 서사는 똑같이 하층의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기 적합했다. 또한 판소리계 소설이 보여주는 충, 효, 열과 같은 보편도덕의 구현과 신분상승, 재물 획득의 결말 또한 욕망의 대리충족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 시기 소설 읽기는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니라 욕망의 일시적 충족을 통한 정신적 소도의 기능을 했던 것이다. 전기수의 실감나는 책 읽기 실력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작품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던 것은 물론이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지점은 이 시기 소설이 개방된 공간에서 집단적으로 향유되었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묵독과 달리, 열린 공간에서의 소설 읽기는 집단의 정서를 형성하기 마련이었고 이는 혼자 읽기에 비해 훨씬 더 큰 파장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옛날에 한 남자가 종로거리의 담배 가게에서 어떤 사람이 패사 읽는 것을 듣다가, 영웅이 가장 실의하는 대목에 이르러서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입에 거품을 물고는 담뱃잎 썬는 칼로 패사를 읽던 사람을 찌르니, 바로 죽었다. 종종 이처럼 맹랑하게 죽는 일이 있으니 가소롭다.

<은애전> 말미에는 담배가게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에 대한 짙막한 기록이 실려 있다. 이때 읽었던 작품은 <임장군전>으로, 임경업이 간신 김자점에게 모함을 당하여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이 이르자, 그만 흥분하여 옆에 놓인 담배 썬는 칼을 들어 책 읽는 사람을 찌러 죽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머리속에는 어떤 생각의 회로가 돌아갔던 것일까? 그는 소설 읽는 사람을 바로 그 간신이라 생각했고, 자신을 간신을 처단하는 영웅에 동일시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허무한 죽음으로 이어졌지만, 적어도 칼을 휘두르던 그때만큼은 스스로 선의 대변자로 자처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것이다.

27) 조수삼, 『추재집』.

이처럼 하층의 소설 읽기는 동일시와 욕망의 투사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는 그들이 즐겨 읽었던 영웅소설이나 판소리계 소설의 내용이 지니는 통속성이나 보수성과는 별개로, 독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의미작용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을 정의의 편에 동일시하며 소설을 읽었던,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반복적으로 축적되면서 개인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로 변모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18세기 소설 읽기의 양상을 전 시대와 비교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설의 향유층이 확대되었다. 한문소설에서 한글소설로 소설의 주 표기문자가 변화하면서, 여성과 하층의 남성들이 소설의 주요 독자층으로 부상하게 된다. 둘째, 향유 공간이 다양화되었다. 개인이 밀실에서 하는 묵독의 형태가 아니라 개방된 공간에서 집단적 독서 체험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셋째, 소설 읽기의 지향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교화, 교양, 소일 일변도에서 재미를 긍정하고 욕망을 투영하며 일탈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다. 소설 자체에 대한 비평소설이 등장하는가 하면, 한 작품에 대해 다양한 서사를 지닌 이본의 산출 또한 소설에 독자의 다양한 욕망을 투영하고 있음을 증명해준다. 이처럼 18세기 소설은 점차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었으며, 소설에는 다양한 삶의 국면이 담기고 있었다. 현실에서 경험하는 삶의 질곡과 욕망은 소설 읽기를 통해 위로받거나 확장되었으며, 때때로 독자는 소설을 통해 욕망의 실현을 꿈꾸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소설 읽기의 경험은 중심의 해체, 지배질서로부터의 이탈을 견인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4. 결론을 대신하여- 조선후기 소설 독자와 독서문화의 의미

이 글은 그동안 시기별, 갈래별, 계층별로 나뉘어 파편적으로 진행되었던 소설 독서에 관한 자료를 종합하고 관점을 전환하여 18세기 소설 독자와 독서문화가 지니는 새로운 의미를 도출해보려 한 것이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각 개인들이 홀로 텍스트를 대면하여 책 속의 세계를 해석하고 전유하는 주관적이며 정신적인 행위만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 사회적 행위이다.²⁸⁾ 독자는 책을 선택하고 읽어가는 해석의 과정을 거쳐 책을 읽은 뒤 책 읽기의 영향에 의해 자신의 삶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은 작가의 창작의도나 텍스트가 담지한 본래적 의미와는 무관하게, 독자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흘러가기 마련이다. 그리고 사회는 그러한 개인의 집합으로 재

28)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14.

구성된다. 알아차리지 못하는 겨울에 미세하게, 그러나 끊임없이 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독자는 “문학작품을 읽는 사회적 행위를 통해 의미의 실현이나 재창출에 기여하는 또 다른 주체”이다.

18세기 한국 고소설의 독자와 독서문화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중심과 지배의 논리는 오랫동안 소설을 허황된 이야기, 기껏해야 소일거리에 불과하거나 교훈과 교양의 전달하는 수단 정도로 규정해왔다. 소설은 천리(天理)의 완비함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부분적 모방, 복제를 통해 인정세태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18세기를 기점으로 하여 그 지배의 논리에 포섭되지 않는 다양한 목소리가 발견되기 시작한다. 물론 그 배경에는 소설 자체가 다양하게 분화되기 시작한 정황이 있지만, 동시에 독자의 내면에서 소설 속 주인공에 대한 동일시와 내면화, 소설을 통한 꿈꾸기와 일탈과 같은 작용이 일어나고 있었음에 주목해야 한다. 비록 소음의 수준이지만, 그 다양한 목소리는 분명 기존 질서에 균열을 불러일으킬 힘을 예비하고 있었다.

이덕무는 ‘세정석담(歲精惜譚)’에서 소설에 대한 매우 체계적인 비판을 펼치고 있다. 요지는 소설은 한번 보면 헤어날 수 없어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인심을 감발하여 도적의 무리를 긍정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비록 소설을 부정하기 위해 쓴 것이지만,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소설이 지닌 힘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유만주가 국문으로 된 <사씨남정기>를 읽으며 “기쁨과 슬픔, 고통과 즐거움, 추이와 변천, 흥망성쇠”를 모두 느끼고 “진실인 듯하나 또한 거짓이고, 거짓인 듯하나 또한 진실이라.”고 적었던 것처럼, 소설은 허구와 진실 그 중간 어딘가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18세기 소설과 독자들이 축적한 변화의 동력이 19세기로 넘어가며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삼으려고 한다.

18세기 중국의 보고서 《紅樓夢》

-미래를 향한 간절한 외침-

고민희(한림대 중국학과)

1. 서 언

인류 역사상 18세기는 대단히 중요하고도 위대한 시기였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18세기는 자부의 세기”¹⁾라고도 일컬어진다.

서양에서 이 시기는 平等·自由·民主·人權 등의 개념이 확립되기 시작하면서 資本主義 사회체제로의 移行을 위한 기초가 마련되었던 시기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중국은 ‘康雍乾 盛世’라 일컬어지는 淸朝의 전성기를 맞으면서 封建專制체제가 고도로 강화됨에 따라 학술계와 사상계는 극도로 침체되었던 시기였다. 18세기의 동서양을 비교해 볼 때, 18세기를 거치면서 서양은 근대민주사회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은 반면, 찬란한 역사와 위대한 문명을 지닌 중국은 오히려 근대사회로의 移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뒷걸음질 치는 형국이었다.²⁾

《紅樓夢》은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창작되었다. 《紅樓夢》의 작가 曹雪芹(1715-1763)은 18세기의 10년대에서 60년대에 걸쳐 살았었다.³⁾ 그는 18세기의 40년대 중기부터 《紅樓夢》을 쓰기 시작하여 대략 10년에 걸쳐 작품을 완성하였다.

중국문학사상 曹雪芹의 《紅樓夢》만큼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수많은 독자들의 愛好를 받음과 동시에 여러 학자들의 연구대상이 되었던 작품도 드물 것이다. 연

1) 한국18세기학회 엮음, 《위대한 백년 18세기 - 동서문화 비교 살롱토크》(서울: 태학사, 2007), 서문 1쪽.

2) 18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西方 민주사상의 발전과 중국 진보사상의 침체 혹은 퇴조에 관해서는 郝俠君·毛磊·石光榮 主編의 《中西500年比較》(北京:中國工人出版社, 1996), 186-202쪽 참조.

3) 曹雪芹대에는 집안이 몰락한 뒤였으므로 후에 남겨진 史料도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의 生卒年代조차 확실치 않다. 따라서 脂評이나 친우들의 詩句등 傍證資料에 의거해서 그의 生卒年代를 추정할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인민문학출판사에서 1996년에 출판한 《紅樓夢》의 ‘前言’을 쓴 馮其庸선생의 견해를 따랐다.

구 영역에서 보자면 《紅樓夢》은 문학연구자들에게는 물론이요 역사연구자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것은 《紅樓夢》이 康熙·雍正·乾隆시기를 포괄하면서 18세기 중엽 중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 등 제 방면에 걸친 당시의 사회상을 광범위하고도 여실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한 측면 때문에 《紅樓夢》은 “봉건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야 할 全面的인 教科書”⁴⁾라고 평가되기도 하고, “中國封建社會의 百科全書”⁵⁾라고 칭송되기도 하며, “傳統社會 變혁시기의 社會·經濟·文化의 大百科全書”⁶⁾라고 이야기되기도 하고, “封建社會의 거울”⁷⁾이라고 언급되기도 한다. 또한 《紅樓夢》의 용량은 대단히 커서 “古今을 包容하고 萬狀을 總括”⁸⁾할 정도라고까지 평가하는 이가 있기도 하다. 이렇게 볼 때 《紅樓夢》은 가히 18세기 중국에 대한 충실한 보고서라고 일컬어질 만하다.

《紅樓夢》에 묘사된 사회현상들은 18세기 작자의 세계관을 통해 굴절된 사회현상이며, 따라서 당시의 역사적 진실의 전체적 양상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소설안의 사회 현상들은 비록 작자의 의식에 의해 굴절된 것이기는 해도 當代 사회의 일부 중요한 면모를 개괄할뿐더러 集中的으로 形象化함으로써 藝術的 眞實性에 의해 突出된 歷史的 象徵性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소설이 《紅樓夢》처럼 現實主義 작품으로 성공한 것일수록 그 象徵性이 갖는 진실성과 예술적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있다.⁹⁾

사회학에서와 같이 문학 역시 무엇보다도 우선 인간의 사회적 세계와 그에 대한 인간의 적응, 그리고 그러한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인간의 욕구 등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예술로서의 문학은 사회적 삶의 표피를 뚫고 들어가 사람들이 사회에 대해 느끼는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단순한 묘사나 객관적 분석을 넘어선다. 리처드 호가트(Richard Hoggatt)는 “만일 충분한 문학적 증거가 없다면 사회를 연구하려는 사람들이 사회를 충분히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¹⁰⁾라고 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문학은 “인간의 열망과 소망 그리고 포부 같은 것을 묘사하기 때문에, 아마도 사회적 힘들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측정하는 가장 효과적이며 사회학적인 지표들 중의 하나”¹¹⁾이리라 여겨진다.

4) 霍國苓·霍紀平, 《紅樓解夢》(北京: 北京燕山出版社, 1989), 1쪽.

5) 張錦池·鄒進先 編, 《中外學者論紅樓》(哈爾濱: 北方文藝出版社, 1989), 852쪽.

6) 譚立剛, 《紅樓夢社經面面觀》(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91), 471쪽.

7) 王志良, 《紅樓夢評論選·下》(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8), 1281쪽.

8) 楊光漢, <論《紅樓夢》的歷史容量>, 《紅樓夢學刊》一九八四年 第二輯, 27쪽.

9) 曹秉漢, <紅樓夢의 社會史的 分析>, 《釜山史學》第11輯(釜山: 釜山史學會, 1986), 93쪽.

10) 앨런 스윈지우드 著·鄭惠善 譯, 《文學의 社會學》(서울: 한길사, 1984), 10-11쪽.

11) 위의 책, 15-16쪽.

문학 중에서도 특히 小説은 시가나 희곡과 같은 장르에 비해 운율이나 무대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역사와 현실, 그리고 인생에 대해 훨씬 광범위하고도 逼真한 묘사가 가능하며, 바로 《紅樓夢》과 같은 소설이 18세기 중엽의 중국을 더 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고도 찡찡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은 이 작품을 통해서 史書 등의 서적에서 보다 훨씬 상세하고도 생동적으로 당시의 사회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紅樓夢》에는 18세기 중엽 중국의 외형적 면모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묘사되고 있는 외형적 면모 이면에 내재된 각성된 지식인으로서의 작자 조설근의 정신세계 또한 투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와 의미가 더욱 돋보인다.

《紅樓夢》에 반영되어 있는 당시 중국의 외형적 면모는 賈府라는 귀족대가정을 중심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賈府와 상호 긴밀한 姻戚관계로 묘사되고 있는 賈·史·王·薛이라는 4대 가문은 康熙·雍正·乾隆시기의 봉건귀족집단의 典型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¹²⁾ 《紅樓夢》에는 賈府를 구심점으로 하여 위로는 皇室, 옆으로는 官僚·大地主·皇商 그리고 아래로는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망라되어 있으므로, 이 작품은 귀족대가정이라는 협소한 범위를 뛰어 넘어, 보다 광범위한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광범위한 사회현실에 대한 외형적 묘사는 작자의 啓蒙的·進步的 思想이 밑바탕 되어 있음으로 해서 객관적 현상묘사에 국한되지 않는 그 어떤 생명력을 지닐 수 있다고 여겨진다. 본고에서는 18세기 중국의 보고서라고 말할 수 있는 《紅樓夢》에 내재된 그와 같은 생명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탐구해 보고자 한다. 즉 작자의 계몽적·진보적 사상이 밑바탕 되어 있는 18세기 문학으로서의 《紅樓夢》에 관심을 기울여 그 가치와 의미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18세기는 ‘계몽의 시대’라고 이야기되고 있으며, 그밖에도 ‘이성의 시대’·‘절대주의 시대’·‘진보의 시대’·‘문명의 시대’·‘철학의 시대’·‘인간성의 시대’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¹³⁾ 이와 같은 다양한 정의 가운데 특히 ‘계몽’·‘이성’·‘진보’·‘인간성’이라는 키워드는 18세기 문학을 탐구함에 있어서 각별히 주의를 끈다.

전 세계적으로 18세기 문학은 ‘계몽’·‘이성’·‘진보’·‘인간성’을 키워드로 하는 ‘계몽문학’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실천적·전투적 성격이 강하다”¹⁴⁾고 특징 지워져 있고, 구체적으로는 “비합리적인 일체의 현상에 대해 격렬한 비판을 가하는 것

12) 劉夢溪, 《紅樓夢新論》(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2), 44쪽.

13) 한국18세기학회 엮음, 《위대한 백년 18세기 - 동서문화 비교 살롱토크》, 115-116쪽 참조.

14) 위의 책, 195쪽.

이 일차적인 특성”¹⁵⁾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같은 18세기 문학의 특성은 조설근의 《紅樓夢》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중국의 18세기가 서양의 18세기와는 다른 것처럼 문학에 있어서도 당시 ‘계몽문학’의 출현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오로지 조설근의 《紅樓夢》만이 “비합리적인 일체의 현상”에 대해 숨죽였으나 당시로서는 “격렬한” 비판을 가한 전형적인 “계몽문학”으로 우뚝 솟아있다. 그리고 그러한 고립은 18세기 뿐 만 아니라 청 왕조가 몰락한 20세기 초까지도 외롭게 지속되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紅樓夢》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紅樓夢》의 작자가 살았던 중국의 18세기는 어떠한 시대였는가?’, ‘《紅樓夢》의 작자는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자 하였는가?’, ‘《紅樓夢》은 왜 중국의 고전, 세계의 고전이라고 일컬어지는가?’라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해보고자 한다.

2. 《紅樓夢》의 작자가 살았던 중국의 18세기는 어떠한 시대였는가?

2.1 작자 曹雪芹

《紅樓夢》의 작자 曹雪芹의 본명은 曹霏이며 字는 芹圃이고, 號는 雪芹·芹溪居士·夢阮이다. 《紅樓夢》의 작자 曹雪芹은 康熙 54년(1715년)에 南京에서 출생하여 雍正 皇朝 13년을 거치고 乾隆 28년(1763년) 北京의 西郊에서 48세의 나이로 일생을 마친 듯하다. 그는 雍正 때 성장했고 乾隆시기에 창작에 임했으므로 《紅樓夢》이 반영하고 있는 시기는 康熙·雍正·乾隆의 세 皇朝를 모두 포괄하면서도 乾隆시기가 위주가 된다

조설근은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던 인물로, 말년에는 집안이 몰락하여 곤궁한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였으므로 그에 대해 남아있는 기록이 거의 없다. 그의 生卒년대도 확실치 않으며 字나 號 역시 단정할 수 없고, 심지어 과연 《紅樓夢》의 작자가 맞는지에 대해서조차 아직까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비록 확실한 기록이 없다 할지라도 《紅樓夢》 제1회에 조설근이라는 이름 석 자가 분명히 쓰여 있을 뿐만 아니라, 생전의 조설근과 대단히 가깝게 지냈던 인물들의 詩나 評語 등의 근거를 통해서 그가 《紅樓夢》의 작자라는 사실은 이미 의심의 여지없이 공인된 사실이다.

다만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紅樓夢》 제1회에서 조설근은 작자가 아니라

15) 위와 같음.

編者로만 언급되어 있다는 점이다.¹⁶⁾ 그러나 이는 당시의 삼엄했던 전제정치 하에서 문자옥의 화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보호 장치로 이해되고 있으며, 조설근의 측근에서 《紅樓夢》의 창작과정을 지켜보고, 필사본으로 베껴 읽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까지 지켜 본 親友들은 하나같이 조설근이 《紅樓夢》의 작자임을 증언하고 있다.

조설근의 조상은 청초부터 상당한 권세를 누렸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록도 많은 편이다. 조설근의 선조는 漢人이었으나 대대로 滿族文化圈에서 생활하였으므로 조설근은 한족과 만족의 특색을 두루 지닌 인물이다. 조설근의 조상은 동북지방 遼陽에 籍을 두었던 漢人이었지만¹⁷⁾, 명말에 滿洲八旗에 예속되어 대대로 청대 황실의 奴僕의 신분으로 살았다. 《八旗滿洲氏族通譜》와 《五慶堂曹氏宗譜》의 관련 기록에 따르면 조설근의 선조는 曹世選(錫遠이라고도 함)으로부터 滿洲包衣가 되었다고 한다.¹⁸⁾

조설근의 家世를 살피기 위해서는 八旗制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八旗制는 이전의 중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만주족의 독창적인 제도로써, 일련의 군사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기능을 결합시킨 복합 기구였고 30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변화·발전한 제도였다. 마크 C. 엘리엇은 만주족이 정체성을 유지하고 소수의 지배민족으로 다수의 피지배민족을 통치할 수 있었던 기제를 八旗에서 찾고 있다. 그는 만주족의 정체성은 17세기 초 팔기제의 창설과 함께 등장했으며, 그 정체성이 18세기의 엄청난 문화변용의 파고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팔기제라는 중요하고 지속성이 강한 만주식 제도에 의해 표현되고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¹⁹⁾

16) 曹雪芹·高鶚著, 中國藝術研究院紅樓夢研究所校注, 《紅樓夢》(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6), 第一回, 7쪽.

17) 馮其庸·李廣伯, 《紅樓夢概論》(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2), 3쪽.

18) 曹世選은 明 天啓元年(後金 天命六年, 1621), 누르하치가 군대를 이끌고 沈陽·遼陽 및 遼河 以東 70여성을 공격하여 점령하였을 때, 후금군대에게 포로로 잡혀 滿洲包衣가 되었다. 앞의 책, 4쪽. 包衣는 대단히 복잡한 집단이므로 이해가 쉽지 않다. 우선 명칭부터가 혼란을 야기시킨다. 包衣라는 명칭은 '집에 있는 자'란 뜻의 만주어 '보오이(booi)'를 중국어로 음차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家奴'의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포의는 명목 상으로는 노예였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권력을 갖기도 하고, 심지어 황제의 측근이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중국어로 '奴隸'나 '奴僕'으로 칭하지 않고 包衣라는 특수한 용어로 지칭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노예의 개념과는 상당히 다른 만족 고유의 특수한 개념이다. 만주포의에 관한 자세한 것은 마크 C. 엘리엇 지음, 이훈·김선민 옮김, 《만주족의 청제국》(서울: 푸른역사, 2009), 145-148쪽 참조.

19) 위의 책, 83쪽. 일반적으로 팔기의 기원은 여진족이 아바라고 불렀던 대규모의 사냥을 수행하는데 사용되었던 방법에서 찾을 수 있다. 대규모의 수렵이 끝난 후 사냥조직인 니루(만주어로 화살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명칭)가 영구적 군대조직인 니루(한자로 牛錄으로 전사)가 되고, 니루가 모여서 대부대인 旗가 되었다. 1615년 누르하치는 휘하의 부족을 대규모 군사조직인 八旗로 편성하여 지휘체계를 확립했다. 그 가운데 4기는 종전 4개 니

八旗는 민족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외에도 上三旗와 下五旗로 구분된다. 上三旗는 正黃旗·鑲黃旗·正白旗로, 황제의 개인적인 소유이자 기인의 수도 가장 많고 자원도 가장 많았다. 누르하치의 군대에게 포로로 잡혔던 조설근의 선조 曹世選은 正白旗에 소속된 包衣였다.

조설근의 집안이 滿洲包衣로서 출세하게 된 것은 조설근의 고조부인 曹振彦으로부터 비롯되었다. 曹振彦은 도르곤의 家臣으로 예속되어, 順治 원년(1644) 청군이 入關했을 때 도르곤을 따라 入關하여 북경에 이르게 된다. 도르곤이 죽자, 이때부터 上三旗는 황제 직속으로 귀속되었으며 조진언 일가도 이에 따라 內務府 正白旗에 속하게 되었다. 內務府는 궁정사무를 맡아보면서 직접 황제와 그 가족을 위해 일하는 기구였으므로, 조씨 일가는 이때부터 직접 황제를 위해 일하게 되었다. 그들은 황제의 노복이었으나 황제의 측근이었고 신임을 받았으므로 이후 권력과 지위를 지니게 되었다.

조진언의 맏아들 曹璽와 둘째 아들 曹爾正은 모두 내무부에 봉직했는데, 특히 曹璽는 順治帝의 侍衛였고 그의 처 孫씨는 강희제 어린 시절의 保姆였다. 손씨가 강희황제의 보모였다는 사실은 조씨 집안과 황실의 관계가 매우 돈독하였음을 의미한다. 조설근의 조부인 曹寅은 모친이 강희제의 유모였기 때문에 강희제와 함께 자라면서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이는 조씨 가문의 흥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內務部 正白旗 包衣였던 조씨 집안은 曹璽가 江寧織造官에 임명된 이래(康熙二年, 1663), 曹寅·曹顥·曹頌에 이르기까지 祖孫 4대에 걸쳐 60여 년간 강녕직조직에 있었으며, 曹寅에 이르러 집안이 가장 번창했다. 강희제가 여섯 차례에 걸쳐 南巡했을 때, 네 차례나 曹寅이 재직하고 있던 강녕직조서를 行宮으로 삼았던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²⁰⁾ 이렇듯 지위와 권력을 지닌 전형적 포의였던 曹寅에 대해 유명한 사학자 조나단 스펜서는 전문적인 연구서를 쓰기도 하였다.²¹⁾

그러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조씨 집안은 강희제의 죽음과 함께 몰락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강희제가 죽고 옹정제가 즉위하자, 조씨 집안은 더 이상 황제의 신임을 받지 못하고 그동안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결국 옹정5년(1727)에 曹頌은 파직되고 가산도 몰수당하게 된다.

원래 북경에 거주했던 正白旗 包衣 신분인 조씨 집안은 강녕직조직에서 파직되자 八旗制의 규정에 따라 북경으로 되돌아가야 했다. 이러한 이유로 조설근은 호

루의 4색을 그대로 채택하여 正紅旗·正黃旗·正白旗·正藍旗라 이름 하였고, 나머지 4기는 黃色旗·白色旗·藍色旗에 홍색의 테를 둘러 鑲黃旗·鑲白旗·鑲藍旗로, 홍기에는 백색의 테를 둘러 鑲紅旗로 불렀다.

20) 曹氏가문의 祖孫 四대가 강녕직조직에 재직했던 상황과 康熙南巡시 네 차례나 御駕를 모셨던 상황에 대해서는 馮其庸·李廣伯, 《紅樓夢概論》, 7-21쪽 참조.

21) 마크 C. 엘리엇 지음, 이훈·김선민 옮김, 《만주족의 청제국》, 147쪽.

화로운 생활을 했던 남경을 떠나 북경으로 이주하게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북경을 떠날 수 없었다. 조씨 집안이 몰락하여 북경으로 이주했을 때, 조설근은 대략 14세였으며 그때부터 4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줄곧 북경 성안과 북경 서북쪽 교외에서 살았다.²²⁾ 《紅樓夢》은 북경교외에서 곤궁하게 살던 시절에 창작되었다.

이상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조설근의 일생은 강녕직조서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생활했던 강남시대, 북경으로 이주하여 다소나마 궁핍한 생활을 면했던 생활을 했던 북경시대, 그리고 말년의 곤궁한 삶에 힘겨워했던 북경교외시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부귀영화를 주렸던 강남시대와 말년의 곤궁한 삶은 극도의 대비를 이루면서 《紅樓夢》의 창작에 직접적인 동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설근이 이와 같이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삶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紅樓夢》은 아마도 창작되지 못했을 것이다. 조설근 개인으로 보자면 불행한 일이겠으나, 문학사적으로 보자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설근이 14세가 될 때까지 남경의 강녕직조서에서 더할 수 없이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던 경험은 조부 曹寅으로부터 물려받은 문학 유산²³⁾이 밑바탕 되면서 《紅樓夢》의 무대인 귀족 대가정의 생활상을 핏진하게 묘사할 수 있게 해주었을 것이며, 호화로웠던 어린 시절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북경에서의 곤궁한 삶은 그에게 삶의 덧없음을 통감하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인생의 덧없음을 간파한 이후의 虛無感과 孤獨感은 《紅樓夢》에서 현실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비판적 현실인식과 함께 미래지향적 희망과 바람으로도 함께 품고 있다는 점에서

22) 북경으로 이주한 이후의 조설근의 삶에 관해서는 朱淡文, 《紅樓夢論源》(南京:江蘇古籍出版社, 2000), 130-153쪽 참조.

23) 조부 曹寅으로부터 형성된 문화적 전통은 조설근으로 하여금 수 천 년 동안 누적되어온 중국의 전통문화를 《紅樓夢》 가운데 풍부하고도 다채롭게 반영할 수 있게 해주었다. 曹寅은 문예방면에 다양한 재능을 지닌 시인 겸 예술가였다. 그는 詩詞曲을 직접 창작하였으며 회화나 서법에도 뛰어났고, 대단한 藏書家이면서 직접 책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雜學에도 흥미가 있어서 당시 전해 내려오던 조리법을 한데 모아 음식 조리에 관한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居常飲膳錄》이라는 책을 편찬하기도 하였다. 《紅樓夢》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설근이 다방면에 걸친 방대한 지식을 갖출 수 있었던 배경가운데 한 단면을 여기서도 엿볼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劉夢溪는 “《紅樓夢》은 전통문화의 結晶으로, 이면에 스며있는 전통문화의 요소는 대단히 풍부하다. 생활을 풍부하게 반영한 점을 놓고 말하자면 봉건사회의 백과전서라고 할 수 있으며, 내용가운데 포함된 문화적 요소를 놓고 말할 것 같으면 중화민족이 보유한 전통문화의 총화라고 말할 만하다. 《紅樓夢》의 내용 가운데는 詩、詞、曲、賦、歌、讚、誄、偈、匾額、對聯、尺牘、謎語、笑話、酒令、說書、百戲、彫刻、泥塑、參禪、測字、占卜、醫藥 및 詩話、文評、畫論、琴理 등을 포괄하는 고전문학·예술·技藝의 각종 형식이 모두 다 갖춰져 있다.”라고 하여, 중국문화와 중국문학의 寶庫로서의 《紅樓夢》의 위상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劉夢溪, <《紅樓夢》與民族文化傳統>, 馬瑞芳、左振坤 主編, <紅樓夢> 奧秘解讀>(長春:吉林文史出版社, 2004), 260쪽.

《紅樓夢》은 오늘날까지도 고전으로 읽히고 있다고 여겨진다.

2.2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면모

2.2.1 정치적·사회적 면모

《紅樓夢》의 작가 조설근은 康熙시기에 출생하여 雍正시기에 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내고 乾隆시기에《紅樓夢》을 창작하였으므로 《紅樓夢》이 반영하고 있는 시기는 康熙·雍正·乾隆의 세 皇朝를 모두 포괄하면서도 乾隆시기가 위주가 된다.

周秦 이래 청 왕조 건립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봉건사회는 2천 여년 동안 계속되었고, 상승·발전·하강·쇠퇴의 과정을 거쳤다. 봉건사회가 지속된 기간이 길고 완만한 것이 중국 역사의 특징인데, 中國史의 시기구분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史學界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周秦 이래 중국은 이미 봉건사회를 형성하였고 漢魏六朝는 발전과 상승시기이며 隋唐에 이르러 頂點에 도달, 宋 이후에는 하락하기 시작해서 明清 특히 淸朝에 이르러 쇠퇴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²⁴⁾

청 왕조가 비록 봉건사회의 쇠퇴기에 해당하지만, 康熙·雍正·乾隆시기는 고도의 중앙집권적 전제통치를 통해 청 왕조의 통치역량이 최고조에 달했던 소위 ‘康乾盛世’였다. 청 왕조는 1644년에 北京에 입성한 후 順治·雍正·康熙와 乾隆에 이르기까지 前後 100여 년 동안 정치적 안정과 함께 경제와 문화면에서 대단한 발전을 이룩하였으니, 동요가 극심했던 明末의 불안한 사회질서를 안정시켰을 뿐만 아니라 후세의 史家들이 칭하는 이른바 盛世的 국면을 맞은 것이다. 國力을 놓고 말하자면 康·乾 시기의 청 왕조는 明朝와 宋朝를 능가하고 唐朝에나 비견될 정도이다.²⁵⁾

청 왕조는 이와 같이 사회적 질서의 안정을 꾀함과 동시에 專制統治를 강화하기 위해 程朱理學을 통치이념으로 받들면서 文化·思想면에서 회유와 탄압의 양면정책을 썼는데, 한편으로는 과거제도를 계속 시행하고 博學鴻詞科를 만들어서 功名利祿을 미끼로 지식인들을 회유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士人들의 結社를 엄격하게 금하였고 문제시되는 서적들을 禁書조치시켰으며, 文字獄을 대대적으로 일으킴으로써 異端思想을 탄압하는 등의 文化專制主義를 시행하였다.

24) 위의 책, 2쪽.

25) 劉夢溪, 《傳統的誤讀》(石家莊:河北教育出版社, 1996), 8-9쪽.

滿淸통치자들이 지식인들을 회유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과거제도는 朱熹의 《四書集注》와 八股文을 채택함으로써 지식인들의 자유로운 사고를 마취시켰다는 측면에서 그 弊害가 극심했다. 당시의 지식인들은 과거에 급제하려면 四書五經 이외의 서적은 보아서는 안 되고, 孔孟程朱 이외의 말은 해서는 안 되며, 더욱이 개인의 관점은 피력할 수조차 없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기타의 사상과 격리된 채 오로지 聖賢의 저작 몇 권만을 읽도록 교육되었다. 그 결과 절대 다수의 지식인들은 지식이 결핍되고 비판능력이 거세된 채 통치자의 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꼭두각시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八股取士의 과거제도는 滿淸왕조의 의도적인 愚民政策이었다고 할 수 있다.

文字獄으로 대표되는 滿淸통치자들의 사상통제는 역사상 보기 드문 것이었다. 청초의 지식인들은 강한 시대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통치자들은 사상적인 면에서 그들을 통제할 필요가 절실했었다.

明末淸初는 중국역사상 사상적으로 대단히 왕성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명청 교체기라는 대동란의 시기에 봉건사회는 모든 면에서 극심한 동요와 파괴의 국면을 맞았고, 이러한 상황은 지식인들의 사상에도 큰 영향을 미쳐 전통에 대한 반발과 함께 새로운 사조가 형성되었다. 이 시기에 진보적 사상가·문인들이 대거 등장 하였으니, 黃宗羲(1610-1695)·顧炎武(1613-1682)·王夫之(1619-1692)·唐甄(1630-1704)·顏元(1635-1704) 등이 그들이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진보적 정치사상을 지녔으므로, 封建宗法制度의 각종 폐단과 봉건제도를 비호하는 程朱理學 등에 맹렬한 공격을 가하였다.²⁶⁾ 黃宗羲·王夫之·唐甄 등은 비록 봉건제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다소나마 백성의 이익을 보호하려 했고, 황제의 특권을 제한하려는 등의 민주적 주장을 분명히 하였으며²⁷⁾, 일부에서는 異族 정권에 반대하는 反淸사상과 明왕조 회복의 주장 등도 팽배하였다.²⁸⁾

이와 같은 상황에서 滿淸통치자들은 고도의 전제정치로 그들을 통제해야만 정권을 공고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文化界와 지식인들에 대해 空前의 대탄압을 시행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文字獄이다.

청초의 文字獄은 康熙初년에 시작되어 雍正·乾隆시기에 高潮에 달했다. 전후 합해서 100여년의 시간동안 수천의 文字獄案이 발생하여 사형에 처해진 이만해도 200여명에 달했으며, 연루되어 각종 형벌에 처해진 이들은 不知其數였다. 文字獄의 주요 대상은 反滿분자와 舊왕조에 연연해하는 지식인들이었다.

청 왕조가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고 사상을 통제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관점을 자유롭게 발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문자옥의 범

26) 蕭一山, 《清代通史(一)》(臺北:商務印書館, 1980), 951-953쪽, 978쪽 참조.

27) 蕭公權, 《中國政治思想史》(臺北:聯經出版事業公司, 1983), 633-659쪽 참조.

28) 蕭一山, 《清代通史(一)》, 892-896쪽 참조.

위가 대단히 광범위하고 연루의 폭이 넓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 어떤 사건이 터지면 당사자가 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요 家屬들이 연루되어 왕왕 일가 수십 명이 참살당하기도 하였으며, 主犯의 친구와 師徒들까지 형을 받았다. 또한 그 범위가 대단히 넓었기 때문에 심지어 글을 새기고 인쇄해서 삶을 영위하는 工匠이나 서적을 파는 상인들, 그리고 책을 사서 소장하는 사람들까지도 무고하게 죽임을 당하였다.

특히 乾隆시기는 청대 文字獄이 最高潮에 달했던 시기이다.²⁹⁾ 이 시기는 封建專制主義가 극도로 성했던 시기로서 文字獄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지경으로까지 발전하여 乾隆 39년에서 48년간의 10년동안 근 50차례에 달하는 文字獄이 발생하였으며 黃宗羲의 《明夷待訪錄》도 바로 이 시기에 禁書의 대열에 들었다.

文字獄으로 인해 당시의 지식계와 학술계는 침체 일로를 걷고 있었으니, 대다수의 지식인들은 현실을 도피하기 시작하여 국가라든지 민족의 운명과 상관되는 현실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으며, 무사안일하게 經典정리작업에 몰두하였다. 이와 같이 암울한 상황의 중국사상계에서는 새로운 사상의 발아가 불가능했으며 理智的 사고의 길도 막혀 버렸으니, 그것은 역사의 후퇴를 의미한다.

18세기 중국의 전제정치가 頂點에 도달하면서 전제정권은 사상과 학술의 발달을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독립적인 판단의 존재도 허락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知慧의 발휘는 억제 당하였으며, 創新의 의지도 사회적인 인정과 존중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지식인들의 운명은 현실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深度 및 廣度와 반비례하게 되었던 것이다.³⁰⁾

일찍이 康熙朝부터 일부 文士들이 현실사회에 불만을 품고 있다 하더라도 筆禍가 두려운 나머지 直言을 하지 못하고 다양한 예술형식을 빌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수법으로 토로할 수밖에 없었던 것³¹⁾도 바로 이러한 까닭에 기인한다.

2.2.2 경제적 면모

康熙·雍正·乾隆시기는 경제적으로도 盛世였으니, 이 시기의 경제는 前朝와 비교하여 확실한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청 왕조 전체를 통하여 가장 번영했던 시기였다. 생산 관계면에서 살펴본다면 이 시기의 중국은 여전히 봉건지주토지소유제가 위주였다. 그러나 토지집중현상이 나날이 심해지면서 청조 초년에 약간의 토지를 소유했던 많은 농민들은 雍正·乾隆시기에 이르러 다시 토지를 잃게 되었으며, 토

29) 曹秉漢, <紅樓夢의 思想史의 分析>, 《서울대 東洋史學科論集》第9輯(서울:서울大學敎 東洋史學科, 1985), 30쪽.

30) 郝俠君·毛磊·石光榮 主編, 《中西500年比較》, 196-202쪽.

31) 張俊, 《清代小說史》(杭州:浙江古籍出版社, 1997), 102쪽.

지의 집중이 점차 심화되자 농민들은 토지를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하거나 떠돌이 부랑자가 되는 등 생활이 점차 어려워졌다. 이러한 대지주의 토지兼并·중간계층의 몰락·농민의 극빈화 현상은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으며, 날로 번영하던 농업경제도 쇠퇴의 기운을 띠기 시작하였다.³²⁾

《紅樓夢》의 경제적 배경을 살핌에 있어서는 당시의 전통 경제 안에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생산력과 생산관계, 즉 자본주의적 요소에 대한 이해도 대단히 중요하다. 중국에서의 자본주의가 언제부터 싹트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의 의론이 분분하며, 혹자는 중국에서 과연 自生的 자본주의의萌芽가 가능했었는가라고 회의를 표명하기도 한다.³³⁾ 그러나 18세기 상반기 중국의 농업·수공업·상업 등에서 자본주의적 요소가 두루 나타나고 있음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³⁴⁾

자본주의적 요소는 면방직업과 같은 수공업의 발달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며³⁵⁾, 수공업의 발달과 아울러 도시 商工業도 현저하게 발달하여, 《紅樓夢》의 작자 曹雪芹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南京·蘇州 일대에서 상품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증가하였으며, 織絲·도자기·製鹽·製鐵·印刷·製紙·製糖 등의 생산규모 및 방식은 이미 초기 자본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다.³⁶⁾

수공업과 상업의 번영에 따른 都市의 발전을 볼 것 같으면, 雍正·乾隆시기에 揚州·蘇州·江寧·杭州·佛山·廣州·北京 등은 모두 이미 상당한 규모의 工商業 도시로 발전하였으며, 그중 北京·佛山·蘇州·漢口는 가장 번화하여 당시 ‘天下四聚’라고 불리우기도 하였다.³⁷⁾

18세기 상반기의 중국경제의 특징은 서양자본주의 상품의 유입에서도 살펴진다. 당시 청 왕조의 對外貿易제한은 대단히 삼엄하여 對外貿易은 관계기관의 엄중한 감독을 받는 이외에, 모든 상품은 정부가 특별히 지정한 상인의 손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重稅를 부과하는 등 겹겹의 제한을 두었다. 그러나 상업자본의 활성화로 인해 乾隆초년에는 對外貿易이 이미 흥성하였다. 그러나 조금씩 자라나던 자본주

32) 郝俠君·毛磊·石光榮 主編, 《中西500年比較》, 184-185쪽 참조.

33) 중국에서의 자본주의 맹아논쟁은 일본학자 田中正俊이 쓴 <中共에서의 資本主義萌芽論>(表教烈譯)을 참고할 수 있다. 閔斗基編, 《中國史時代區分論》(서울:創作과 批評社, 1984), 265-294쪽.

34) 청 중엽의 자본주의 萌芽와 발전추세는 翦伯贊의 <論十八世紀上半期中國社會經濟的性質一兼論《紅樓夢》中所反映的社會經濟情況>, 劉夢溪編, 《紅學三十年論文選編·上》(天津:百花文藝出版社, 1983)과 李之勤의 <論鴉片戰爭以前清代商業性農業的發展>, 《明清社會經濟形態的研究》(上海:上海人民出版社, 1957) 및 劉永成, <論《紅樓夢》時代的租佃關係>, 《新建設》1963년 제11기와 侯外廬, 《中國思想通史》(北京:人民文學出版社, 1980) 第五卷 第一章 등을 참고할 수 있다.

35) 郝俠君·毛磊·石光營 主編, 《中西500年比較》, 180-181쪽 참조.

36) 劉夢溪, 《紅樓夢新論》, 5-6쪽.

37) 郝俠君·毛磊·石光榮 主編, 《中西500年比較》, 181쪽.

의의 짝은 滿淸통치자들의 저지³⁸⁾로 말미암아 순조롭게 성장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자본주의적 요소는 봉건경제를 뒤흔들 만큼의 영향력은 지니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紅樓夢》의 시대배경인 康熙·雍正·乾隆시기는 표면상으로는 비록 ‘盛世’였지만 그 이면에는 갖가지 갈등과 변화의 조짐이 매복되어 있었던 이른바 ‘盛極必衰’의 ‘危機’였다. 이 점에 대해 譚立剛은 《紅樓夢社經面面觀》에서 “비록 청대 역사상 조설근이 생활했던 시대가 여전히 전통 경제와 정치의 전성시대였다고는 하나 쇠락의 위기가 이미 매복되어 있었다.”³⁹⁾라고 하였으며, 郝俠君 등도 《中西500年比較》에서 “雍乾‘盛世’라고는 하나 사실상 ‘盛世’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생산관계는 여전히 새로워지지 못했으며 봉건사회 내부에 고질적으로 존재했던 갈등은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시기가 직면하고 있었던 것은 일련의 새로운 위기였으며, 盛極必衰라고 하였으니 붕괴될 날이 멀지 않았던 형세였다”⁴⁰⁾

이와 같은 ‘盛世’ 이면의 ‘危機’라는 역사적 형세는 이를 간파한 사상가·문인들에 의해 미미하나마 그들의 저서와 작품 속에 대단히 조심스럽게 표출되었으니⁴¹⁾, 曹雪芹의 《紅樓夢》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저작이라고 할 수 있겠다.

2.3 사상적·문학적 흐름

2.3.1 사상적 흐름

18세기 중국의 사상적 흐름과 《紅樓夢》의 사상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사상사의 흐름과 함께 明末淸初의 계몽사조부터 언급해야 할 것이다.

중국사상사의 흐름을 살펴보면 춘추시대부터 중국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문제를 탐구하기 시작하였는데, 漢代에 이르러 제자백가 가운데 儒家가 존숭되면서 유가 학설이 정치적으로 통치이념으로 받아들여 졌고, 윤리도덕 면에서는 ‘三綱’가 ‘五常’이 제기되어 인간을 등급과 尊卑로 나누어 속박하는 봉건사상체계가 확립되었다.

더욱이 宋代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理學體系가 형성되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지배적 위치를 확보했던 것이 程朱理學이었다. 특히 朱熹는 北宋의 二程(程顥·程頤)의 학설을 계승·발전시켜 南宋시기 최고의 理學家가 되었다.

38) 侯外廬, 《中國思想通史》第五卷, 401-402쪽 참조.

39) 譚立剛, 《紅樓夢社經面面觀》, 1쪽.

40) 郝俠君·毛磊·石光榮 主編의 《中西500年比較》, 186쪽.

41) 侯外廬, 《中國思想通史》第五卷, 403쪽.

朱子(주희)는 理本氣末의 대립적인 견해로부터 출발하여 사람의 선량한 품성을 ‘理’의 표현으로 보았으며, 악한 성품은 ‘氣’의 산물로 간주하였다. 이로써 “天理를 보존하고 人欲을 제거한다.(存天理, 滅人欲)”는 명제를 주창하여 봉건통치 질서의 합리화에 도움을 주었다. 朱子의 학설은 사상적으로 봉건사회 후기의 지주계급이 사상 통제를 강화하려던 요구에 부응하였던 것이므로 宋代를 거쳐 清代에 이르기까지 儒宗으로 추송되었다.⁴²⁾

明代 초기의 사상계 역시 朱子學 일색이었으며, 대단히 침체되어 있었다. 사회전반에 걸쳐 ‘名教’로서의 도덕규범이 지표가 되어 탐구되어지면서 안이한 실천주의가 지배하고 또 형식주의와 위선주의가 사람들을 지배하게 됨으로써 固定的.道學的 인간상이 판을 치게 되었다.⁴³⁾ 그러한 현실 하에서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은 고려될 여지조차 없었다고 볼 수 있다.

明初 주자학의 형식주의 내지 外的인 理의 각박화는 그 반동으로 人欲의 긍정, 내면주의의 철저한 강조를 요구하게 되었으니, 이러한 역사적 요구는 陽明學의 성립으로 나타났다. 陽明學 左派가 유행한 明末은 전체적으로는 봉건제의 前近代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가능하기를 ‘資本主義萌芽期’라고 할 만큼 西歐의 근대 초기를 방불케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한 상황의 변화를 배경으로 하여 급진적인 左派 사상 가운데는 욕망이 理의 이름으로 용인되어 去人欲의 天理로부터 存人欲의 天理로 전환되는가 하면, ‘公’에 대한 ‘私’가 긍정적으로 주장되는 등 근대적인 思惟의 일단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시기를 思想史에 있어서도 ‘啓蒙運動期’라고까지 하여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⁴⁴⁾

그들은 봉건전통사상을 비판하면서 人性的 평등과 人欲의 긍정, 그리고 독립적 사고 등을 제창하였으니⁴⁵⁾, 인간성 회복의 기운은 西漢 이래 오래도록 숨죽이고 있다가 明末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생기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王學左派의 최후의 인물이며, 反朱子學的 思想을 그 極點에까지 철저화시켜, 더할 수 없이 노골적이고 명확한 형태로 표현한 사상가가 바로 李卓吾(1527-1602)이다. 그의 주요 관심은 이미 형해화하여 사회적.윤리적 판단 기준으

42) 徐連達.吳浩坤.趙克堯 지음, 중국사연구회 옮김, 《중국통사》(서울:청년사, 1989), 610쪽.

43) 裴永東, 《明末清初思想》(서울:민음사, 1992), 21-26쪽 참조.

44) 위의 책, 44-52쪽 참조.

45) 그들은 첫째, 道學派가 날조한 人性的 선천적인 차별을 부인하고, 봉건주의의 등급이 존재한다는 허구성과 현실의 등급을 구분하는 특권제도를 반대하였다. 둘째, 人欲은 天性的인 것이라 보고 道學의 禁慾主義를 반박했다. 이런 점들은 평등사상이 내포된 관점들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儒家 經典의 神聖性을 부인하였다. 이는 당시로서는 대담하게 經典에 대해 상당한 회의를 품고,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정신을 제창한 사상적 해방의 적극적 의의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侯外廬 엮음.양재혁 옮김, 《중국철학사.중》(서울:일월서각, 1989), 187쪽 참조.

로 기능할 수 없는 名敎의 이념과 격식을 비판하고 인간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데 있었다는 것과 그가 지닌 진보사상은 특히 ‘平等觀’과 ‘個性說’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⁴⁶⁾으로부터, 李卓吾 사상의 핵심에는 무엇보다도 ‘인간’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당시와 같은 중국사회에서 이러한 사상을 지녔고 또한 그것을 글로 표현했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되며, “인간의 진실한 감정과 욕망을 正視하고, 專制制度和 비과학화된 사유방식의 인간에 대한 속박을 지적한 것은 인간해방의 기초를 다졌다”⁴⁷⁾는 점에서, 선각자로서의 그의 慧眼을 높이 평가할 만하다.

明末에 이어지는 淸初에도 진보적 사상가와 학자들이 대거 출현하였으니, 그 진보적·계몽적 동질성으로 인하여 이 시기는 일반적으로 明末淸初라고 불리워진다. 이 시기는 춘추전국시거나 5.4시기에 비견될 만큼 활발한 사상활동이 전개되었던 시기로서, 휴머니즘 색채가 비교적 강한 이른바 계몽사조가 주류를 이루었다.

淸初의 사상활동은 明末의 遺老들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淸初 三遺老라고 일컬어지는 黃宗羲·顧炎武·王夫之 등이 당시를 대표할 만한 사상가들이다. 그들은 주로 反滿抗淸의 민족사상과 민족의식에 기초하여 봉건군주제에 비판적이면서 民本思想·重民思想을 지녔다는 점에서 그들의 사상은 계몽적 요소가 강함과 동시에 휴머니즘 색채도 띠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一群의 진보적 사상가들은 명청교체기에 대한 감상과 2천년간의 專制歷史를 돌아보며 새로운 사회사상을 제기함으로써 선명한 근대적 특색을 보이고는 있으나, 당시로서는 거대한 사회적 反響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하였으며 理學의 부흥 및 전제통치의 안정·변영의 조류를 막지도 못하였다.⁴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말청초에 형성된 새로운 사조는 ‘인간’의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사상사 상 괄목할 만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러한 흐름은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紅樓夢》의 시대인 康熙·雍正·乾隆기에 이르면 강력한 전제정권하에서 그 명맥이 거의 끊어질 지경에 처하게 된다. 명말청초로부터 약 100년이라는 시간상의 거리를 두고 戴震(1723-1777)이 출현하여 더욱 예리하고 깊이 있게 程朱理學의 ‘以理殺人’을 비판하였지만, 사회적 근간을 뒤흔들 만한 영향력은 행사하지 못하였다.

2.3.2 문학적 흐름

46) 위의 책, 202쪽 참조.

47) 楊國章, 《人文傳統》(北京: 北京語言學院出版社, 1993), 110쪽.

48) 高翔, 《近代的初曙-18世紀中國觀念變遷與社會發展》(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0), 607쪽.

조설근의 창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明清시대의 문학은 선진시기로부터의 문학전통을 이어받았으면서도 송대까지의 문학적 흐름과는 매우 다른 궤적을 보인다. 明代에는 여전히 득세했던 朱子學의 道學적 경향이 형식적인 문학을 뒷받침함으로써 문학에도 復古主義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萬曆 년간으로 들어오면서 王學左派라고도 불리우는 泰州學派의 자유주의적인 학문방법의 주장으로 말미암아 복고주의에 반대하여 개성적인 문학창작을 주장하는 작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⁴⁹⁾ 당시의 문인·사상가들은 인간의 가치를 강조하고 人情과 人欲의 합리성을 긍정하였으며, 反擬古의 기치아래 문학의 독창성을 역설하면서 이를 창작으로 실증하였는데, 그것은 주로 소설과 희곡의 창작을 통해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명청시기에는 戲曲과 小說이 空前의 성취를 이루었으며, 이러한 문학작품들은 대부분 애정과 혼인문제를 제재로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희곡작품으로는 《牧丹亭》같은 애정과 혼인문제를 다룬 걸작이 출현하였으며, 소설로는 명말청초의 대량의 才子佳人소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이외에도 《三言》, 《二拍》이나 특히 《聊齋志異》 가운데 애정과 혼인을 다룬 내용이 상당하다. 이 시기의 희곡과 소설에 있어서 애정과 혼인이라는 제재가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절대적인 경향이 애정을 예찬하고 혼인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다.⁵⁰⁾ 이와 같은 흐름은 《紅樓夢》의 시대로까지 이어졌으며, 《紅樓夢》의 창작에도 일정 정도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紅樓夢》의 시대에 비록 소설과 희곡을 통한 애정과 혼인의 자유에 대한 갈망이 주류를 이루며 창작되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당시의 많은 지식인과 문인들은 文字獄에 연루되는 것을 염려하여 글쓰기를 기피하거나 쓰기도 발표하려 하지 않았으므로 창작활동 자체가 크게 위축되었다. 滿清 통치자들은 각종 금지령을 내려 小說, 劇本, 曲詞, 民歌 등이 민간에 전파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進步思想을 담은 문학과 민간문학에 탄압을 가하였다.⁵¹⁾

따라서 창작에 있어서도 《紅樓夢》의 시대는 여전히 어두운 터널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실정이었다고, 명말청초에 대두되어 문학창작에 휴머니즘적 요소를 강하게 불어 넣었던 계몽주의 문예사조 역시 표면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伏流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으니, 조설근의 《紅樓夢》은 바로 이러한 문학적 배경 하에서 창작되었다.

명말청초의 문학적 흐름과 《紅樓夢》의 작가 조설근의 관계에 대해서 陳大康은 그의 <《紅樓夢》不是飛來峰>에서 “李卓吾가 《水滸傳》을 評點한 이후 曹寅(曹

49) 김학주, 《중국문학사》(서울: 신아사, 1989), 454-455쪽 참조.

50) 黃立新, <明清婚姻自主的社會思潮與《紅樓夢》>, 《紅樓夢學刊》一九八八年第四輯, 234-235쪽.

51) 胡文彬·周雷, 《紅學叢譚》(山西: 山西人民出版社, 1983), 131쪽.

雪芹의 祖父)이 소설을 刊刻하려던 때까지는 약 100여년의 거리가 있다. 그러나 소설의 지위를 극력 提高시키려고 노력했던 文人과 名士 중의 몇몇 주요 인물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만 한다면, 그들 간의 일맥상통한 관계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 관계는 李卓吾 - 袁宏道·袁中道 - 馮夢龍·凌蒙初 - 袁于令·杜濬·李漁 - 曹寅으로 이어진다. 入淸 이후 이러한 前後相傳의 연계는 급격히 약화되어 乾隆 이후에는 그림자조차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므로 曹雪芹은 이와 같은 문학적 맥락의 최후의 繼承者요 集大成者라고 할 수 있다.”⁵²⁾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조설근을 가리켜 진보사상을 담은 문학적 백락의 최후의 계승자요 집대성자라고 평가한 그의 견해는 괄목할 만하다.

3. 《紅樓夢》의 작자는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자 하였는가?

3.1 프롤로그와 암시

《紅樓夢》은 전체 120회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다른 작품들과는 다른 궤적을 지니고 있다. 작자 조설근은 대략 30세(건륭9년, 1744)부터 《紅樓夢》을 창작하기 시작하여 38세(건륭17년, 1752)경 거의 완성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조설근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창작년대 역시 기록으로는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조설근이 《紅樓夢》을 거의 완성해가고 있을 때부터 주변의 지인들이 이를 筆寫하여 돌려보았으며, 베끼는 과정에서 필사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행간이나 위아래 여백에 적어 넣기도 하였다. 이는 《紅樓夢》에 대한 최초의 비평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필사하는 과정에서 評語를 적어 넣은 판본 가운데 가장 이른 판본인 《脂硯齋重評石頭記》 甲戌本이 1754년에 출현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이전에 《紅樓夢》이 거의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紅樓夢》의 제목과 전체 120회라는 회수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해보고자 한다. 《紅樓夢》은 처음부터 《紅樓夢》이라고 불리지 않았다. 제1회에 제목에 대한 서술이 보이는데 여기에는 신화 속의 바위에 새겨져있는 이야기라는 뜻을 지닌 원래의 제목 《石頭記》와 이를 고쳐서 《情僧錄》과 《風月寶鑑》이라고 불렀다고 했으며, 훗날 조설근이 悼紅軒에서 10년 동안 읽으면서 다섯 차례에 걸쳐 보태고 뺀 다음 목록을 만들고 章回를 나누어 《金陵十二釵》라고 제목을 붙였

52) 陳大康, <《紅樓夢》不是飛來峰>, 《紅樓夢學刊》 一九八九年 第三輯, 84-85쪽.

다고 쓰여 있다.⁵³⁾ 이렇게 볼 때 정작 작품 가운데 《紅樓夢》이라는 제목은 보이지 않으며, 다만 제5회 가운데 남자 주인공 賈寶玉이 꿈속에서 ‘太虛幻境’이라는 신선세계에 들어가 선녀들이 연주하는 “紅樓夢曲”을 들었다는 대목에서 “紅樓夢”이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청 말에 《紅樓夢》이禁書가 된 적이 있는데,禁書라는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金玉緣》이라는 제목을 쓰기도 하였다.

《紅樓夢》이 조설근 생전에 필사본의 형태로 지인들 사이에 읽혀지고 있을 당시에는 제목이 《石頭記》였으며, 80회까지로만 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조설근 사후 30년쯤 뒤인 건륭51년(1791)에 서적상 程偉元 이 조설근의 손에 의해 기본적으로 이미 완성되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찾을 길이 없었던 後40회의 원고를 찾아 모아서 高鶚에게 정리를 부탁하여 목활자본으로 출판하였다. 이 목활자본을 程甲本이라고 하며 이때부터 《紅樓夢》이라는 제목으로 120회가 통용되기 시작하였고, 이듬해 程甲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程乙本이 출판되었다.

高鶚이 손을 거쳤다는 後40회는 前80회에 비해 사상적으로나 예술적으로 前80회에 훨씬 뒤떨어지지만 다른 《紅樓夢》續書들에 비해 나름대로의 존재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紅樓夢》이 비록 조설근의 손에 의해 완성되지는 못하였으나 학계에서는 後40회를 前80회에 붙여 하나의 완전한 작품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⁵⁴⁾

그렇다면 前80회에 비해 여러 측면에서 뒤떨어진다고 평가되고 있는 後40회를 이어 붙여서 하나의 작품으로 간주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지, 또한 분실한 원고를 찾아서 이를 근거로 後40회를 이어 썼다고는 하지만 원작자도 아닌 사람이 스토리의 결말을 매듭짓는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는 어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紅樓夢》이 조설근의 손에 의해 완성되지 못하고 前80회와 後40회의 차이를 지니고 있을지라도 이 작품을 주저 없이 하나의 완성된 소설로 간주하고 있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紅樓夢》에는 전체 작품의 프롤로그와도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는 前5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紅樓夢》은 구성에 있어서 다른 소설들과는 달리 본격적인 스토리는 제6회부터 시작되며, 제1회부터 제5회까지는 비교적 독립적이면서 특별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前5회라는 용어로 불리고 있다. 《紅樓夢》의 前5회는 일종의 프롤로그로서 작품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비극의 윤곽과 주요 등장인물들의 운명 등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으며, 이후 스토리의 전개와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서 찾아질 수 있다.⁵⁵⁾

53) 《紅樓夢》 第一回, 7쪽.

54) 《紅樓夢》 前言, 5쪽.

55) 劉夢溪, <論《紅樓夢》前五回在全書結構上的意義>, 《紅樓夢學刊》 一九九七年 第一

이처럼 後40회의 스토리 전개와 결말은 거의 대부분 前5회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비록 다른 사람에 의해 後40회가 이어서 쓰여 졌다고는 하지만 작자의 의도가 首尾雙關하게 반영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작품으로 간주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자의 창작 동기가 자신의 욕성으로 직접 밝혀져 있기도 하고, 주제와 중심 줄거리에 관한 다양한 暗示가 매복되어 있다는 점에서 前5회는 《紅樓夢》을 이해하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롤로그의 성격을 지니는 前5회의 설정과 여기에 매복되어 있는 暗示는 독자들에게 자신의 창작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작자의 교묘한 구상이라고 여겨진다.

조설근은 文字獄이 횡행했던 淸朝 乾隆기에 《紅樓夢》을 창작했으면서도 인도주의를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 追求와 당시 봉건사회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批判의 의지가 뚜렷했기 때문에 암시라는 은폐수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 듯하다. 일반적으로 《紅樓夢》은 난해한 작품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은 작자가 바로 이와 같은 은폐수법을 통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감췄으므로 작자의 의도가 쉽게 간파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작자 자신이 그것을 염려하여 다분히 의도적인 암시 장치를 前5회에 매복시켜 놓았으므로 독자들은 그의 안내에 따라 《紅樓夢》에 담겨있는 추구와 비판을 놓치지 않고 읽어낼 수 있다.

前5회에 분포된 암시의 야상을 살펴보면 작자의 암시는 제1회부터 제5회에 걸쳐 골고루 나타나고 있으며, 제1회의 중요성은 그중 각별하다. 前5회에 보이는 모든 암시요소가 제1회에 안배되어 있으므로 제2회부터는 이를 여러 형태로 반복·심화시키는 성격을 띠게 되고, 매회의 내용은 암시를 안배하고자 하는 필요에 따라 장면이 변화가 심하고 스토리의 전개가 연속적이지 않는 등, 상대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前5회에 매복되어 있는 암시의 내용은 대체로 主題에 대한 암시·기동 줄거리에 대한 암시·주요 등장인물들의 운명에 대한 암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제에 대한 암시에 속하는 것으로는 인생무상의 깨우침에 대한 암시와 현실 비판적 시각에 대한 암시를 들 수 있고, 기동 줄거리에 대한 암시에 속하는 것으로는 남녀 주인공의 愛情悲劇에 대한 암시와 작품의 무대인 賈氏 집안의 몰락에 대한 암시를 들 수 있으며, 주요 등장인물들의 운명에 대한 암시로는 주인공 賈寶玉과 열두 여인들의 운명에 대한 암시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암시들은 작자의 뛰어난 예술적 수완에 힘입어 서술주체와 표현기교 면에서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음으로 해서 괄목할 만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輯, 137쪽.

서술주체 면에서 볼 때 암시의 내용은 작자의 개입·계시자의 설정·국외자의 시각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서술되고 있으며, 표현수법 면에서는 以小示大식 수법·諧音字·眞話假說식 수법·詩詞曲賦 등의 적절한 삽입으로 암시의 내용을 다각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로써 감상의 묘미 또한 배가되기도 한다

조설근이 前5회에 이와 같은 다량의 암시를 매복시킨 궁극적인 의도는 《紅樓夢》이 悲劇으로 귀결되리라는 것과 그러한 悲劇性은 봉건사회라는 당시의 시대상황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것은 마땅히 止揚되고 克服되어야 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설근은 집필에 앞서 프롤로그의 성격을 지닌 前5회와 암시에 관한 모든 것을 면밀하게 구상해 두었던 것 같다. 주도면밀한 사전의 구상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그러한 구상을 前5회라는 구성상의 특수한 장치 안에 펼쳐 보이지 않았더라면, 曹雪芹이 완성하지 못하고 남긴 《紅樓夢》은 前80회와 後40회의 작자가 다름으로써 하나의 작품으로 간주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프롤로그와 암시의 설정으로 인하여 未完의 《紅樓夢》은 死藏될 운명에서 벗어나 전 세계적으로 읽히고 연구되는 불후의 명작으로 남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3.2 비극으로 귀결되는 네 가닥의 기동 줄거리

《紅樓夢》은 수많은 사건과 인물이 등장하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대단히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 조설근은 사상적으로 시대의 病症을 꿰뚫어 보고 미래를 위한 慧眼을 지녔던 작가임과 동시에 뛰어난 이야기꾼이라고도 여겨진다. 그는 자신이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엮어야만 독자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킬까와 동시에 자신의 창작의도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았던 이야기꾼으로서, 이야기를 풀어내기에 앞서 깊이 있는 사색과 구상을 거쳐 전체적인 구성의 틀을 주도면밀하게 마련한 듯하다.

소설내용을 재미있게 끌고 나가면서도 심오한 주제를 담고자 했고, 아울러 당시의 사회상도 마치 백과전서처럼 깊이 있고 광범위하게 반영하고자 했으므로 작가의 사색과 구상은 자연 凡人의 그것을 초월했을 것이며, 그 결과 오늘날까지도 《紅樓夢》의 구성문제는 일반 독자와 연구자들에게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難題 가운데 하나로 남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紅樓夢》의 구성문제에 관해 일반 독자와 연구자들이 우선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던 것은 작품의 기동 줄거리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서, 《紅樓夢》이 《石頭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온 직후부터 1970년대 말까지 論者들은 《紅樓

夢》의 줄거리를 대부분 單線으로 파악하여 각자 주로 前5회중의 어느 한회에서 기동 줄거리의 근거를 찾으려 하였으며, 1970년대 말 이후부터는 그러한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前5회 전체를 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가,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으로 들어서면서 점차 單線이 아닌 複線으로 인식이 전환·심화되었다. 그러나 《紅樓夢》의 줄거리가 單線이 아닌 複線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하더라도, 雙線으로 볼 것인지 三線으로 볼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야기線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紅樓夢》의 기동 줄거리에 대한 해답은 무엇보다도 작품 자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작자는 前5회에서 기동 줄거리에 대해서도 암시해 놓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을 거친다면 우리는 《紅樓夢》의 기동 줄거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작자는 前5회에서 장장 다섯 회에 걸쳐 앞으로 전개될 소설 내용의 기동 줄거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단서를 마련해 두었으며, 그것이 單線이 아닌 複線임도 알고하고자 했던 것 같다.

기동 줄거리에 대한 암시는 前5회 중에서도 제1회와 제2회에 집중되어 있다. 章回小說인 《紅樓夢》은 每회가 서로 다른 내용의 두 단락 혹은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회는 序·楔子·序曲에 해당되는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락마다 줄거리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설정되어 있고, 제2회는 한 가닥의 기동 줄거리만을 제시하고 있다.

제3회와 제4회에는 기동 줄거리에 해당하는 그 밖의 이야기 선은 제시되지 않은 채, 앞서 시사된 기동 줄거리를 풀어내기 위한 예비 내지는 배경으로서의 내용이 서술되어 있으며, 前5회의 작용을 마무리 짓는 제5회에서도 새로운 줄거리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 그 대신 앞서 제시된 네 가닥의 줄거리가 종합되거나 그 중요성 내지는 성격이 반복되고 심화되는 마지막 단계로서의 의미를 갖는다.⁵⁶⁾

前5회에 암시되어 있는 기동 줄거리는 單線이 아닌 多線이며, 그것도 다음과 같은 네 가닥의 多線으로 설정되어 있고, 이러한 네 가닥의 줄거리는 동일 평면상에 동일한 비중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表層·淺層·深層의 세 층차로 나뉘어 분포되어 있으며, 다시 明線과 暗線, 實線과 虛線으로 구분된다.⁵⁷⁾

56) 제5회에서는 또 다시 神仙세계가 무대로 설정되며, 賈寶玉이 꿈속에서 仙境인 太虛幻境에 들어가 겪은 일이 주된 내용으로, 가보옥은 태허환경에서 薄命司라는 전각안에 놓여 있던 “金陵十二釵正冊”·“金陵十二釵副冊”을 보게 되고 선녀들이 노래하는 “《紅樓夢》十二支曲”을 듣게 된다. “金陵十二釵正冊”·“金陵十二釵副冊”의 내용은 제1회의 序부분에서 기동 줄거리로 시사된 ‘여러 여자들의 이야기’가 비극적으로 귀결될 것임을 암시해 주며, “《紅樓夢》十二支曲”의 내용은 ‘여러 여자들’의 비극적 운명이 다시 처연하게 노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두 가닥의 줄거리인 賈寶玉과 林黛玉의 애정비극 및 賈府의 沒落이 좀더 비감하고 강한 톤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前5회에 암시되어 있는 《紅樓夢》의 기둥 줄거리를 제1회부터 암시되어 있는 순서대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3.2.1 다양한 여자들의 이야기

제1회의 序부분에서 작자는 작품 가운데 쓰여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일인가라는 질문을 일부러 던진 후에, 스스로 “오늘날 나는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오면서 아무 것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는데, 문득 지난날 내가 알던 여자들이 생각나 하나하나 곰곰이 비교해 보니 그 품행이나 견식이 모두 나보다 나은 것 같다.....내 비록 배운 것 없고 글재주도 없으나 향간의 속된 말로 일단의 이야기를 엮어서 閨閣의 일을 소상히 전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심심풀이가 되거나 근심을 덜어줄 수도 있으니 宜當하지 아니한가?”⁵⁷⁾라고 밝혀 놓았다. 이로써 볼 것 같으면 작자가 구상한 기둥 줄거리 중의 하나는 ‘여러 여자들의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네 가닥의 줄거리 중에서 ‘여러 여자들의 이야기’는 앞서 언급한 세 가닥의 줄거리와 다소 성격이 다르다. 우선, 여러 여자들의 운명이 하나같이 비극으로 귀결된다는 일관성은 있으나, ‘가보옥과 임대옥의 애정비극’, ‘가부의 몰락’, 그리고 ‘가보옥의 人生歷程’ 등과는 달리 縱으로 흐르는 하나의 줄거리는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비극적 운명이 비교적 독립적으로 삽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교적 독립적’이라는 것과 縱적 흐름을 갖는 다른 줄거리에 ‘삽입’되어 있다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여러 여자들의 이야기’라는 줄거리는 表層에 드러난 뚜렷한 明線이자 實線도 아니고, 深層에 잠재되어 있으면서 주제와 밀착된 暗線이자 虛線도 아님을 알 수 있다.

그것은 表層과 深層 사이의 이른바 淺層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으며, 비록 하나의 縱的 흐름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각각의 이야기가 분명하게 전개, 삽입되어 있으므로 일종의 明線이자 實線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성격을 지닌다. 그리고 이 줄거리는 ‘가부의 몰락’ 줄거리와 부분적으로 겹쳐서 이야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57) 《紅樓夢》의 줄거리가 동일한 평면에 있지 않고, 表層, 淺層, 深層의 다른 층차로 분포되어 있으며, 다시 明線과 暗線, 實線과 虛線으로 구분된다는 견해는 周思源이 그의 저서 《紅樓夢魅力探秘》(北京: 文化藝術出版社, 1994), 65-66쪽에서 주장한 것인데, 필자는 그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여겨져 그대로 따랐다. 다만, 表層, 淺層, 深層에 위치한 줄거리가 각각 무엇이며, 어느 줄거리가 明線이자 實線이고, 어느 줄거리가 暗線이자 虛線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 하였다.

58) “今風塵碌碌一事無成, 忽念及當日所有之女子, 一一細考較去, 覺其行止見識皆出於我之上,雖我未學, 下筆無文, 又何妨用假語村言, 敷演出一段故事來, 亦可使閨閣昭傳, 復可悅世之目, 破人愁悶, 不亦宜乎?” 《紅樓夢》제1회, 1쪽.

‘주인공의 人生歷程’ 줄거리 속에서도 이야기 될 수 있으므로, 비록 작자가 ‘여러 여자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이 작품을 썼다고 밝히기는 하였으나, 전체 작품을 놓고 볼 때 그 비중은 다른 기둥 줄거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여자들의 이야기’는 다른 세 가닥의 기둥 줄거리와는 다소 다른 성격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3.2.2 주인공 賈寶玉의 인생역정

이어지는 楔子부분에서는 《石頭記》의 유래가 소개된다. 이에 따르면 작품 내용은 女媧補天때 홀로 쓰이지 못하고 남겨진 神話속의 石頭가 인간 세상에 내려가 겪은 이야기라고 되어 있으며, 無材補天의 石頭는 주인공 賈寶玉으로 화하여 인간 세상에서 한생을 살게 되므로 ‘賈寶玉의 人生歷程’을 또 하나의 기둥 줄거리로 볼 수 있다.

‘賈寶玉의 人生歷程’이라는 또 하나의 기둥줄거리는 ‘가보옥과 임대옥의 애정비극’ 줄거리 및 ‘賈府의 몰락’ 줄거리와 비교해볼 때, 表層에 드러나지 않고 深層에 잠재된 暗線이자 虛線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주인공 賈寶玉이 신선세계에서 인간세계로 내려와서 다시 신선세계로 돌아가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이야기가 表層에 국한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작자의 사상이 투영된 인물이면서도 작자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표현하였을 뿐,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賈寶玉의 人生歷程’이라는 줄거리는 深層으로 잠복하는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일반 독자들에게 쉽사리 감지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고, 비교적 높은 안목을 지닌 독자 및 연구자들이 반복적으로 읽은 연후라야 비로소 深層에 흐르는 의미를 찾아낼 수 있으며, 그러한 深層의 의미가 바로 작품의 主題와 밀착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보옥과 임대옥의 애정비극’ 및 ‘賈府의 몰락’이라는 두 가닥의 줄거리와 비교된다.

3.2.3 주인공 賈寶玉과 林黛玉의 비극적 사랑이야기

마지막 序曲부분에는 또 다른 神話가 삽입되어 있는데, 그것은 神仙세계의 神瑛侍者和 絳珠仙子の 사연으로 비극적 색채를 띠고 있으며, 그들 역시 인간세계로 내려가 한 생을 살게 된다. 神瑛侍者和 絳珠仙子は 작품속의 남녀주인공 賈寶玉과 林黛玉의 前身으로 설정되었으며, 따라서 賈寶玉과 林黛玉의 비극적 사랑이야기가 또 다른 하나의 기둥 줄거리임이 암시되어 있다.

네 가닥의 줄거리 중에서 가보옥과 임대옥의 애정비극 줄거리는 내용이나 분량

면에서 다른 줄거리의 그것을 압도함과 아울러 시종을 관통하면서, 작품의 表層에 위치한 가장 분명한 明線이자 實線이라 할 수 있다.⁵⁹⁾ 《紅樓夢》에 만약 보옥과 대옥의 애정비극이 이처럼 뚜렷한 줄거리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紅樓夢》은 더 이상 《紅樓夢》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을지도 모른다. “일반 독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비극은 거의 《紅樓夢》의 同義語로 자리 잡고 있다.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도는 다를지라도 어떤 시대, 어떤 계층의 어떤 독자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모두 이 애정과 혼인 이야기의 존재에 주의를 기울여 왔다.”⁶⁰⁾ 脂硯齋가 이 점에 대해 “전체 작품의 주인공은 二玉 두 사람뿐이다.”⁶¹⁾라고 언급한 것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3.2.4 작품의 무대인 賈氏 집안의 몰락

이상과 같이 제1회에는 모두 세 가닥의 기동 줄거리가 시사되어 있으며, 제2회로 넘어가서 다시 또 다른 하나의 기동 줄거리가 첨가된다. “賈夫人仙逝揚州城, 冷子興演說榮國府”라는 제2회의 回目에 보이는 것처럼, 제2회에서 작자는 두 번째 단락에 등장하는 冷子興이라는 인물을 통해 작품의 무대인 賈府, 특히 榮國府의 대체적 상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으며, 그러는 가운데 賈府의 家勢가 경제적 위기와 더불어 자손들의 무능으로 인하여 점차 기울어져가고 있음이 언급되고 있다. 여기서 독자들은 賈府의 이야기, 그것도 몰락해가는 귀족대가정의 이야기가 또 다른 하나의 기동 줄거리임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다.

가보옥과 임대옥의 애정비극 줄거리 못지않게 《紅樓夢》에는 賈府의 몰락과정 역시 始終을 관통하며 묘사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당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사상 등의 제 요소가 다양하게 묘사되고 있어, 그야말로 “중국봉건사회의 백과전서”라고 일컬어지기에 합당하다.

이러한 줄거리는 보옥과 대옥의 애정비극 줄거리와 어느 정도 연관되거나 교차되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이 함께 이야기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엄연히 존재하는 또 하나의 明線이자 實線으로 간주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다만, 가부 몰락의 줄거리는 明線이자 實線이면서도, 보옥과 대옥의 애정비극 줄거리가 분명하며 집중적이고 두드러진 것에 비하여 감추어졌다 드러났다 하면서 전개된다는

59) 이 점에 대해 唐富齡은 “.....無論從文本的量化標準還是從質化標準來看, 《紅樓夢》用壓倒其他描寫的篇幅曲折地展示了寶.黛.釵的愛情與婚姻糾葛, 而且貫穿始終, 很自然地聯系着許多事件和人物, 離開了它, 《紅樓夢》就要散架或成爲別一個樣子.”(《〈紅樓夢〉的悲劇意識與旋律美》, 武漢: 武漢大學出版社, 2000, 97쪽)라고 하였다.

60) 劉敬圻, <《紅樓夢》主題多義性論綱>, 《紅樓夢學刊》一九八六年 第四輯, 45쪽.

61) “蓋全部之主惟二玉二人也.”, 俞平伯, 《脂硯齋紅樓夢輯評》(香港:太平書局, 1975). 12쪽.

점에서 구별되며, 그렇기는 해도 보옥과 대옥의 애정비극 줄거리보다 훨씬 범위가 넓게 전편을 뒤덮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⁶²⁾

이상으로부터 볼 것 같으면 《紅樓夢》의 기동 줄거리는 單線이 아닌 多線이며, 그것은 ‘가보옥과 임대옥의 애정비극’, ‘賈府의 몰락’, ‘가보옥의 人生歷程’이라는 세 가닥의 기동 줄거리와 비교적 산발적·독립적·단편적으로 삽입되어 있는 ‘여러 여자들의 이야기’라는 기동 줄거리가 더해져서 모두 네 가닥의 기동 줄거리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네 가닥의 기동 줄거리는 主線·副線의 종속관계가 아닌 並行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연관되고 있다는 관점⁶³⁾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主線·副線의 종속관계로 파악하기에는 상대적 독립성이 강하고, 각각의 존재의미를 뚜렷하게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시종일관 얽히면서 연관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紅樓夢》의 기동 줄거리 가운데 가장 뚜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보옥과 임대옥의 애정비극’ 및 ‘가부의 몰락’이라는 줄거리는 제54회를 전환점으로 하여 앞부분에는 ‘盛’, ‘聚’, ‘歡’, ‘榮’이 쓰여 있고, 뒷부분에는 ‘衰’, ‘散’, ‘悲’, ‘辱’이 쓰여 있어 뚜렷하게 대비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기동 줄거리의 흐름은 작품의 주제를 대단히 효과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紅樓夢》의 구성상 종적 흐름을 갖는 네 가닥의 기동 줄거리는 모두 비극으로 귀결되고 있는데, 그러한 비극적 결말의 근본 원인 역시 당시의 봉건제도와 봉건사상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작품을 읽어내려 가면서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작자의 비판적 현실 인식과 미래를 향한 간절한 염원 또한 감지할 수 있다.

3.3 주제: 인생무상의 깨우침과 현실비판의 이중주

《紅樓夢》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 작품이 창작된 이래 200 여년 동안 줄곧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⁶⁴⁾, 1970년대 말부터 주제에 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78년 이후에 발표된 논문을 검토해 보면 《紅樓夢》의 주제는 상당히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되고 있어 일종의 爭鳴 현상을 빚고 있다.⁶⁵⁾

62) 唐富齡도 이 점에 대해 “時隱時現，或明或暗，但更具延伸力度，能穿雲入霧地將全書統攝起來。”(《〈紅樓夢〉的悲劇意識與旋律美》，98쪽)라고 한 바 있다.

63) 張稔穰도 이 점에 대해 “《紅樓夢》中的諸多矛盾線索則不是從屬關係而是並行關係，也不是一個矛盾過程的幾個矛盾方面，而是各代表着一個相對獨立的矛盾系統，各構成一個情節系列。”(《中國古代小說藝術教程》，濟南：山東教育出版社，1998，514.쪽)라고 하였다.

64) 《紅樓夢》의 주제를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르게 파악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拙稿，〈《紅樓夢》에 나타난 暗示에 관한 研究〉，《翰林大學校論文集》第9輯，1991년 12월，128쪽 참조.

《紅樓夢》이 창작된 이래 1980년대 중반까지의 주제에 관한 논의를 종합해 보면, 論者마다 비록 주제에 대한 인식이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紅樓夢》의 주제가 단일하다는 입장만큼은 공통된 것이었다.⁶⁶⁾ 그러다가 1980년대 중반이후로 접어들면서부터 《紅樓夢》의 주제가 多重主題이거나 혹은 주제가 多義性을 띠고 있다는 견해가 점차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紅樓夢》의 주제에 대한 인식의 확장이자 심화라고 볼 수 있으며, 오랫동안 紅學界에 뿌리박혔던 單一主題라는 갇힌 틀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⁶⁷⁾

主題의 ‘多義’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이르면 다시 의견이 분분해지지만, 主題를 다양하게 이해하는 것은 《紅樓夢》의 실체에 더욱 다가서는 긍정적인 접근이며, 《紅樓夢》의 내용 자체가 풍부하기 때문에 주제에 대한 여러 주장이 分岐를 이루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소설의 주제는 작품을 읽어나가면서 그 가운데 내재된 무엇인가에 근거하여 파악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紅樓夢》의 경우에는 작자가 前5회에서 직접 밝히거나 암시적 수법으로 독자들에게 자신의 창작 의도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前5회에 매복된 암시를 근거로 《紅樓夢》의 주제를 파악해 본다면, 조설근은 《紅樓夢》을 통해서 인생무상의 허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처했던 18세기 중엽의 중국에 대한 비판적 현실 인식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였다. 이처럼 《紅樓夢》은 ‘인생무상의 깨우침’과 ‘현실 비판’이라는 이중의 주제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3.1 인생무상의 깨우침

‘인생무상의 깨우침’이라는 주제는 前5회에서 작자의 육성에 의해 직접 밝혀져

65) 《紅樓夢》의 주제를 무엇으로 파악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일종의 쟁명현상을 빚을 정도로 다양하게 나뉘고 있다. 여기에 관한 자세한 것은 위의 논문 118쪽 참조.

66) 일찍이 작자와 동시대인으로 추정되는 脂硯齋를 포함한 清代 評點家들의 견해가 그러했고, 索隱派 紅學家들의 견해가 그러했으며, 작자의 自傳說을 주장했던 考證派 新紅學의 창시자 胡適(1891-1962)이 그러했다. 이후, 索隱派와 考證派의 연구방법을 비판하며 소설비평의 관점에서 《紅樓夢》의 主題를 탐색한 이른바 評論派 홍학이 대두되었으나, 그들 역시 주제가 단일하다는 입장에서 작품을 분석하였다. 文革이래 1980년대 중반까지의 《紅樓夢》의 주제에 관한 諸說에 대해 歸璞은 〈關於《紅樓夢》主題的爭鳴現狀〉(《紅樓夢學刊》一九八五年 第一輯)이라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여덟가지로 귀납하여 정리하였다. 즉 第四回總綱說.封建家族衰亡史說.愛情主題說.封建社會青年女性普遍悲劇說.反封建主義說.封建階級子孫不肖, 後繼無人說.影射曹家破敗, 反皇權主題說.主觀命意與客觀意蘊對立統一說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들 역시 《紅樓夢》의 主題를 단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전의 주장들과 동일하다.

67) 周思源, 《紅樓夢魅力探秘》, 35쪽.

있기도 하고, 암시적 수법으로 반복·강조되고 있기도 하다. 암시적 수법으로 ‘인생무상의 깨우침’이라는 주제가 제시되어 있다고는 하나 비교적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장치되어 있으므로 독자들은 작자의 의중을 놓치지 않고 읽어낼 수 있다.

제1회에서 조설근은 자신이 《紅樓夢》을 쓴 의도는 인생의 허무를 이야기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제1회 가운데 “夢”이나 “幻” 등의 글자를 쓴 것은 독자들을 깨우치려는 것으로, 이 책을 쓴 의도와 본旨를 나타낸 것이기도 하다.⁶⁸⁾

“이 책을 쓴 의도와 본旨”란 바로 주제를 명시한 것이다. 작자가 말하려는 인생의 허무는 같은 회에서 신화 속에 등장하는 스님과 도사가 인간 세상에 데려가 달라고 조르는 石頭에게 “속세 중에도 즐거운 일이 있기는 하나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美中不足, 好事多魔’라는 여덟 글자가 긴밀하게 이어져 있어, 순식간에 樂이 다하고 슬픔이 생기며 사람은 죽고 사물은 바뀌니, 결국은 허망한 꿈인 것이며 모든 것은 空으로 돌아간다.”⁶⁹⁾라고 하는 말에서 좀 더 부연 설명되고 있다.

또한 제1회의 《石頭記》의 由來 끝 부분에서 石頭에 새겨진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였다는 空空道人이 이 《石頭記》를 읽고 空虛를 깨달았다고 되어 있기도 하다.⁷⁰⁾

주제에 대한 이와 같은 명시가 비록 이처럼 드러나 있기는 하나 작자가 의도하는 바의 ‘인생무상의 깨우침’이라는 주제는 前5회에 안배되어 있는 암시를 통해 더욱 확연하게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제1회에 삽입되어 있는 “好了歌”와 이를 듣고 깨달음을 옮긴 “好了歌注解” 및 제5회의 “紅樓夢曲”이 그것이다.

프로로그의 성격이 가장 강한 제1회에서 절름발이 도사가 읊조리는 “好了歌”는 어떤 의미에서는 《紅樓夢》의 주제곡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好了歌”라는 곡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神仙이 좋은 줄은 세상사람 다 알건만,
그래도 부귀공명 잊지를 못하네!
古今の 將相들은 어디에 있는가?
황폐한 무덤에는 잡초만이 무성하다.

68) “此回中凡用‘夢’用‘幻’等字, 是提醒閱者眼目, 亦是此書立意本旨。” 《紅樓夢》第一回, 2쪽.

69) “那紅塵中有却有些樂事, 但不能永遠依恃; 況又有‘美中不足, 好事多魔’八個字緊相連屬, 瞬息間則又樂極悲生, 人非物換, 究竟是到頭一夢, 萬境歸空”, 《紅樓夢》第一回, 3쪽.

70) 《紅樓夢》第一回, 6-7쪽.

神仙이 좋은 줄은 세상사람 다 알건만,
그래도 금은보화 잊지를 못하네!
하루 종일 아등바등 굶어모으더니
막상 많아지면 죽고 마는 것을.

神仙이 좋은 줄은 세상사람 다 알건만,
그래도 아리따운 아내를 잊지를 못하네!
남편이 살았을 땐 변함없다 맹세해도,
죽고 나면 타인을 따라 가더라.

神仙이 좋은 줄은 세상사람 다 알건만,
그래도 아들 손자 잊지를 못하네!
어리석은 부모는 예부터 많았어도,
효성스런 자손을 그 누가 보았는가?

世人都曉神仙好，惟有功名忘不了！古今將相在何方？荒塚一堆草沒了。
世人都曉神仙好，只有金銀忘不了！終朝只恨聚無多，及到多時眼閉了。
世人都曉神仙好，只有嬌妻忘不了！君生日日說恩情，君死又隨人去了。
世人都曉神仙好，只有兒孫忘不了！痴心父母古來多，孝順兒孫誰見了？⁷¹⁾

“好了歌”와 “好了歌注解”는 표면적으로 본다면, 《紅樓夢》의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에 상징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甄士隱이라는 인물이 절름발이 도사가 읊조리는 “好了歌”를 듣고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아 出家하기까지의 과정을 서술하기 위해 안배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진사은의 몰락이 작품의 무대인 賈府의 몰락을 상징적으로 암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작자는 “好了歌”와 “好了歌注解”를 통해서 전체 작품의 주제를 상징적으로 암시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제5회에 보이는 “紅樓夢曲”은 열두 여인들의 운명을 미리 암시하기 위해 안배되었으나, 그 가운데 인생의 허무를 깨우치려는 주제 역시 내포되어 있다. “紅樓夢曲”을 통해서 작자는 “부귀영화도 덧없는 꿈이거니, 찾아든 인생의 불행 한스러워라.”⁷²⁾, “기쁨도 잠깐 새에 슬픔으로 변했네, 아아 이것이 인생인 걸 어이 피하리요!”⁷³⁾라고 노래하였으며, “가을에 지는 허무한 꽃 신세, 이것이 생사의 운명이거니 그 누가 피할소냐!”⁷⁴⁾라고 하여 삶이 덧없음을 깨우치려 하였고,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허무한 운명을 피해갈 수 없음을 역설하고 있다.

71) 《紅樓夢》第一回, 17쪽.

72) “喜榮華正好，恨無常又到” 《紅樓夢》第五回, 82쪽.

73) “呀！一場歡喜忽悲辛。嘆人世，終難定！” 《紅樓夢》第五回, 85쪽.

74) “春榮秋謝花折磨。似這般，生關死劫誰能躲？” 《紅樓夢》第五回, 84쪽.

열두 여인들의 비극적 운명을 암시하는 가운데 드러나 있는 작자의 이와 같은 메시지는 주제와 직접 맞닿아 있음을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다.

3.3.2 현실비판

前‘5회에 명시 혹은 암시된 ‘인생무상의 깨우침’이라는 주제가 비교적 가시적으로 독자들에게 제시되어 있다면 ‘현실비판’이라는 주제는 교묘하게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먼저, ‘현실비판’이라는 주제가 은폐되어 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부터 살펴져야 할 것이다. 제1회에서 작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한 차례의 夢幻을 겪고 나서 실제 사실을 감추고 “靈氣가 통한 돌”의 이야기를 빌어 이 《石頭記》 한 권을 썼다.⁷⁵⁾

이와 같은 작자의 고백은 대단히 중요하다. 조설근은 《石頭記》 즉 《紅樓夢》을 “실제 사실을 감추고” 썼다고 했다. 石頭에 적힌 이야기를 빌어서 하고 싶은 말을 은폐시키며 했다는 말이다. 이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紅樓夢》의 내용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 이면에 감춰진 그 무엇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작자가 명확하게 “실제 사실(眞事)”을 감추고 썼다고 했으므로 감춰진 “실제 사실(眞事)”을 찾아 읽는 것이 작품 이해의 관건이자 작자가 말하려는 바, 즉 작품의 주제를 파악하는 첩경이라고 할 수 있다. 작자가 감추어 쓴 “실제 사실(眞事)”은 무엇이며, 애써 은폐한 그것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 역시 제1회에서 찾을 수 있다.

《石頭記》가 이 세상에 전해지게 된 由來를 전하고 있는 제1회의 서술을 보면, 조설근은 결코 작자가 아니고 단지 신화 속의 石頭가 인간 세상에 내려가 겪은 이야기를 10년 동안 읽으면서 다섯 번이나 수정하고 목록과 장회를 나눈 編者라고만 밝혀져 있다. 이는 조설근이 文字獄이 극심했던 상황 하에서 이 작품을 썼으므로 자신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바가 정면으로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石頭記》의 由來’라는 형식을 취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⁷⁶⁾

《石頭記》의 첫 독자이자 평자이기도 한 脂硯齋도 이 점에 대해서 “만약 雪芹

75) “因曾歷過一番夢幻之後，故將眞事隱去，而借‘通靈’之說，撰此《石頭記》一書也。” 《紅樓夢》第一回，1쪽.

76) 大高岩 著·程鵬 譯，〈曹雪芹의近代思想〉，〈紅樓夢學刊〉一九八二年 第一輯，171쪽.

이 다만 이 책을 읽고 增刪하기만 했다면 처음부터 여기까지의 楔子는 과연 누가 썼다는 말인가? 이로써 작자의 창작 수법이 상당히 교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뒷부분에도 이와 같은 면이 적지 않게 보인다. 이것은 바로 작자가 화가들이 연기나 구름으로 화폭을 덮어 어렵풋하게 표현하는 수법을 차용한 것으로, 독자들은 절대로 속지 말아야만 제대로 작자의 의도를 간파할 수 있다.”⁷⁷⁾라고 한 바 있다.

乾隆년간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자신의 의도를 정면으로 드러낸다면 당시의 통치자들에게 용납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은폐수법을 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당시의 통치자들에게 용납될 수 없었을 이유는 작자가 어떤 형태로든 現實批判的 視角을 다분히 노정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내용 또한 ‘《石頭記》의 由來’ 가운데서 찾을 수 있다. ‘《石頭記》의 由來’에 의하면 石頭에 적힌 이야기는 조설근의 손에서 정리되기 이전에 石頭의 이야기를 처음 읽은 空空道人에 의해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다고 하는데, 空空道人이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도 되겠다고 판단한 근거가 時局에는 조금도 연루될 것이 없이 주로 남녀 간의 애정문제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石頭에 적힌 이야기를 읽고 난 空空道人是 인간 세상에 내려갔다 다시 신선 세계로 돌아온 石頭와 대화를 나눈 끝에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자 마음먹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공공도인은 그 말을 다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 《石頭記》를 다시 한 번 통독하였다. 그리고 그 안에 비록 간악하고 교활하며 간사하고 악독한 자들에 대해 책망하고 폄하하며 주벌하는 몇 마디의 말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시절을 불평하거나 세상을 비방하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또 어진 임금과 현명한 신하, 자애로운 부모와 효성스러운 자식 사이의 삼강오륜을 그려낸 중요한 내용이 가득하고, 공덕을 칭송하고 애틡한 마음을 그리고 있으므로 실로 다른 책가는 비할 수 없다고 여기게 되었다. 비록 이 책의 주제가 情을 말하고 있으나 사실 그대로를 그려내고 있을 뿐, 결코 망령되게 거짓 이야기를 만들어 내지는 않았으며……세상사에도 전혀 간섭하는 바가 없는 까닭에 마침내 처음부터 끝까지 베껴 세상에 널리 전하고자 하였다.⁷⁸⁾

空空道인의 평가를 빌어서 작자는 이 《石頭記》의 내용은 대부분 남녀 간의 “情”을 이야기 한 것이지, “시절을 불평하거나 세상을 비방하려는” 것은 아니며, “세상사에도 전혀 간섭하는 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강조는

77) 俞平伯, 《脂硯齋紅樓夢輯評》, 8쪽.

78) 《紅樓夢》第一回, 6쪽.

오히려 자신의 현실비판적 시각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와 같은 사상통제가 삼엄했던 상황 하에서 조설근은 자신의 현실비판적 시각을 이처럼 은폐시킬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그러한 은폐는 작품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작자의 의도는 결코 쉽사리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조설근은 자신의 의도를 스스로 은폐시켜 보호막을 쳤기 때문에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독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것을 대단히 염려하여, ‘《石頭記》의 由來’를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節句 한 수를 써넣었다.

온통 황당한 말 투성이지만,
 피눈물이 얼룩져 있도다!
 모두들 작자더러 어리석다 하나,
 누가 그 숨은 뜻을 헤아려 줄까?
 滿紙荒唐言, 一把辛酸淚!
 都云作者痴, 誰解其中味?⁷⁹⁾

조설근은 자신이 《紅樓夢》을 쓴 의도는 인생의 허무를 이야기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밝히기도 하였고, 空空道人的 입을 빌어 《石頭記》는 남녀 간의 “情”을 이야기한 것이지 세상사에 대해서는 전혀 간섭하는 바가 없다고 못 박고 있으면서도, “누가 그 숨은 뜻을 헤아려 줄까?”라고 절규에 가까운 탄식을 하고 있다. 자기가 직접 드러내 놓고 전달하지 못하는 “숨은 뜻”을 독자들이 그래도 간파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다.

조설근이 독자들에게 이해해주시기 바랐던 “숨은 뜻”은 다름 아닌 “傷時罵世”의 울분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온통 황당한 말 투성이지만, 피눈물이 얼룩져 있도다.”라고 작자 스스로 토로한 것이나, 甲戌本 凡例에 보이는 “글자마다 보이느니 피눈물ियो, 십년의 노고가 심상치 않다.(字字看來皆是血, 十年辛苦不尋常)”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설근이 품었던 “傷時罵世”의 울분이 상당히 깊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傷時罵世”의 ‘현실비판’은 《紅樓夢》의 은폐된 주제로서, ‘인생무상의 깨우침’이라는 可視的 주제와 함께 《紅樓夢》 전반에 걸쳐 二重奏로 연주되고 있다.

4. 《紅樓夢》은 왜 중국의 고전, 세계의 고전이라고 일컬어지는가?

79) 《紅樓夢》第一回, 7쪽.

4.1 인간에 집중한 인간의 문학

4.1.1 명말청초 계몽사조의 계승

《紅樓夢》의 작가 조설근은 사상가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의 사상적 흐름을 작품 가운데 깊이 있게 투영하였으며, 그것은 또한 《紅樓夢》을 이해하는 관건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조설근이 《紅樓夢》에서 ‘인간’에 집중한 시선은 ‘個性과 人欲의 긍정’·‘여성 존중’·‘신분차별로 인한 불평등’과 같은 측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조설근의 이와 같은 사고는 명말청초의 계몽사조와 맥락을 같이 한다.

조설근은 李卓吾·黃宗羲·顧炎武·王夫之 등과 같은 명말청초의 계몽사상가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가 《紅樓夢》에서 그려내고 있는 ‘個性과 人欲의 긍정’·‘여성존중사상’·‘평등사상’ 등은 ‘反理學·反禮教’ 사상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탁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으며, ‘專制王權에 대한 반발’·‘과거제도와 八股文에 대한 비판’ 등과 같은 전제군주제에 대한 비판은 淸初 三遺老인 黃宗羲·顧炎武·王夫之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명말청초의 사상가 가운데서도 조설근은 이탁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紅樓夢》에 투영되어 있는 조설근의 사상은 거의 대부분 주인공 賈寶玉의 사고와 언행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데, 작품 가운데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林黛玉과의 애정비극’ 및 ‘부친과의 갈등’은 그 뿌리가 個性과 人欲을 부정하는 봉건예교의 속박에 있다는 점에서 이탁오의 사상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며, ‘여성존중사상’과 ‘평등사상’ 또한 이탁오의 사상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淸初 三遺老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전제군주제에 대한 비판이나 八股文에 대한 비판은 직접적이거나 노골적이지 않고 우회적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점과 불과 예닐곱 군데에서만 가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탁오의 영향력과는 차이를 보인다.

《紅樓夢》에는 이러한 啓蒙的·進步的 사상이 여러 형태로 투영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異端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紅樓夢》의 思想的 異端性은 명말청초 이래 각종 사회변동에 따른 正統體制의 일정한 弛緩 및 그 변동 요인을 흡수하는 再編成의 시대적 요청을 정치·제도적 차원이 아니라 문화·사회적 차원에서 반영한 淸代 抵抗思潮의 한 유형을 대표하는 것⁸⁰⁾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淸代 儒學界에서 적대시 되었던 李卓吾의 사상이 文藝界에서 伏流해

80) 曹秉漢, 〈紅樓夢의 思想史的 分析〉, 《서울대 東洋史學科論集》第九集, 3-4쪽.

은 사례로 주목할 만하며⁸¹⁾, 조설근은 그러한 문학적 맥락의 최후의 계승자요 集大成者라고도 이야기 된다.⁸²⁾

이와 같이 《紅樓夢》이 명말청초의 계몽사조를 소설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반영하고 있다고는 하나, 명말청초의 계몽사조라는 “異端의 思想의 伏流가 《紅樓夢》을 통하여 乾隆대에 孤立的으로 突出한 것은 당시로서는 특수한 知的 현상으로서 思想的 主流는 아니었다.”⁸³⁾

이단적 사상의 伏流가 《紅樓夢》을 통해 건륭대에 고립적으로 돌출하였다는 점은 18세기 중국 사회에서 《紅樓夢》이 지니는 각별한 의미를 잘 대변해준다고 여겨진다.

4.1.2 인간의 존엄성을 억압하는 사상과 제도에 대한 저항

《紅樓夢》은 18세기 중국의 다양한 면모를 여실하게 펼쳐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하나의 소설 작품이 이처럼 엄청난 容量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며, 《紅樓夢》을 통해서 전 세계의 독자들은 18세기의 중국을 문자를 넘어선 생생한 화폭으로 접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생생한 화폭은 인간의 존엄성을 억압하는 봉건제도와 봉건사상에 대한 저항의식이 밀바탕되어 있음으로 해서 중국의 고전이자 세계의 고전으로 읽히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다.

《紅樓夢》은 비극이다. 18세기 중국의 귀족대가정을 무대로 작품 가운데 상당 부분이 호화로운 생활상을 묘사하고 있으면서도 몰락할 수밖에 없는 복선들을 깔아놓았으며, 중국에는 몰락으로 귀결시키고 있고, 주요 등장인물들도 예외 없이 모두 비극적 결말을 맞는다. 여기서 우리는 작자는 왜 그렇게 비극적으로 결말지었는지에 대해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紅樓夢》이 비극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원인은 ‘인간’이 당시와 같은 봉건제도와 봉건사상에 얽매어 있었기 때문이며, 그로 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여지없이 짓밟혔기 때문이다. 주요 등장인물들의 비참한 결말은 모두 이와 같은 봉건제도와 봉건사상의 억압에 기인한다. 조설근은 현실에 순응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부당함을 드러내고자 하였으므로, 《紅樓夢》은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작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인간성 회복에의 염원은 당시로서는 결코 실현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작자는 작품을 통해 ‘인간성’을 말살하려는 봉건제도와 봉건사상에 대해 직접적

81) 위의 논문, 27쪽.

82) 陳大康, 〈《紅樓夢》不是飛來峰〉, 《紅樓夢學刊》 一九八九年 第三輯, 85쪽.

83) 曹秉漢, 〈紅樓夢의 思想史의 分析〉, 34쪽.

으로 저항하지는 못했으나, 그가 그려내고 있는 대부분의 여성 인물들이 비극적 운명을 맞도록 묘사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봉건제도·봉건사상이 얼마나 인간의 자유·권리·존엄성을 억압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려고 하였으며, 그 부당함과 弊害를 힘주어 역설하고자 하였다.

《紅樓夢》은 中國小說戲曲史上 최초의 철두철미한 悲劇이라고 할 수 있다.⁸⁴⁾ 才子佳人小說을 비롯하여 중국의 많은 소설들은 大團圓으로 결말짓고 있는 데 반해, 《紅樓夢》은 이러한 大團圓主義를 타파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紅樓夢》에서 그리고 있는 悲劇은 작자의 동정어린 시선을 基調로 하고 있으며, 그러한 동정은 비극을 유발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深思와 이에 대한 고발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억압에 대한 동정은 억압자체에 대한 인식 없이는 불가능하다. 조설근은 당시로서는 드물게 억압에 대한 인식이 투철했던 인물이었으며, 그의 사상을 그대로 투영시킨 주인공 가보옥은 스스로가 비극의 주인공인 동시에 《紅樓夢》에 보이는 거의 모든 비극의 유일한 증인이기도 하다.

조설근은 紅樓 여성들의 悲劇을 극대화시킴으로써 그만큼 문제의 심각성을 본질적인 측면에서 드러내 보이고 있으며, 독자들로 하여금 천진하고 아름다운 여성들의 悲劇에 대해 가슴아파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悲劇으로 이끈 당시의 상황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작자와 함께 理想으로 바라는 세계를 모색할 수 있게 해준다.

이와 같이 《紅樓夢》을 비극으로 결말짓는 것이 당시의 조설근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저항이었다. 조설근에게 있어서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무엇보다도 뚜렷했기 때문이며, 이는 그가 《紅樓夢》을 창작하게 된 결정적 動因이었으리라 헤아려진다.

4.1.3 휴머니즘 문학

인간의 존엄성에 눈을 떠던 명말청초 계몽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은 조설근의 《紅樓夢》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문제에 집중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찾고자 함으로써, 18세기 중국에 큰 의미를 던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는 영원한 고전으로 읽힐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런 의미에서 《紅樓夢》은 휴머니즘 문학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문학에 있어서의 휴머니즘은 ‘인간의 열망과 소망’을 드러내주고, 한편으로는 이를 억압하고 말살하려는 제도나 사상 같은 ‘사회적 힘’들에 대한 ‘반응’ 내지는 반항의 목소리로 표현된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개성해방’, ‘인격의

84) 鐘明奇, <<紅樓夢>夢境描寫的傳統性與獨創性>, 《紅樓夢學刊》一九九三年 第三輯, 36쪽.

독립과 자유·‘평등’과 같은 휴머니즘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염원의 발로이기도 하다.

르네상스 이후 각기 다른 시기에 배출된 많은 傑出한 작가들은 그들의 작품 가운데 대부분 이와 같은 휴머니즘 정신을 표방하고 있으며, 그중 대다수 작가들은 휴머니스트라고도 말할 수 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1564-1616)는 인간의 개성과 감정의 존귀함을 강조하였고, 낭만주의 시인 실러(1759-1805)는 인간의 기본적 감정을 억압하는 관습과 사회제도를 비판하였으며, 현실주의 작가 디킨즈(1812-1870)의 작품 전면에는 따뜻한 휴머니즘이 관통하고 있고, 프랑스의 낭만주의 작가 빅토르 위고(1802-1885) 역시 ‘불쌍한 사람들’을 따뜻한 시각으로 감췄던 휴머니스트였다. 또한 19세기의 러시아 작가들도 거의 대부분 강렬한 휴머니즘을 지녔으니, 도스토예프스키(1821-1881)는 博愛를 인간의 본성으로 보았고, 톨스토이(1828-1910)의 휴머니즘은 주로 러시아의 수많은 고통 받는 농민에 대한 절절한 동정심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역사적 배경과 사회조건 하에서 휴머니즘을 고취하고 제창하였으며,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억압되는 사회제도와 사상에 대해 비판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였고, 그럼으로써 인류사회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그들의 작품은 인류가 공유할 수 있는 古典으로서, 인류전체의 위대한 정신적 유산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조설근 역시 세계적 대문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18세기 중국의 위대한 휴머니스트 작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紅樓夢》에 나타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추구는 覺醒된 인간으로서의 주인공 賈寶玉과 그에 의해 봉건제도와 사상에 물들지 않은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발견되어 陽地에 드러내어진 ‘여러 여자’들의 사고와 행적을 중심으로 하면서, 작품의 세 가닥 줄거리를 따라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다.

세 가닥의 줄거리 가운데 ‘가보옥의 人生歷程’이라는 줄거리에는 가보옥과 부친 賈政의 갈등이 비교적 뚜렷한 흐름을 보이면서 전개되고 있는데, 작자는 이를 통해서 개인의 자유의지가 家父長的 權威에 의해 어떻게 억압당하는 가를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자유와 개성해방의 염원을 담았다.

또 하나의 줄거리인 ‘가보옥과 임대옥의 애정비극’에서는 인간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인 남녀 간의 사랑이 封建禮敎의 틀에 갇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비극으로 결말 지워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줌으로써, ‘혼인과 애정의 부자유’를 비판하여 人欲이 억압되는 현실을 고발하였다. ‘가보옥과 임대옥의 애정비극’은 《紅樓夢》의 독자들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기는 스토리인 만큼, 독자들은 그들의 애정비극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것을 억압하는 현실의 부당함에 분노하고, 封建禮敎의 人性 억압이라는 근원적인 문제에 접근하게 된다. 더구나 작자는 그들 간의 사랑에 봉건

질서 하에서의 반항아적 사상적 동질성까지 부여함으로써, 중국고전소설사상 애정 묘사의 境界를 한 단계 끌어 올렸다고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

또 다른 하나의 줄거리인 ‘여러 여자들의 이야기’에서 작자는 男尊女卑사상에 기인한 여성차별에 대한 비판과 봉건등급제에 기인한 尊卑貴賤의 신분상의 차별에 대한 비판을 통해 平等思想을 발현시키고 있다. 男尊女卑사상에 기인한 여성차별에 대한 비판은 차별로 인해 빚어지는 여성들의 고통을 묘사한다는 부정적 측면보다는 주로 賈府내의 귀족아씨들이 지닌 才能과 人格에 대한 긍정적 묘사를 통해 가해지고 있다는 점 또한 《紅樓夢》에서 찾아볼 수 있는 두드러진 특징이다.

신분차별로 인해 빚어지는 불평등은 주로 賈府내의 하녀들을 통해서 비판되고 있는데, 당시로서는 최하층에 위치한 그녀들이지만 조설근의 붓끝에서는 대부분 자유와 독립을 추구하는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작품의 결말 부분으로 가면서 그녀들은 거의 대부분 비극적 운명을 맞게 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작자가 가하고자 하는 불평등에 대한 비판을 어렵지 않게 감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세 가닥의 줄거리를 통해 살펴본 《紅樓夢》의 휴머니즘은 사회전반의 제 현상에 두루 미쳐있지는 않으며, 주로 귀족대가정내의 일상사 가운데서 빚어지는 인간성 억압에 대한 비판에 치중되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느 한 측면에 국한되지 않는 광범위성을 지닌다는 점과 내용면에서 각각 ‘個性解放의 요구’, ‘人欲의 긍정’, ‘평등사상의 발현’ 등으로 나뉘어 조망되고 있기는 하나,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억압하는 사상과 제도에 대한 근원적 비판이라는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다.

이처럼 인간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紅樓夢》에 대해서 최근 중국 인문학계의 거장인 劉再復교수는 《쌍전(雙典) - 삼국지와 수호전은 어떻게 동양을 지배했는가》라는 책에서 《三國志》와 《水滸傳》을 비판하면서, “나는 《紅樓夢》을 왕양명 이후에 등장한, 가장 위대하면서도 정서적인 분위기를 갖춘 心學으로 본다. 이 심학은 유일무이한 영적 표상인 가보옥을 창조해 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으로 구성된 지극히 아름다운 영혼의 체계를 창조했다. 그 때문에 《紅樓夢》은 이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영적인 우주를 이뤘다고 할 수 있다.……문학이 영혼의 작업이라고 한다면, 중국고전소설에서 영적인 햇불을 진정으로 높이 든 것은 조설근의 《紅樓夢》이었다”⁸⁵⁾라고 극찬하였으며, “《紅樓夢》은 중국 대지 위에서 생산된, 인간과 관련된 위대한 깃발이었다.”⁸⁶⁾라고 하여 비인간적인 사회와 비인간적인 문화를 비판한 旗幟로서의 《紅樓夢》의 위상을 정확하게, 그리고 높게 자리매김하였다.

85) 류짜이푸 지음, 임태홍·한순자 옮김, 《쌍전雙傳-삼국지와 수호전은 어떻게 동양을 지배했는가》(서울: 글항아리, 2012), 한국어판 서문 7쪽.

86) 위의 책, 62쪽.

劉再復는 또한 시인이자 작가인 聶紺弩가 《紅樓夢》에 대하여 “《紅樓夢》은 인간의 책이다. 인간을 발견한 책이고, 사람들이 인간 속에서 인간을 발견하는 책이다.”⁸⁷⁾라고 한 말을 인용하면서 깊은 공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오늘날 중국의 지성들도 느끼고 공감하는 바와 같이 《紅樓夢》은 ‘인간’의 문제에 집중한 ‘인간의 문학’이라는 점에서 위대하다.

4.1.4 소설이라는 형식이 지니는 호소력

《紅樓夢》의 시대가 비록 사상적·문학적으로 암울하기는 하였으나, 조설근은 시대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前代로부터 이어받은 문학적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과 함께 미래사회를 향한 염원을 《紅樓夢》이라는 소설을 통해 담아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그의 사고는 명말청초의 계몽적·진보적 사상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으며, 당시로서는 봉건체제와 봉건사상에 저항하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異端적인 것이었다. 더욱이 《紅樓夢》은 文字獄이 횡행했던 건륭 연간에 창작되었으므로 《紅樓夢》에 나타나고 있는 저항의식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명말청초에 비하여 다분히 약화되었고 수면 아래로 伏流하고 있다. 당시의 삼엄했던 시대적 상황과 함께 조설근이 사상가가 아닌 소설가라는 점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비록 조설근은 명말청초 계몽 사상가들의 진보적·개혁적 사상을 진일보로 계승하고 강화시키지는 못했지만, 소설이라는 형식을 통해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사상을 훨씬 설득력 있게 파급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에 눈을 떴던 명말청초 계몽사상가들의 진보적 사상이 《紅樓夢》에 사상적 깊이를 부여하였음과 동시에 그들의 사상이 《紅樓夢》을 통해 형상화됨으로써 광범위한 계층에 파고들 수 있었고, 그러면서 그들의 의식을 두드리는 강한 호소력을 지닐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설근의 《紅樓夢》은 인간이라는 旗幟를 높이 들어 올린 소설로서 사회변혁의 역할 또한 충실하게 해냈다고 여겨진다.

4.2 미래를 향한 간절한 외침

《紅樓夢》의 시대는 암울했다. 조설근이 살았던 때는 청 왕조의 봉건전제통치가 극에 달할 정도로 강력하였으므로 자연 인간은 봉건사상과 제도의 억압 하에

87) 위와 같음.

짓눌려 지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사회상황하에서 ‘存天理, 滅人欲’에 반대하며 한때를 풍미했던 명말청초의 계몽사조 역시 그의 시대에는 거의 맥이 끊어진 상태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명말청초 계몽사조의 최후의 문학적 계승자였던 조설근은 그러한 현실상황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작품 가운데 봉건예교와 제도에 의해 매몰된 인간의 문제를 굵은 뼈대로 삼아 이를 형상화시켰다. 그의 思考의 중심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상과 제도에 억눌린 시대의 공통된 문제의식인 ‘인간의 존엄성 추구’가 굳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암울한 시대상황 하에서 현실을 외면하거나 초월하려 하지 않고 누구보다도 현실을 직시하였고, 현실의 어두운 면에 대해 분개하였으며, 따라서 현실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紅樓夢》이라는 불후의 명작 안에 용해시켰다. 역설적이게도 “시대의 불행이 오히려 《紅樓夢》으로 하여금 더할 수 없이 귀한 역사적 가치와 문학적 가치를 드러내게 한 것이 아닐 수 없다.”⁸⁸⁾

그는 《紅樓夢》에서 覺醒된 주인공의 눈을 통하여 봉건체제에 물들지 않고 天賦의 人性을 지닌 참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들 중심의 스토리를 통해 개성해방을 추구하고 人欲을 긍정하며 평등사상을 발현시킴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추구는 현재에 속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결국 《紅樓夢》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그러한 바람과 추구는 더없이 값진 것일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紅樓夢》의 비극이 필연적인 것이며 만회할 수 없는 것이라 해도 그 안에 新生の 曙光이 배어”⁸⁹⁾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新生の 曙光은 바로 인간이 사상과 제도에 억압받지 않고 자유와 평등과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회의 도래를 꿈꿀 수 있게 해준다.

조설근은 피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심정으로 《紅樓夢》의 비극적 이야기를 써 내려갔다. 그는 작품 서두에 自題詩 한 수를 써넣어 “온통 황당한 말 투성이지만, 피눈물이 얼룩져 있도다! 모두들 작자더러 어리석다 하나, 누가 그 숨은 뜻을 헤아려 줄까?”라고 하여 피눈물로 작품을 써 내려 갔음을 직접 밝히고 있지 않은가? 그의 피눈물에는 현실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추구도 함께 담겨 있으며, 봉건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속절없이 무너져간 ‘참된 인간’들을 위해 애통해하는 심정이 배어있다.

88) 丁滄, <人文主義的閃光-《紅樓夢》의 定性與定位>, 《紅樓夢學刊》一九九七年增刊, 250쪽.

89) 汪道倫, <《紅樓夢》彼岸世界中的文化雛形(下)>, 《紅樓夢學刊》二〇〇一年 第四輯, 125쪽.

그리고 그의 애통해하는 심정은 미래를 향해 열려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는 “봉건제도와 봉건사회의 필연적인 몰락을 예견하고 그것이 안타까워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봉건제도와 봉건사회가 몰락하지 않고 지속되기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이며, 이미 죽거나 곧 죽을 이들을 위해 애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막 태어났거나 머지않아 태어날 이들을 위해 애통해하는 것이고, 과거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애통해하는 것이다. 그는 역사상 혹은 동시대의 뛰어난 인물들을 위해 애통해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손만대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 애통해하는 것이다.”⁹⁰⁾

그러므로 그의 애통해하는 심정은 미래를 향한 ‘외침’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조설근이 《紅樓夢》에서 아직 봉건사상에 물들지 않은 가보옥과 소녀들에게 따뜻하고 동정어린 시선을 보낼 때는, 아마도 그들이 그들의 부모처럼 봉건사회에 매몰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함께 그들을 구하고자 하는 바람이 밑바탕 되었을 것이다. 마치 5.4시기의 魯迅이 《狂人日記》에서 “아이들을 구하자(救救孩子)”라고 외쳤던 것처럼, 조설근은 《紅樓夢》에서 “청년들을 구하자(救救青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미래는 아이들과 청년들의 현재가 아니겠는가? 혹은 그러한 외침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여 이는 ‘중국 中世紀의 終結이자 新世紀의 시작을 선포한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⁹¹⁾

봉건사상과 제도에 대항하여 인간의 문제에 관심과 사고를 집중시키고, 이를 뛰어난 작가적 역량으로 문학작품에 투영시킨 조설근은 이처럼 근대적.계몽적 사상의 소유자였으며, 그의 《紅樓夢》은 근대적.계몽적 의의를 지닌 작품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따라서 論者들이 그를 가리켜 “中國封建史의 終結이자 近代史紀元의 시작은 위대한 인물로 상징되는데 그가 바로 18세기의 曹雪芹이다. 그는 비록 封建史 최후의 문학가는 아닐지라도 近代史 최초의 문학가이다.”⁹²⁾라고 한 것이나, “중국문학사상 曹雪芹의 지위는 이태리 문예부흥초기의 단테와 유사하다. 그는 舊時代 최후의 인물임과 동시에 新時期 최초의 위대한 문학가이자 사상가이다.”⁹³⁾라고 평가한 것은 결코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紅樓夢》이 지니는 이러한 근대적.계몽적 의의는 당시로서는 크게 빛을 발하지 못하였다. 중국은 사상적인 면에서나 문학적인 면에서 조설근의 시대 이후로도 오랫동안 어둠속에 갇혀 있었으므로, 이 위대한 선각자의 외침은

90) 楊光漢, <論《紅樓夢》의 歷史容量>, 《紅樓夢學刊》一九八四年 第二輯, 33쪽.

91) 張錦池, <論紅樓夢的三世生命說與兩種聲音>, 《中國古典小說心解》(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2000), 444쪽.

92) 丁滄, <人文主義的閃光-《紅樓夢》的定性與定位>, 250쪽.

93) 程代熙, <《紅樓夢》與十八世紀歐洲文學>, 《紅樓夢研究集刊》第二輯(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0), 74쪽.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채 고독한 외침으로 남겨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紅樓夢》의 작자 조설근의 외침은 더욱 간절할 수 밖에 없다.

비록 《紅樓夢》의 이러한 사상적·문학적 정신은 멀리 5.4시기의 신문학운동기의 사상가와 작가들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호응되지만⁹⁴⁾, 그의 외침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先聲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인간의 미래를 지향했던 《紅樓夢》의 근대적·계몽적 정신이야말로 세계적으로 동일한 흐름을 지니고 있는 18세기 문학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18세기 문학이 지향하는 바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대단히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5. 결 어

18세기의 유럽에는 몽테스키외(1689-1755)·볼테르(1694-1778)·루소(1712-1778) 등과 같은 계몽사상가가 있었고, 18세기의 중국에는 조설근이 있었다. 조설근은 물론 그들과 같은 사상가는 아니었지만 문학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표출했던 문학가인 동시에 사상가였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의 계몽 사상가들과 조설근은 18세기라는 동시대를 살았으면서도 각각의 입지는 크게 달랐다. 유럽의 계몽 사상가들은 근대과학과 합리주의 철학 등의 영향 하에 인류사회의 진보를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던 반면, 전제정치가 극에 달했던 淸 乾隆기에 살았던 조설근은 질식할 것 같은 사상통제와 인간성을 억압하는 봉건제도 하에서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이해받지도 못할 사회의 진보를 향한 고독한 외침을 意識의 內面으로 가라앉히면서 창작을 통해 그 일단을 드러내 보일 수밖에 없었다.

조설근의 계몽적·진보적 사상은 자신이 살면서 경험했던 현실생활을 題材로 한 《紅樓夢》을 통해서 예술적으로 형상화되었으며, 작자의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학식으로 인하여 《紅樓夢》이 涉及하고 있는 세계는 놀랄 만큼 광범위하다. 그러므로 《紅樓夢》은 ‘봉건사회의 거울’이자 ‘百科全書’라고 이야기될 만큼 18세기 중엽 중국의 사회상을 광범위하고도 여실하게 반영한 現實主義 文學의 최고봉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紅樓夢》은 가히 18세기 중국의 보고서라고 평가받아

94) 《紅樓夢》에서와 같은 봉건제도와 사상에 대한 심각한 비판은 5.4시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紅樓夢》의 시대로부터 중국신문학운동기에 이르기까지, 중국사회는 여전히 근대로 이행하지 못한채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다. 문학사상적으로 살펴본다면 《紅樓夢》에 보이는 것과 같은 봉건사상에 대한 비판과 휴머니즘정신은 魯迅의 《狂人日記》에서 비로소 찾아볼 수 있으며, 소설창작의 예술성 측면에서도 5.4시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맥이 이어진다. 이 점에 대해서는 石昌渝, 《中國小說源流論》(北京: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1995), 395쪽 참조.

마땅하다.

《紅樓夢》이 존재함으로 해서 오늘날의 독자들은 당시 중국의 제반 면모를 마치 살아 숨 쉬는 듯한 화면으로 포착할 수 있으며, 당시의 중국을 연구하려는 이들은 史料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유일무이한 소중한 자료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紅樓夢》에 묘사된 사회현상들은 작자의 사상 및 세계관에 의해 굴절된 것이므로 당시의 역사적 현실과 그대로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울’이나 ‘百科全書’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예술적 진실에 바탕 한 역사적 상징성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며, 그러한 예술적 진실성과 역사적 상징성이야말로 《紅樓夢》의 《紅樓夢》으로서의 가치를 규정해 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18세기 유럽의 계몽사상가들과 마찬가지로 歷史와 時代를 바라보는 曹雪芹 思考의 중심에는 ‘人間’이 자리 잡고 있었으므로 그는 인간성을 억압하는 모든 것들에 저항하여 인간의 자유·평등·존엄성을 추구하였으나, 18세기 유럽의 그들과는 달리 호응을 얻지 못한 채 그 혼자만의 고독한 소리죽인 ‘외침’으로 그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우리는 근대를 향한 서양의 전진과 중국의 후퇴라는 역사적 운명의 일단을 살필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曹雪芹은 현실생활의 本質을 깊이 있게 해부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시함으로써 역사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해 주는 위대한 작가로서의 소임은 다하였다고 여겨진다. 현실생활의 본질을 깊이 있게 해부하기 위해 그는 18세기 중엽 중국의 외형적 면모를 광범위하게 관찰하고 묘사하였으며, 그러한 외형에 자신의 계몽적·진보적 사상을 불어넣음으로써 미래를 추구하는 역사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18세기 중엽의 중국에서 창작된 《紅樓夢》에 스며있는 작자 조설근의 고독했고, 간절했으며, 숨죽였어야 했던 ‘외침’은 오래도록 대답 없는 메아리로 떠돌다가 5·4시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魯迅의 ‘외침’과 호응된다. 인간의 가치를 높이 들어 올렸던 5·4 시기에 비록 당시의 선구자들 모두에게 《紅樓夢》에 기탁한 조설근의 ‘외침’이 호응되지는 못하였지만, 미래를 향한 그의 간절한 ‘외침’은 미미하게나마 사람들의 의식 속에 각인되면서, 결국 봉건제도와 봉건사상을 청산하는 5·4 시기의 신문화운동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18세기를 위대한 ‘자부’의 세기라고 하였는가? 그러나 삼엄한 전제 정치 하에 있었던 중국의 18세기는 결코 ‘자부’의 세기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18세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위대한 ‘자부’의 세기일지도 모른다. 중국의 18세기에 조설근의 《紅樓夢》이 우뚝 서 있기 때문이다.

《紅樓夢》이라는 단 한편의 소설로 인해 중국의 18세기는 전 세계적으로 ‘계몽의 시대’라고 불리는 위대한 18세기의 도도한 흐름에 합류할 수 있게 되었다. 《紅

樓夢》은 서양이나 조선과 비교해도 결코 손색이 없는 '계몽'·'이성'·'인간성'을 표방하는 18세기 문학으로서, 또한 지배와 종속에 저항하며 미래를 추구하는 '인간의 문학'으로서, 세계문학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曹雪芹、高鶚著，中國藝術研究院紅樓夢研究所校注，《紅樓夢》，北京：人民文學出版社，1996.
- 陳大康，〈《紅樓夢》不是飛來峰〉，《紅樓夢學刊》一九八九年 第三輯.
- 程代熙，〈《紅樓夢》與十八世紀歐洲文學〉，《紅樓夢研究集刊》第二輯，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0.
- 大高岩 著、程鵬 譯，〈曹雪芹的近代思想〉，《紅樓夢學刊》一九八二年 第一輯.
- 丁淦，〈人文主義的閃光-《紅樓夢》的定性與定位〉，《紅樓夢學刊》一九九七年增刊.
- 馮其庸、李廣伯，《紅樓夢概論》，北京：北京圖書館出版社，2002.
- 高翔，《近代的初曙-18世紀中國觀念變遷與社會發展》，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2000.
- 郝俠君·毛磊·石光榮 主編의 《中西500年比較》，北京：中國工人出版社，1996.
- 侯外廬，《中國思想通史》，北京：人民文學出版社，1980.
- 侯外廬 엮음. 양재혁 옮김, 《중국철학사.중》，서울:일월서각, 1989.
- 胡文彬.周雷，《紅學叢譚》，山西：山西人民出版社，1983.
- 黃立新，〈明清婚姻自主的社會思潮與《紅樓夢》〉，《紅樓夢學刊》一九八八年第四輯.
- 霍國荅·霍紀平，《紅樓解夢》，北京：北京燕山出版社，1989.
- 翦伯贊，〈論十八世紀上半期中國社會經濟的性質一兼論《紅樓夢》中所反映的社會經濟情況〉，劉夢溪編，《紅學三十年論文選編·上》，天津：百花文藝出版社，1983.
- 李之勤，〈論鴉片戰爭以前清代商業性農業的發展〉，《明清社會經濟形態的研究》，上海：上海人民出版社，1957.
- 劉敬圻，〈《紅樓夢》主題多義性論綱〉，《紅樓夢學刊》一九八六年 第四輯.
- 劉夢溪，《紅樓夢新論》，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2.
- 〈傳統的誤讀〉，石家莊：河北教育出版社，1996.
- 〈論《紅樓夢》前五回在全書結構上的意義〉，《紅樓夢學刊》一九九七年第一輯.
- 〈《紅樓夢》與民族文化傳統〉，馬瑞芳、左振坤 主編，《〈紅樓夢〉奧秘解讀》，長春：吉林文史出版社，2004.
- 劉永成，〈論《紅樓夢》時代的租佃關係〉，《新建設》1963年 第11期.
- 石昌渝，《中國小說源流論》，北京：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1995.
- 譚立剛，《紅樓夢社經面面觀》，臺北：新文豐出版公司，1991.
- 唐富齡，《〈紅樓夢〉的悲劇意識與旋律美》，武漢：武漢大學出版社，2000.

- 汪道倫, <《紅樓夢》彼岸世界中的文化雛形(下)>, 《紅樓夢學刊》 二〇〇一年 第四輯.
- 王志良, 《紅樓夢評論選·下》, 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8.
- 蕭公權, 《中國政治思想史》, 臺北:聯經出版事業公司, 1983.
- 蕭一山, 《清代通史(一)》, 臺北:商務印書館, 1980.
- 楊光漢, <論《紅樓夢》的歷史容量>, 《紅樓夢學刊》 一九八四年 第二輯.
- 楊國章, 《人文傳統》, 北京:北京語言學院出版社, 1993.
- 俞平伯, 《脂硯齋紅樓夢輯評》, 香港:太平書局, 1975.
- 張錦池·鄒進先 編, 《中外學者論紅樓》, 哈爾濱:北方文藝出版社, 1989.
- 張錦池, <論紅樓夢的三世生命說與兩種聲音>, 《中國古典小說心解》, 哈爾濱:黑龍江人民出版社, 2000.
- 張俊, 《清代小說史》, 杭州:浙江古籍出版社, 1997.
- 張稔穰, 《中國古代小說藝術教程》, 濟南:山東教育出版社, 1998.
- 鐘明奇, <《紅樓夢》夢境描寫的傳統性與獨創性>, 《紅樓夢學刊》 一九九三年 第三輯.
- 周思源, 《紅樓夢魅力探秘》, 北京:文化藝術出版社, 1994.
- 朱淡文, 《紅樓夢論源》, 南京:江蘇古籍出版社, 2000.
- 김학주, 《중국문학사》, 서울:신아사, 1989.
- 류짜이푸 지음, 임태홍·한순자 옮김, 《쌍전雙傳-삼국지와 수호전은 어떻게 동양을 지배했는가》, 서울:글항아리, 2012.
- 마크 C. 엘리엇 지음, 이훈·김선민 옮김, 《만주족의 청제국》, 서울:푸른역사, 2009.
- 裴永東, 《明末清初思想》, 서울:민음사, 1992.
- 徐連達·吳浩坤·趙克堯 지음, 중국사연구회 옮김, 《중국통사》, 서울:청년사, 1989.
- 앨런 스윈지우드 著·鄭惠善 譯, 《文學의 社會學》, 서울:한길사, 1984.
- 田中正俊·表教烈 譯, <中共에서의 資本主義萌芽論>, 閔斗基編, 《中國史時代區分論》, 서울:創作과 批評社, 1984.
- 曹秉漢, <紅樓夢의 思想史의 分析>, 《서울大 東洋史學科論集》第9輯, 서울:서울大學教 東洋史學科, 1985.
- <紅樓夢의 社會史의 分析>, 《釜山史學》第11輯, 釜山:釜山史學會, 1986.
- 한국18세기학회 엮음, 《위대한 백년 18세기 - 동서문화 비교 살롱토크》, 서울:태학사, 2007.
- 高攸喜, <《紅樓夢》에 나타난 暗示에 관한 研究>, 中國小說研究會 編, 《中國

小説論叢 I 》. 서울: 도서출판 서울, 1992.

-----, <明末清初の 啓蒙思潮와 《紅樓夢》>. 《中國語文論叢》第7輯. 서울:中國語文研究會, 1994.

-----, <《紅樓夢》에 대한 페미니즘적 고찰>, 《中國語文論叢》第12輯, 서울:中國語文研究會, 1997.

-----, <《紅樓夢》에 반영된 18세기 중엽의 중국>, 《中國語文論叢》第16輯, 서울:中國語文研究會, 1999.

-----, <《紅樓夢》의 구성양상에 관한 연구>, 《中國語文論叢》第23輯, 서울:中國語文研究會, 2002.

-----, <《紅樓夢》에 나타난 휴머니즘 연구>, 《中國語文論叢》第25輯, 서울:中國語文研究會, 2003.

18세기 영국의 바다

-무역 열풍에 비친 마음의 풍경들-

김 번 (한림대 영어영문학과)

1. 무역 열풍과 해상제국 이데올로기

영국사에서 1688년의 명예혁명은 여러 모로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다. 그것은 신교도의 왕위 계승이 확립되어 구교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한편 절대 왕권이 현저히 약화되고 민의를 반영하는 의회가 국정 중심에 자리하면서 영국민의 자유가 옹골차게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종교적, 정치적으로 큰 변화의 기점이었다. 동시에 그에 못지않게 두드러지고 중대한 변화가 도도하게 일어났던 바, 그것은 바로 무역(trade) 열풍이었다. ‘재정혁명’이라 불리는 영국은행의 창설(1694)과 주식시장 설립으로 이어진 이 열풍은 공채(public credit)와 자본가(moneyed man)라는 혁신적 개념과 새로운 유형의 부—예컨대, 식민 사업에의 열광과 그에 따른 투기 붐—을 창출하며 본격 자본주의 풍조를 이끌며 18세기 동안 영국이 최대 제국으로 부상하는데 결정적 토대가 되었다.

우드(William Wood)는 명예혁명이 “영국민을 구교와 노예 상태에서 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자유인이라는 것과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세계의 알려진 어떤 지역과도 무역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¹⁾고 말한다. 여기서 그는 명예혁명을 통해 확보된 정치, 종교적 자유를 무역의 자유와 동치로 놓는데, 정치, 종교적 자유가 내부의 서로 다른 정파나 종파들 사이의 상호 인정과 관용을 뜻할 진대 해외 무역에서 같은 차원의 상호 관계를 운위할 수 있을는지 의심스럽다. 아닌 게 아니라 “무역의 이론은 군왕의 학문이며 무역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제국의 열쇠다”²⁾라는 우드의 또 다른 발언이나 “자국의 무역은 늘리고 상대국의 무역은 줄이는 법을 아는 것이 국가 정책의 요체”³⁾라는 로렌스(Richard Lawrence)의 금언은

1) William Wood, *A Survey of Trade* (London, 1718) 181면.

2) 같은 책 vi.

3) Richard Lawrence, *The Interest of Ireland in Its Trade and Wealth Stated* (Dublin, 1682) 9면.

무역이 곧 국사(affair of state)가 된 중상주의 유럽의 치열한 경쟁 상황을 웅변한다. 애디슨(Joseph Addison)은 천혜의 무역 조건을 갖춘 영국은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도 바다에서의 세력을 키울 수밖에 없고 옛 야만의 잔재를 지우고 문명화하기 위해서도 무역은 긴요하며 많은 인구에게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도 무역은 필수적일뿐더러 반란의 성향이 있다는 국민을 다스릴 치유책으로 무역보다 적절한 출구는 없다며 무역이 영국의 안전, 힘, 및 번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함을 역설했다.⁴⁾ 무역이 만사형통의 비방인 셈이다.

이렇듯 이 시기 무역의 압도적 초점은 대내 무역보다는 식민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외 무역에 있었고, 무역의 이런 대타성(對他性)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타자와의 조우에서 영국인의 자기 이해와 정체성 형성에 새로운 도전 혹은 시련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이 시기 영국인이 자기 정체성을 축조해간 방식을 살피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콜리(Linda Colley)는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하나의 국가로 합친 1707년의 통합령(Act of Union)부터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하는 1837년 사이에 대영제국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그 정체성 형성의 관건이 그 기간 동안 영국이 프랑스를 상대로 치른 일련의 전쟁이었다고 해석한 바 있다. 특히 “일단 명백하게 이질적인 ‘그들’과 맞닥뜨리게 되자 이제까지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졌던 공동체가 마음 든든한, 또는 그냥 필사적인 ‘우리’가 될 수 있었다”는 대목은 제국의 형성과 확장이 끊임없이 ‘타자’ 설정을 통한 자기규정의 메커니즘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잘 보여준다.⁵⁾

17세기 말에서 19세기 초까지 영국이 거의 쉴 새 없이 치른 프랑스와의 숭한 전쟁에 초기에는 종교적 갈등 같은 것이 게재되기도 했지만, 그 지속적인 본질은 엄연히 해외 식민지와 무역권의 팽창을 노린 무역 전쟁이었다. 역으로 말하면, 영국이 막강한 해군력을 앞세워 일련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도 식민지에서 거둬들인 막대한 이득과 영국 은행과 주식시장을 통해 조달한 천문학적인 군자금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요컨대, 해외 무역과 제국 건설은 서로 끌고 당기는 긴밀한 상호관계 속에 나란히 진행되었으니 그 과정에 ‘그들’과 ‘우리’를 가르는 문화적 헤게모니의 작업이 수반되는 것은 필연적이었다.

이처럼 크나큰 역사적 변화의 흐름에 당대인들이 어떤 시각과 태도로 대응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날 여러 갈등과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던가는 흥미롭고도 중요한 부분이다. 제국주의가 지배, 피지배의 권력 관계를 도드라지게 노정하는 만큼 제국

4) Joseph Addison, *The Freeholder*, No. 42, 14 May 1716. *Literature and the Social Order in Eighteenth-Century England*. ed. Stephen Copley, (London: Croom Helm 1984) 65-7면 참조

5) Linda Colley, *Britons: Forging the Nation 1707-1837* (Yale UP, 1992), 1-9면 참조. 인용문은 6면.

또는 식민지의 입장에 따라 또는 제국 내에서도 정치, 경제적 입지나 이해관계에 따라 시각과 논점이 첨예하게 상충될 수 있을 터이다.⁶⁾ 이 글은 그 복잡다단한 내역을 살피는 대신 새로운 정치, 경제적 질서를 합리화하는 쪽의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당대 문학의 주요한 예들을 일별한 다음 거기에 작동하는 이데올로기적 허구를 해상 제국의 신화에 매우 상반된 태도를 보인 디포(Daniel Defoe, 1660-1731)와 스위프트(Jonathan Swift, 1667-1745)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2. 해상 제국의 찬양

무역의 결실을 맛보는 너희 영국인들이여,
 너희의 섬은 얼마나 바람의 은혜를 입고 있는가.
 거기로 바람이 아라비아의 향기로운 진품을,
 인도 제도에서 보석, 진주와 향료를,
 페르시아에서 실크를, 이베리아 해안에서 포도주를,
 페루의 약재와 기니의 황금 노를 날려 보내지 않는가?
 바람 부는 모든 지역으로부터
 온갖 쾌락과 부가 아름다운 앤 여왕에게로 흘러드네.⁷⁾

『창조-철학적 시』(1712)라는 제목의 위 인용문에서 블랙모어(Richard Blackmore)는 세계 곳곳의 진귀한 산물이 바람을 타고 저절로 영국으로 흘러드는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실상 그 바람은 식민지에서 수탈한 물품을 가득 실은 대영제국 상선의 돛을 부풀려주는 바람이요, 은유적으로는 본국에서 일고 있는 대외 무역의 열풍에 다름 아니다.

나아가 포우프(Alexander Pope)는 영국에게 여러 식민지와 함께 크나큰 무역이권을 안겨준 유티레히트 평화조약(1713)을 찬양한『윈저 숲 Windsor-Forest』(1713)에서 해상무역을 통해 온 세계가 영국으로 수렴되는 환상적 비전을 품기도 한다.

가없는 템즈강이 온 인류를 위해

6) 휘그당이 무역을 옹호, 지지하고 토리당은 토지 기반 세력으로 무역을 시기하고 폄하했다는 통념이 널리 퍼져 있지만, 토리당 가운데서도 열성적 옹호자가 적지 않았다. 뒤에 가서 논하게 될 스위프트(Jonathan Swift)만 하더라도 그는 토지 세력인 토리당을 적극 지지했지만 동시에 무역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절감했고--특히 식민지 아일랜드의 삶을 겪으면서--또 중상주의 경제학을 기꺼이 수용했다.

7) Richard Blackmore, *Creation, A Philosophical Poem* (London, 1712), book II, 760-7행.

바다나 바람처럼 자유로이 흐를 때가 올지니라,
모든 나라가 제각각 불어나는 물결과 함께 들어오고,
바다는 자기 때문에 갈라진 지역들을 합쳐줄 뿐이라;
지상의 머나먼 끝에서도 우리의 영광을 볼 것이며,
신세계가 구세계를 찾아 나설지니라. (397-402행)

“가없는”, “자유로이”, “흐르다”, “합치다” 등의 낱말에서 거침없이 물 흐르듯 만국이 영국으로 모여 든다는 것이 강조되는 가운데 눈길을 끄는 건 여러 지역들을 서로 갈라놓는 바다가 무역 덕분에 영국을 중심으로 하나로 합친다는 진술이다. 여기 넘쳐흐르는 자유, 평화, 번영의 분위기도 군사 정복으로 건설된 로마 제국과 달리 영국은 자유무역을 통해 세계를 지배한다는 차별화가 깔려 있다. 하지만 유럽 열강이 식민지 확대와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숭한 전쟁도 불사한 역사적 정황을 고려할 때 여기서 찬양되는 자유무역은 그 과정에서 필시 있었을 지배와 종속 관계에 따른 갈등과 억압을 외면한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 시가 쓰여진 18세기 초면 이전까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주도했던 노예무역에서도 영국이 최대 무역국으로 부상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노예의 흔적을 아예 찾아볼 수 없고 영국을 중심으로 한 만국의 평화와 번영(Pax Britannica)만이 넘실거리는 것은 이데올로기적 왜곡이 강하게 작용한 때문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왜곡의 양상을 살핌에 있어 『원저 숲』이 특정 장소의 지형을 기술하면서 그 장소에 연관된 역사적 사연을 정치적 명상의 형태로 제시하는 지형시(地形詩, topographical poem) 양식을 취한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Windsor Forest 는 그 사이로 템즈강이 흐르는 런던 근교의 국왕 사냥터로 자연 풍광이 빼어난 곳으로, 시인이 그 풍광을 두루 살피며 명상하는 곳이 국왕의 사냥터라는 사실부터가 이 시의 정치적 정향(定向)을 짐작케 한다. 가령, 해외무역에 따르는 폭력은 특정 국왕이 사냥터에서 꿩, 노루 같은 동물을 사냥하는 일, 즉 자연(스러운 일)에 빗대어 표현됨으로써 폭력은 전치(傳置)되고 사상(捨象)된다. 같은 방식으로 인용문에서는 표표히 자유로운 바닷바람만이 보일 뿐 그 바람을 인위적으로 지배하는 영국 상선과 함선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원저 숲 사이를 흐르는 템즈 강물이 오대양까지 이어져 자유롭게 흐른다지만 실은 템즈강에서 출발하여 대양을 누빈 영국 상선과 군함은 자연이 갈라놓은 지역들을 제국주의의 인위적 폭력으로 더욱 크고 깊게 갈라놓았을 뿐이다. 그 이데올로기의 허구는 바닷물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른다고 강변하듯 신세계가 구세계를 찾아 나선다는 역사적 사실을 정면으로 뒤집은 진술에서 정점에 이른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시에 제시된 자연 풍경은 거기에 그곳과 연관된 영국 정치사의 곡절과 그에 대한 시인의 주관적 해석이 덧씌워져 있는 만큼 그저 자연스러운 자연 풍

경일 수 없다. 거기엔 시인 개인의 그리고 시인이 속한 토리(Tory) 보수 세력의 정치적 세계관이 짙게 투영되어 있고 시의 묘미도 거기에 있다. 요컨대, 시인은 일관되게 자신의 제국주의적 시각을 자연에 덧씌우되 그 덧씌움이 가능한 보이지 않도록 제국주의의 정치, 군사적 양상을 목가의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풍경으로 번역한다. 이렇게 자연 풍경 위에 덧씌워지거나 투영된 바를 자연 풍경과 구별, 대조하여 마음의 풍경(mindscape)이라 칭하고자 한다. 정치와 문학이 스스럼없이 서로 넘나들었던 당대의 정황을 고려할 때 18세기 영국문학에 나타나는 자연 풍경은 거개가 작가의 정치적 지향이 비친 마음의 풍경이라 할 수 있다. 자유롭고 호혜적인 무역에 따른 조화로운 세계의 비전은 자연과 자연스러움을 빙자하여 노예무역을 포함한 영국 제국주의의 추악한 폭력을 지운다는 점에서 바다에 투영된 시인의 환상적 소망, 다시 말해 “자연화된 환상(naturalized fantasy)”⁸⁾이라 할 것이다.

처음에 영국이 하늘의 명령에 따라
푸른 대양에서 솟았을 적에
그 땅의 헌장(憲章)이 이리했고
.수호천사들도 이 가락을 노래했네
“영국이며, 지배하라, 해양을 지배하라,
영국인들은 결코 노예가 되지 않을지니라.”

.When Britain first, at heaven's command,
Arose from out the azure main
This was the charter of the land,
And guardian angels sung this strain:

“Rule, Britannia, rule the waves:
Britons never will be slaves.”
(James Thomson, ‘Ode : Rule, Britannia’, 1st stanza)

해상제국의 위용을 자랑스럽게 노래하는 비공식 애국가로 널리 애송된 시(1740)에서 톰슨은 영국의 정체성을 바다의 지배로 자리매김한다. 육지와 달리 바다는 제약이 없고 무정형의, 그래서 자유로운 공간으로 설정된다. 무역의 전제 조건이 자유이기에 자유 무역은 물 흐르듯 자유로운 바다를 통해야 하고 바다를 통한 자유 무역에 의해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영국의 천명(天命)으로 규정된다. 여기서 우리는 영국, 무역 및 바다가 자유를 핵심 고리로 불가분의 삼위일체를 이룬다는 해상

8) 브라운의 용어를 차용한 것이다. Laura Brown, *Alexander Pope* (Blackwell, 1985) 8면.

제국 이데올로기의 문학적 전형을 선연히 목도한다. 한데, 핵심 고리인 자유는 노예일 수 없다는 부정의 형태로 표현된다. 포우프에게선 볼 수 없던 노예라는 말이 등장한 것은 주목할 만하지만, 이 열광적인 찬가에서 영국인들이 스스로의 변별적 특성으로 꼽는 자유가 부정의 형태로 표현되는 것은 어딘가 수상쩍다. 노예가 되지 않을 자유를 전경화하고 힘주어 말하는 데는 타국을 지배하고 타자를 노예로 삼는 현실을 숨기려는 심리가 은밀하지만 강력하게 들끓고 있지 않는가. 특히 큰 울림을 자아내는 후렴구 2행의 운(rhyme)—waves와 slaves 사이—은 거친 파도를 지배하는 힘이 곧 타자의 노예화라는 것을 숨기면서 동시에 은연중 까발린다고 하겠는데, 신성(神性)을 체화한 듯한 화자의 목소리는 그런 식으로 꼬치꼬치 묻고 따지는 것을 목살하듯 웅장하기만 하다.

3. 로빈슨 크루소와 바다

디포는 영국의 시대정신과 나아갈 바가 상업과 무역에 있다는 것을 투철하게 자각했고, 『로빈슨 크루소』(1719)는 서구 자본주의 식민지 개척의 원형적 과정을 여실하게 묘파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진취적 개척 정신으로 자신의 세계를 이루어 가는 크루소의 담대한 의지와 가열한 에너지에서 보듯 최초의 영국 소설로 꼽히는 이 작품은 사회현실을 수동적으로 반영한다기보다는 중간계급(middle class)의 열망과 결의,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한 자질로 주어진 환경에 대한 합리적 지배력과 끈질긴 생존력을 통해 새로운 현실을 발견하고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자연에 맞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의 열망과 의지가 어떻게 작용하고 그 가운데서 자연에 투영되는 상상력의 무늬를 바다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살펴볼 것은 크루소가 바다로의 모험에 나서는 동기인데, 그것은 집과 바다(home vs. sea)의 뚜렷한 대조의 틀 속에서 제시된다. 그는 아버지가 간곡하게 설파하는 중간계급의 안정된 삶을 마다하고 바다로 나서는 이유를 어떤 불가항력의 힘에 속수무책으로 끌리는 것으로 표현한다. 마치 자석에 끌리는 쇠붙이처럼 그는 바다의 매혹/부름(the call of the sea)에 사로잡힌다. 바다로 나서는 일은 한편으로 집에 머무는 삶의 안정과 뚜렷이 대별되어 부정적으로 인식되지만 다른 한편으론 집으로 표상되는 정착(settlement)의 제약과 그에 따른 매이고 갇힌 답답함을 벗어나는 자유와 기회를 매혹적으로 환기한다. 그는 우연히 나선 첫 항해에서 엄청난 폭풍을 만나 아버지의 충고를 거역하고 바다에 나선 일을 뼈저리게 후회하면서도 얼마 후 파도가 잠잠해지면 그 후회는 온데간데없고 다시 바다를 즐기고 탐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 마디로, 폭풍이 잦아들며 수면이 다시 잔잔하고 평온해지자, 다급했던 생각들도 사라지고 바다에 삼켜질 거라는 두려움과 걱정도 잊고 이전의 욕망의 물결이 다시 밀려들면서, 나는 비통한 상태에서 했던 맹세와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렸다.⁹⁾

몹시도 사납게 일었다가는 얼마 후 언제 그랬냐는 듯 잔잔해지는 파도의 변덕스런 리듬에 반비례하여 크루소의 욕망이 잠잠해졌다가 다시 거칠게 솟구치는 모습을 보노라면 파도타기를 즐기는 'surfer' 같기도 하다. 아닌 게 아니라 바다 물결과 놀이하듯 엉겨 붙는 그의 욕망도 '물결(current)'로 표현되는 바, 이는 크루소의 욕망이 바다에 투사되는 밀도와 강도를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바다가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거역할 수 없는 매혹으로 다가드는 것은 개척되지 않은 무정형의 신천지로서 개척에 성공할 경우 따라오는 막대한 부와 개인적 위세의 상승 때문일진대 바다는 거기에 일신을 투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투자처인 셈이다.

이 중 두 번째 파도에는 거의 죽을 뻔했으나, 이전처럼 바다가 나를 앞으로 황급히 몰고 가 어느 바위에다 내려놓는데, 아니, 냅다 던져놓는데 얼마나 충격이 션는지 정신이 나가 구출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태라, 옆구리와 가슴에 닥친 충격에 말하자면 몸에서 숨이 다 빠져버린 꼴이었으니, 만약 파도가 즉시 다시 돌아왔다면 나는 물살에 목이 졸리고 말았을 테지만, 파도가 다시 밀려오기 전에 조금 정신을 차려 다시 물살에 휩싸일 형국임을 알고, 바위를 꼭 붙잡고 매달려 파도가 물러갈 때까지 숨을 멈추고 버텨보기로 작정했는데, 물에 더 가까운 곳이라 그런지 마침 이 파도가 처음처럼 그리 높지 않아, 숨을 멈추고 파도가 수그러지기를 기다렸다가 또 다시 달음질치자 해안에 제법 다가갔는지, 다음 파도가 머리 위로 덮치긴 했으나 뒤로 끌고 갈 만큼 나를 삼켜버리진 못했고, 그 틈에 한 번 더 내달리자 물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고 해안 바위벽을 기어 올라가 풀밭에 주저앉았으니, 그 제서야 나는 위험에서 벗어나, 바다의 손아귀가 아예 닿지 않는 곳에 닿은 것이었다. (45-6면)

The last Time of these two had well near been fatal to me: for the Sea having hurried me along as before, landed me, or rather dash'd me against a Piece of a Rock, and that with such Force, as it left me sense-less, and indeed helpless, as to my own Deliverance: for the Blow taking my Side and Breast, beat the Breath as it were out of my Body; and had it returned again immediately, I must have been strangled in the Water;

9) Daniel Defoe, *Robinson Crusoe* (Oxford UP, 1972) 9면. 앞으로 이 책에서의 인용은 본문 속에 면수만 표시함.

but I recover'd a little before the return of the Waves, and seeing I should be cover'd again with the Water, I resolv'd to hold fast by a Piece of the Rock, and so to hold my Breath, if possible, till the Wave went back; now as the Waves were not so high as at first, being nearer Land, I held my Hold till the Wave abated, and then fetch'd another Run, which brought me so near the Shore, that the next Wave, tho' it went over me, yet did not so swallow me up as to carry me away, and the next run I took, I got to the main Land, where, to my great Comfort, I clamber'd up the Clifts of the Shore, and sat me down upon the Grass, free from Danger, and quite out of the Reach of the Water.

브라질에서 대농장주(planter)로서 착실하게 세를 키워가던 크루소는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기 위해 노예를 사오라는 동료들의 솔깃한 제안에 넘어가 항해에 나섰다. 거대한 폭풍에 휩쓸려 난파하고 마는데, 인용문은 바다에 내던져진 그가 무시무시한 파도를 헤치고 간신히 무인도에 안착하는 과정을 기술한다. 자신을 삼킬 듯 험악한 파도를 천신만고 끝에 헤쳐 나오는 과정이 하나의 매우 긴 문장에 숨넘어갈 듯 다급한 호흡으로 꿰어진 것이 돋보이는 가운데, 서술의 흐름은 엄청난 기세의 파도에서 그 파도를 강인하게 극복하는 주인공의 행동으로 이동한다. 술한 동사들이 처음에는 파도를 주어로 하여 그를 피동의 대상으로 기술하다가 구문의 긴박성이 조금 느슨해지는 틈을 타서 주인공에게로 넘어가 그는 객체에서 주체로 화하고 상황을 통제한다. 디포의 스타일이 잘 드러나는 장황한 문장 속의 이런 기술 방식은 그의 상상력이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가령 문장 속의 명사들은 자체의 힘과 특성을 갖춘 튼실한 실체라기보다는 주인공 '나'가 대응해야 할 것들, 즉 '대상'으로서 거기 그렇게 축적될 뿐이다.¹⁰⁾ 그의 상상력은 개인이 적대적인 환경에 주도적으로 적극 대응하여 마침내 자신의 행동을 통해 그것을 극복하는 데로 쏠린다. 이런 인식의 패턴은 바다뿐만 아니라 야만인 타자를 조우하는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각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장선상에서 그는 세상도 개인이 맞서 행동하여 제압해야 할 하나의 대상으로 여긴다.

나는 불행히도 신학 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했으니, 우리 아버님의 훌륭하시니 가르침을 통해 얻은 교훈들도 8년간 지속적으로 배를 타며 사악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오

10) 이글턴은 디포의 이런 스타일을 자본가가 자본을 굴려 이윤을 축적하는 것에 비겨 설명하기도 한다. Terry Eagleton, *The English Novel: An Introduction* (Blackwell, 2005) 30면 참조.

직 나와 동급으로 지극히 사악하고 불경스런 축들과만 계속 사귀다 보니 모조리 닳아 없어져 버린 터라, 이 세월 동안 내내 내가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내 안을 들여다보며 내 행동을 반성하는 쪽으로 생각을 돌려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반대로 일종의 영혼의 마비 상태가 내 자신을 완전히 압도해서 선에 대한 욕구나 악을 가려내는 양심도 없었으니, 나는 보통의 뱃사람들 가운데서 흔히 보듯, 가장 매정하고 무모하고 사악한 작자들처럼 위험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위험에서 구출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이 없었다. (88면)

크루소가 느끼는 죄의식과 회개는 야만인을 포함한 타자에 대한 자신의 행동이 아니라 아버지의 충고 및 일반의 상식을 거슬러 바다 모험에 나선 자신의 고집스럽게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것이다. 그 죄가로 절해고도에서의 철저한 고립과 거기 따르는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그는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기 위해 눈길을 위로 들어 올려 하나님을 구하고 또 자아의 내부를 탐색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과 그에 대한 반성은 어긋나기 일쑤인데, 그 양상은 혼자 무인도에 표착해 간신히 빠져나온 바다를 볼 때 그의 눈에 포착된 짝이 안 맞는 신발 둘 (two Shoes that were not Fellows, 46)과도 같다. 익사한 선원들의 서로 다른 신발 한 짝씩은 그에게 쓸쓸한 페이소스를 불러일으키지만, 크루소가 동료 선원은 물론 주변의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인간적인 감정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인물임을 고려하면 이는 오히려 자기 성정의 엇갈리는 두 부분, 즉 견잡을 수 없는 욕망과 그에 대한 죄의식 사이의 고질적인 불일치 또는 분열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의 과도한 욕망과 그에 대한 죄의식에서 비롯된 회개는 Sunday religion처럼 서로 무연하게 움직일 뿐이다.¹¹⁾ 이를 두고 이글턴은 껌을 씹으며 걸어가는 두 개의 동작을 동시에 할 수 없는 열간이 같다고 익살스럽게 지적한다.¹²⁾

아울러 눈여겨 볼 것은 크루소가 스스로의 기술적 합리성과 억척스런 의지로 주위 환경을 극복하여 건설한 개인 왕국이 동시에 절대 고립의 감옥으로 인지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은 그가 무인도 체류 15년 차에 해변 모래밭에 찍힌 사람의 맨발자국을 보고 극도의 공포에 휩싸이는 유명한 에피소드에서 극적으로 표출된다. 그 자신 오래도록 외로움에 떨었건만 사람 발자국을 보고 희열에 넘쳐 반기지 않고 오히려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스스로의 반응에 의아해마지 않는다. 투철한 자본주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부의 축적에 몰두한 삶이 스스로의 인간성을 물화하여 소외시켰음은 “너와 나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패여 있다” (Between me and thee is a great Gulph fix'd, 128)는 대목에서 잘 드러난다. 절해고도에 혼자 버려졌다는 외로움과 불안을 자신의 안전과 물질적 안락을 담보하는 성(城)과 왕국

11) 작품의 다른 곳에선 이런 갈등 혹은 분열상이 이성과 공상 사이의 어긋남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12) Terry Eagleton. 앞의 책 30면.

건설에 몰두함으로써 달래며 잊으면서도 그는 삶과 존재의 근원적 의미에 부닥칠 수밖에 없고 그 때마다 청교도 후예답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다. 그러나 지극히 간절해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의지(依支)도 사람 발자국 앞에서 어이없게 허물어진다. 크루소는 시계추처럼 끊임없이 양극단을 오갈 뿐 듄직한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한다. 그 이유는 앞서도 지적한 대로 하나님에의 귀의와 그의 못 말리는 욕망이 따로 놀기 때문이다. 그의 불안과 외로움은 무엇보다도 타인들과의 인간관계—상호 이해와 신뢰가 수반된—를 통해 해결되어야 하건만 자본주의 정신과 체제는 모든 타인을 경쟁 상대 혹은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하게 만든다. 그가 마침내 얻은 금요일(Friday)을 좋아라 하고 사랑한다고도 말하지만 그것은 엄연히 주인과 종 사이의 엄격한 위계 관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일 뿐이란 점에서 심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요컨대, 그는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인간관계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관계로 해소하려고 하는 바, 이는 앞서 살펴본 포우프와 톰슨의 경우처럼 이데올로기적 허구를 통한 문제 해소의 어설픈 시도와 다르지 않다. 결국, 크루소가 건설한 제국은 “망망대해의 영원한 창살과 자물쇠로 꽂꽂 묶인 죄수”(a Prisoner lock'd up with Eternal Bars and Bolts of the Ocean (113)의 고립을 대가로 치른 것이라 하겠다.

4. 스위프트의 바다

가능한 모든 점에서 디포와 대척점에 섰던 스위프트가 어떤 심경으로 어떤 표정을 지으며 『로빈슨 크루소』를 읽었을까를 상상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걸리버 여행기』는 그 가상의 여행기 형식을 포함해 여러 면에서 『로빈슨 크루소』에 대한 패러디의 성격을 띠는 만큼 양자 간의 비교대조는 긴요하다. 우선 걸리버는 중간계급 출신의 실용적 성향의 인물로 크루소와 유사하면서도 성격과 행동방식은 사뭇 다르다. 크루소가 타자와 주위 환경을 제압하려는 자기중심적이고 공격적 경향을 강하게 지니는 반면 걸리버는 어리숙하고 고지식하여 방문한 나라의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지배층에게 아부하는 모습을 보일 만큼 그곳의 삶의 방식에 적응하려고 애쓰는 등 타자와 그 문화에 다분히 순응적이다. 크루소처럼 걸리버도 바다에 강하게 이끌리지만 그의 항해나 표류는 극히 간명하게 처리되어 형식적인 느낌이 짙다. 가령, 그는 첫 방문국 릴리펫(Lilliput)에 당도하는 과정을 기술하면서 첫머리에 밝히기를 “몇 가지 이유로 내가 그 해역에서 겪은 모험을 시시콜콜하게 주워섬겨 독자를 성가시게 하는 것은 온당치 않을 것이다”(It would not be proper for some Reasons, to trouble the Reader with the Particulars of our Adventures in those Seas, 4)라고 하는 바, 이는 『로빈슨 크루소』를 포함

하여 실제 여행기임을 힘주어 주장하고 그 주장을 입증하듯 자질구레한 사실들을 잔뜩 늘어놓는 당대 여행기의 전형적 행태를 조롱하는 셈이다. 게다가 걸리버는 크루소처럼 폭풍과 거센 파도에 맞서 악전고투를 벌이지 않는다. 그냥 운명으로 여기고 파도에 몸을 맡겼더니 어느덧 물에 닿았더라는 식이다.

한층 넓은 맥락과 차원에서 비교하자면, 『로빈슨 크루소』가 외딴 섬에서 갖가지 역경을 이겨내는 놀라운 생존력을 보이며 그 섬을 자신의 제국으로 구축해가는 주인공의 용기, 기지 및 재능을,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반면 『걸리버 여행기』는 자본주의적 욕망과 그 확장판이라 할 제국주의적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넘어 당대의 인간성 자체에 대해 가열한 매도를 퍼붓는다. 두 작품의 결말은 이러한 차이를 한층 선명하게 극화한다. 개선장군처럼 영국에 돌아온 크루소가 세상을 “살만 한 멋진 곳”으로 여기는 반면 걸리버는 가족을 포함해 주변 사람들을 역겨운 야후로 여겨 접촉 자체를 거부하고 마구간에서 말들과 담소하는 것을 낙으로 삼는다. 세상과 삶에 대한 태도가 긍정과 부정의 극단을 치닫는다고 하겠다.

크루소와의 이 크나큰 간극은 상당 부분 타자를 대하는 걸리버의 태도와 방식에 기인한다. 그는 특유의 수동성과 고지식함 때문에 네 방문국을 돌면서 서로 다른 갈등과 곤경을 겪는다. 1, 2부에서 그가 마주치는 릴리펏인과 브롭딩낙(Brobdingnag)인은 각기 그보다 12배 작고 크다. 해서 그는 릴리펏인에게는 브롭딩낙인이 되고 브롭딩낙인에게 릴리펏이 된다. 그러니까 그는 자체로는 소인도 대인도 아니지만 여기서는 대인이고 저기서는 소인이 되는 정체성의 현기증을 겪는다. 마지막 4부에서 걸리버는 휘눔과 야후의 극명한 대조상에 치명적으로 맞닥뜨린다. 그는 야후를 혐오하고 휘눔을 우르려 본받고자 한다. 그러나 그는 옷을 걸치고 피부가 부드럽고 희며 “계속해서 두 뒷다리로 걷는 나의 시늉”(209면)을 빼면 본질에서는 자신과 야후가 같다는 것을 안다. 그것을 알기에 그는 더욱 기를 쓰고 차별화하려 든다. 먹을 감던 중 욕정이 발동한 암야후의 습격을 받고 자신의 야후성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된 후에도 그는 야후를 경멸해 마지않고 휘눔을 숭앙하며 휘눔족 속에서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는 추방되고 결국 강제 귀국 당하다시피 돌아온 고국에서 예의 광기 어린 모습을 노정한다.

걸리버가 처한 이런 지독한 곤경을 영국계 아일랜드인(Anglo-Irish)으로서 아일랜드를 멸시하고 영국에서 영국인으로 살기를 원했던 스유프트의 특이한 삶의 내력에 견줘보지 않을 수 없다. 실상 휘눔과 야후라는 극단적 대조의 쌍은 식민주의가 정치, 문화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 전매특허처럼 동원하는 이항대립의 하나라 할 것이다. 야후에게서 발견되는 악취, 탐욕, 다툼, 계도 불능성 등은 스유프트가 질타했던 아일랜드 토착민의 특성과 흡사한 것으로 드러난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자연의 완성(Perfection of Nature)’이라는 휘눔족도 자유무역의 신화처럼

허명에 지나지 않고 휘늬의 나라가 유토피아보다 디스토피아에 한층 가깝다는 것도 분명하다. 말의 걸음걸이와 울음소리를 흉내 내는 걸리버의 희화화된 모습은 키버드(Declan Kieberd)의 지적대로 식민주의가 토착민을 발광하게 만들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¹³⁾

걸리버가 역겨운 야후에게서 자신과 같은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고 경악하는 것은 제국과 식민지에 대한 성찰의 대미를 장식한다. 그것은 배제와 부정의 강도가 연루의 깊이를, 흠모와 추종의 강도가 차이의 심연을 반증하는 역학관계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사실 걸리버의 광기만 빼면 오랫동안 여러 나라를 떠돈 결과 고향마저 아주 낯설어져 결국 어디서도 안주할 곳을 찾지 못하고 떠도는 걸리버의 신체는 일생 집 없이(homeless) 떠돌았던 스위프트의 신체와 적잖이 겹친다. 『드레이 피어 편지 *Drapier's Letters*』의 세 번째 글에서 토로되는 “영국에서는 자유인인 내가 6시간 배를 타고 해협을 건너면 아일랜드에서는 노예가 된단 말인가?”¹⁴⁾ 라는 탄식에는 영국과 아일랜드, 제국과 식민지, 문명과 야만, 전통과 현대의 ‘사이’를 떠돈 자의 쓸쓸한 감회가 절절하게 배어 있다고 하겠다.

나는 두 왕국의 시골과 도시 모두에서 오래 동안 살아왔다. 그래서 누구 못지않게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성정을 잘 안다고 생각한다. [영국인들은] 아일랜드에 대해 맥 시코에 대해서 만큼이나 아는 게 없다. 안다는 거라곤 영국 왕에 복속된 나라로 습지 투성이에 거친 아일랜드 구교도들이 살며 그들은 [영국에서] 보낸 용병부대에 잔뜩 겁을 먹는다는 게 고작이다. 그래서 그들은 아일랜드에서 40년마다 반란이 일어날 게 틀림없다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일반적으로 차라리 이 섬이 송두리째 바다에 가라앉아버렸으면 낫겠다고 생각한다. 거친 아일랜드인들을 차꼬를 채워 가둬야 한다느니 아니, 시간이 좀 지나면 그들도 길들여져 당신들의 손에서 음식을 받아먹게 될 것이라는 무지막지한 추단이 [아일랜드인들]을 두고 오가는 걸 나는 지켜봐 왔다. 나는 수백 명에게서 바다 건너 아일랜드에서 왔느냐는 물음을 받았다. 그리고 어떤 아일랜드인이 시골 읍에 도착하는 즉시 군중이 그의 주위로 몰려들어 그가 그들보다 훨씬 잘 생긴 것을 보고 신기해하는 것도 보았다.¹⁵⁾

여기서 스위프트는 영국인과 아일랜드인을 공히 ‘그들’로 지칭하고 양쪽을 살피는 관찰자로서 자신의 입지를 양자 사이의 어떤 지점에 둔다. ‘바다 건너 아일랜드에서 왔느냐’는 물음을 성가시도록 들었다는 것으로 봐서 영국에 온 아일랜드인이 영국인들에 둘러싸여 진기한 구경거리인 양 취급되는 것을 바라보는 그의 태도에

13) Declan Kieberd, *Irish Classics* (Harvard UP 2001) 98면.

14) Jonathan Swift, *Prose Works*, ed. Herbert Davis et al. (Oxford:Clarendon Press 1939-74) 10: 31.

15) 같은 책 10: 103.

동병상련에서 비롯된 분개 같은 것이 있을 법한데, 그런 감정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아마도 그가 다시 바다를 건너 아일랜드로 돌아갔을 때 아일랜드인들이 자신을 영국인으로 여겨 둘러싸고 신기하게 쳐다보았던 경험을 상기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일랜드에 대한 영국의 무지와 편견은 영국에 대한 아일랜드의 무지, 편견과 맞물려 있고 동시 발생적이라는 ‘겹의 시각(double vision)’이 깔려 있는 것이다. 내가 상대를 바라보는 것은 상대가 나를 바라보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며 따라서 나는 바라보는 주체이자 바라봄의 대상이라는 겹의 시각, 또는 비교인류학적 시각은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를 오가며 방황했던 스위프트에게 체화된 것이었다.

키버드가 시사한¹⁶⁾ 대로 스위프트는 영국계 아일랜드인(Anglo-Irish)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영어 표현에서 드러나는 하이픈에서 가늠했다고 할 수 있다. 각기 확실한 윤곽을 지닌 두 문화의 어느 쪽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걸지 않은 채 두 문화 모두로부터 저만치 떨어진 곳에, 즉 두 문화의 ‘사이’에 서서 “어느 문화 속에서 물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에 대해 물음을 던지는 것”¹⁷⁾이 스위프트가 찾아낸 자리라고 하겠다. 어느 쪽에도 자신을 걸 수 없었기에 그는 양쪽의 서로에 대한 행태를 훨씬 예리하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반면 그 때문에 그는 영국과 아일랜드 어느 쪽에서도 ‘고향에서의 이방인’일 수밖에 없었고 고향과 이방이 단지 반대말이 아니라 불가분하게 뒤얽힌 짝말이란 것을 날카롭게 인식할 수 있었다.

스위프트가 디디고 섰던 ‘사이’의 공간은 곧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의 바다인 셈이다. 이 바다는 앞서 인용한 블랙모어나 포우프의 시구에서 드러나듯 영국 상선을 통해 멀리 떨어진 곳들이 하나로 이어지고 교역을 통해 서로의 필요가 충족되는 상큼한 순풍의 바다가 아니다.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의 바다는 일방이 자의적이고 폭력적으로 상대 쪽 물자의 흐름을 제약하고 봉쇄하는 바다이고 나아가 양 국민 사이의 자유로운 상호 소통과 이해를 가로막아 편견과 적대감을 키우는 바다이다. 해서 ‘바다 건너 아일랜드에서 왔느냐’는 물음에는 큰 울림이 담긴다.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의 바다는 지배와 피지배, 우월과 열등의 정치심리적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바다이다. 영국인들은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은밀한 불안 요소들을 바다 건너로 투사시키고 반대쪽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시기와 반감이 되투사되기 마련이지만 로빈슨 크루소의 경우 그 상호성은 깨끗이 제거된다. 스위프트는 일생 동안 솔하게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를 오갔지만 그 얼마 안 되는 거리의 바다는 자신이 겪는 갈등과 분열을 생생하게 상기시키는 공간이었다.

한 몸에 식민주의자와 피식민자의 입장을 함께 안았던 처지에서 스위프트의 글

16) Declan Kieberd, 앞의 책 88-9면.

17) 같은 책 81면.

쓰기는 자신의 정체성과 안주할 곳 찾기 그리고 그에 따르는 불안과 의혹을 핵으로 한다. 그는 식민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한편으로 그 자신 그런 이데올로기를 굳게 담지하기도 했다. 영국에로의 경도를 결코 떨치지 못했던 그는 아일랜드의 독립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영국과 아일랜드 어느 쪽에도 투신할 수 없었던 그는 뿌리 없이 흔들리고 떠도는 식민지인의 한 전형을 보여준다. 이런 엄연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의 분열된 자아상과 그가 온몸으로 감당했던 흔들림과 떠돌은 그 자체가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기축 관계 속에서 제국주의가 여하한 정치, 문화적 재현의 양태와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예외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준다.

끝으로 스위프트가 제국주의에 대한 인식을 걸리버의 입을 빌려 표현한 대목을 살펴본다.

해적의 무리가 폭풍을 만나 어딘지 모르는 데로 표류하다가 마침내 돛대 위에서 한 소년이 육지를 발견하면 그들은 노략질하러 상륙한다. 그들은 순진무구한 사람들을 만나 환대를 받고는 그 나라에 새 이름을 붙여 국왕을 대신하여 정식으로 점령하고 그 표시로 썩어빠진 판자때기나 돌맹이를 세운다. 그들은 수십 명의 원주민을 살해하고 견본으로 한 쌍을 강제로 끌고 귀국하여 사면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하늘로부터 받은 왕권의 이름으로 획득한 새로운 영토가 시작된다. 기회가 닿는 대로 즉시 함대가 파견되고 원주민들은 쫓겨나거나 학살되며 그들의 왕은 황금이 있는 곳을 대라고 고문당한다. 온갖 비인간적이고 탐욕스런 행위가 너그럽게 용인되고 대지는 주민들의 피로 악취를 풍긴다. 이토록 경건한 원정에 동원된 가증스런 도살자의 무리가 바로우상을 숭배하는 야만스런 백성을 개종시켜 문명화하도록 파견된 현대의 식민지이다.¹⁸⁾

포우프와 개인적으로 막역한 친구이자 바보(dunce)의 무리에 맞서 풍자 전선을 함께 구축한 문학적 동지 스위프트의 제국주의 인식은 앞서 살펴본 포우프의 그것과 극적인 대조를 보인다. 포우프의 환상적 비전과는 대척적인 견지에서 해상제국 건설의 속악한 경로를 까발리는 위 대목에서 포우프의 미려한 시어와 낭랑한 울림의 리듬에 비겨 스위프트의 직정적 언어와 식민화 과정을 고구마 줄기 캐듯 한 숨에 꿰어내는 가쁜 숨결이 돋보인다. 아마 식민지 아일랜드의 상황을 속속들이 경험하고 그 식민주의 메커니즘을 뿌리까지 성찰했기에 여하한 환상도 떨치고 최대한 날것으로의 현실에 가닿은 것으로 판단된다.

18) Jonathan Swift, *Gulliver's Travels*, ed. R.A. Greenberg (New York: Norton, 1970) 258면.